

■ [공통: 문학·독서]

01. ⑤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③ 27. ② 28. ① 29. ③ 30. ①  
 31. ③ 32. ④ 33. ⑤ 34. ②

[1~3] 독서

[1-3] 독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지문해설** : 이 글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며, 선별한 내용을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읽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 얻은 지식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한 의미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때 기록은 망각을 방지하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며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주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과정과 의미 구성

1. 독서 방법 추론

**정답해설** : 읽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서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나 이를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것은 학문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맥이 끊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기록

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연결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벗끼리 함께 모여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강론’하고 ‘기록’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벗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보여 준다.

### 3. 독서의 특성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글에 나타난 독서의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반응에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학생의 반응에 모범적인 독서 태도의 발견이나 반성과 관련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생의 반응을 통해 학생이 알게 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생의 추가적인 독서 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생의 반응에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 [4~9] 주제 통합

### [4~9] 인문.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지문해설** : (가)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보고, 두 과정의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는 이러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새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

(나)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재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동중서는 재이가 군주의

---

권력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 이후, 인간사와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송대의 주희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주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의 시대에 따른 변용 양상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는 동중서의 재이론이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이를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는 동중서의 재이론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인과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로서 재이론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대의 동중서의 재이론, 동중서 이후의 예언화 경향, 송대의 주희의 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나)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을 다루어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한대의 재이론에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재이론에서의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은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인과 관계 그 자체는 흠이 지적하였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천문학의 발달로 일월식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송대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주희가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대에는 일월식을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내는 과정 2와 교차하면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 없어진 채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스크린상의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한 것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에 따른 것으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결과는 아니다. 2문단에서 교차하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 3은 교차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② 과정 이론에서는 두 과정이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A]에서는 과정 1과 과정 2가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교차하였고, 이 교차로 인해 변화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A]에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b 지점까지 줄곧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과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하여 도입된 표지는 그 지점을 지나 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하면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티로폼이 부착된 스크린의 한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지점에서는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 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즉 인간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 결국 ㉠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이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과거의 인간사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은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을 강조하고 정치와 재이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 ㉠이 누적된 실정으로 인해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재이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 ㉠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군주의 누적된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재이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에서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였다.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기는 동중서의 재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흠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에서는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 이론은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보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과 전달로 인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과학적으로 인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에서는 덕이 잘 닦인 치세에는 재이가 없고 난세에는 변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였다. 이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동중서의 생각,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희의 생각과 상통한다. ㉣ ㉠은 덕이 잘 닦이지 못한 난세에 재이와 세

상의 변고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의 교차를 통해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을 통해서도 ㉔를 설명할 수 없다. ㉕ ㉖에서는 지방관의 실정이 원인이 되어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새먼은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를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먼은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지방관의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대책을 찾으려’의 ‘찾으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뜻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라는 뜻이다. ㉓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뜻이다. ㉔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㉕ ‘잃거나 빼앗기거나 말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10~13] 독서

#### [10-13] 사회, ‘베카리아의 형벌론’

**지문해설** : 이 글은 형벌에 대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인간을 전제하고,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합의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며, 형벌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람들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지니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반대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공리주의자·사회 계약론자·일반 예방주의 형법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주장과 근거

##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사람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며, 이렇게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개인들의 행복, 즉 전체 복리를 위해 주권 관리의 일환으로 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주권자는 개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을 통해, 개인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법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할애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 조건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했다는 것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라고 전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가 처음에는 크더라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주권은 개개인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과 같다는 것과, 형벌은 주권자가 주권을 관리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주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지만 하면 달성된다고 하였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지만 하면 형벌의 범죄에 대한 방어 효과가 달성되므로, 형벌이 높게 설정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벌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이 설정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에 따라 그 달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 즉 할애된 자유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과,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즉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보다 다른 형벌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이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된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사형이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 베카리아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무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단절(斷絶)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㉞는 ‘막아서 못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저지(沮止)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향유(享有)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와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둔감(鈍感)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지대(至大)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수립(樹立)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14~17] 독서

#### [14-17] 과학,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유전자 복제, 감염병 진단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CR에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며 PCR 과정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주형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기는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형광 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이 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도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주제]** 각종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

#### 1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

---

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 16.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PCR의 과정에서 표적 DNA의 양이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초기 농도가 높은 ㉠이 ㉡보다 많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로 정의된다. 사이클의 값이 어떠한 ㉠과 ㉡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이르는 것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동일한 양으로 증폭되었을 때이므로 ㉠에는 '㉡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은 ㉠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표적 DNA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에 비해 빨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Ct값은 ㉠이 작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정답 ②**

[18-21] 현대소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보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지식인의 부정적인 모습은 작중 김기범의 말에 언급된 '무사와 악사'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무사'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을 나타내고, 그러한 무사의 옆에 기생하며, 다만 그의 행위들을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을 '악사'로 지칭하고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지식인의 모습을 작중 인물인 오일규와 김기범을 통해 그려 내면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1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기범의 삶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이다. 또한 [A]에서 '나'는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할 때 자신의 추상적인 생각을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것은 맞지만, 기범이라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③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한 부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④, ⑤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기범이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요설들'을 떠들던 것을 떠올리며 기범이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㉞은 기범이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추측이 기범의 실제 행위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㉟은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에서 '미친 듯이 웃'다가 '번쩍이는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한 '나'의 긴장인데, 이는 기범이 웃다가 우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나'가 드러낸 반응이므로 적절하다. ② ㉠은 기범에 대한 '임 씨'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다. '임 씨'는 처음엔 기범을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기범의 깎은 머리와 수염 등이 기존의 생각을 더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은 기범의 '철학'을 전달하는

‘임 씨’의 말로, ‘임 씨’는 기범의 생각을 ‘묘한 철학’이나 ‘이상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 씨’가 세상에 대한 기범의 관점을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㉕에서 ‘임 씨’는 기범과 관련하여 ‘미련하다’의 뜻을 흔히 쓰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호의를 담은 숨은 뜻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㉔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기범의 독특한 관점을 지칭하는 어구이다. 이에 대한 ‘임 씨’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나’는 ‘가슴 한구석에 뭔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기범의 행동이 ‘한 가닥의 질서 위’에 늘어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나’는 기범이 깊은 산골로 온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임 씨’가 ㉔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냐고 청하였다. 또 ‘저(임 씨)’가 기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㉕ ㉖에 대한 서술은 ‘나’와 ‘저’의 대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 속에서 이뤄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저’는 ㉔로 인해 기범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기범이 지꼈었던 과거의’ ㉕로 인해 기범을 이해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저’는 기범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기범의 행동을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㉖에서 ㉔로의 변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서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기범의 말은, 동일시하려는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할 경우,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인 성취감으로 볼 수 없다.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세상에 대한 기범만의 독특한 해석이자 관점이므로, 이를 일종의 감정적 차원인 성취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㉔ ‘저’의 말로 보아, 기범은 일규의 죽음 이후에 충격을 받고 세상살이에 재미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일규의 죽음은 곧 기범이 동일시하려던 대상의 부재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근거할 때 일규의 죽음에 대한 기범의 충격은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㉕ 기범의 말에 의하면

일규는 기범을 ‘밭길로 걷어찼’으며, 기범이 이를 자신에 대한 일규의 외면으로 생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범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시하려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으며 기범이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범은 ‘나’에게 ‘울적할 때마다’ 일규의 ‘쌍판’을 ‘허공에서’ 찾으며 일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일규가 기범이 동일시하려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기범의 고백은 동일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은 심리적 위안이므로, 기범이 일규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임 씨’의 말로 보아, 기범이 아끼던 친구인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구천동’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동일시하려던 상대인 일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낯선 곳인 ‘구천동’과 같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 상황을 벗어남으로써 기범이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김시습, ‘유객’ / (나) 김광옥, ‘울리유곡’ / (다) 김용준, ‘조어삼매’

지문해설 : (가)는 청평사에 찾아들어 봄 산의 기운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털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산세의 지저귀와 흐르는 냇물, 꽃잎, 나뭇잎과 버섯 등 다양한 자연물을 제시하여 봄 산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하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화시키는 속세의 근심

(나)는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반정으로 재출사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울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곡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다)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거하여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글쓴이는 뒤숭숭한 시절을 살아가는 답답함과 울화를 낚시를 통해 잊고자 하는데 이 낚시질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피

---

해 은거했던 옛사람들의 심정에 동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불의한 시대를 낚시로 잊고자 하는 지식인의 마음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 산’이라는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 등을 통해 봄에 해당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 나타난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이므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살구꽃 저 쌓이니’에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좋은 나물’이 ‘때 알아 돌아나’는 자연물의 속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자연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속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물을 통한 교훈적 의미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나그네’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나)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2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제10곡>에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돌아온 울리에서 화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이 ‘울리’인데, <제1곡>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마을의 지명이 이와 같음을 언급하여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8곡>에서는 강산을 삼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부분 등에서 자연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조각배에 올라 밤낚시를 하며 느끼는 맑은 흥취(‘청흥’)를 강조하고 있다.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를 찾으려’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7곡>에서 화자는 ‘최행수’와 ‘조동갑’을 부르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다.

##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서재’를 지켜 ‘한묵의 유희로 폭 박혀 있’는 것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고, 서재에 ‘머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으므

로 ㉔이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라 할 때, 이와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나.’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낚시 도구와 자신의 관계를 ‘객’과 ‘주인’이라는 말로 나타내었으며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찌’가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물고기가 찌를 문 순간으로,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낚시를 하기 전에 글쓴이는 ‘그녀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낚시를 해 본 후에 글쓴이는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뒤숭숭한 세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도연명’과 자신이 ‘수졸전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연명’은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판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며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글쓴이 역시 ‘판교’와 같은 마음으로 낚시를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판교’의 행적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삼공’은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으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의 ‘세버들 가지’는 낚은 고기를 꿰는 용도로 쓰인 자연물이다. 단순히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의 ‘청수한 한 폭 대’ 역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므로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고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므로 이를 화자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 ‘송사리’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서 글쓴이가 낚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글쓴이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의 ‘시름’은 번잡한 속세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욕’은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옛사람들에 대해 글쓴이가 한때 가졌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 2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A]에는 낚시를 하며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꺾인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던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오는 한탄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 글쓴이의 경이감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에도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에서 글쓴이가 새로운 이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B]에서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라고 말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온 골'은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울리'라는 마을이고, '주가'는 '울리'에 있는 공간이므로 '주가'와 '온 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것과 '넓은 다리'가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백 년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백 년 근심'은 속세에서의 삶에서 유발되는 근심이므로 '신선 골짜기'는 속세와 대립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울리'라는 마을에서 '이대도록 시원하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속세와 '울리'가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낚시를 통해 세상일의 뒤숭숭함을 잊고자 하는데 (다)의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낚시의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못가'는 글쓴이의 지향이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그 이면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8~31] 문학

#### [28-3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추풍감별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하는 조선 후기의 애정 소설이다. '채봉'과 '필성'이라는 주인공이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혼례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난 사건 전개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혼사 장애담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의 파격적인 모습은 당시 변화하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에게 딸을 첩으로 넘기는 대가로 벼슬을 얻기로 한 김 진사의 모습은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세태를,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채봉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다.

---

[주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젊은 남녀의 진취적인 사랑

## 2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별당 건넌방에서 홀로 지내며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송이는 부모의 소식을 듣고 싶어 애태우고 있기는 하나 감사는 송이의 그런 형편을 알지 못하므로 감사의 걱정을 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송이가 공사 문첩에서 필성의 필적을 보고 난 뒤 감사에게 그 영문을 물어보자 감사는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송이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던 차에 필성이 이방이 되어 헌신하였는데, 감사는 크게 기뻐하며 필성을 ‘여옥기인’이라고 칭찬한다. 이를 통해 감사가 필성의 문필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송이는 필성을 그리워하다가 책상머리에 엎드려 잠들고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송이는 장필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었으므로 두 사람은 꿈속에서만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필성이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알 길이 없다고 하였고,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지내 ‘상사병이 될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필성이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에서 필성의 글씨를 보았고 필성이 ‘혹 공청에 드나’드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송이는 ㉠을 보고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성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친 송이는 만나지 못하는 필성을 향한 ‘상사’의 마음을 ㉡에다 글로 풀어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송이와 감사가 ㉡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사는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 못하였으며, 감사는 ㉢를 읽으면서 송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필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송이가 ㉠에서 필성의 필적을 확인하고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는 필성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썼을 뿐이지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 ④ ㉠은 필성이 작성한 것이므로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고, ㉢는 필성이 쓴 것이 아니라 송이가 쓴 것이다. ⑤ ㉠은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송이가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는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풀어낸 것일 뿐,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3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달에 의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달’은 기러기, 두견이, 낙엽 등 다양한 자연물의 소리와 어울려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다. ③ 송이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라고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이로부터 송이가 달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송이는 ‘달 아래’에서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백낙천을 만났지만 자신은 필성을 만나지 못했다며 옛이야기 속 여인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고,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며 연민을 표하였다. ⑤ 송이는 ‘달’을 보며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필성)을 만’난 추억을 떠올리고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라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달’은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고,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기도 하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송이는 감사에게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은 송이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간 표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송이가 공청 일을 하게 된 이후의 시간과 관련되므로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감사의 이방 선발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의 시간 표지가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이 부여되었다. ②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가 ㉠을 기점으로 삼아 공사 문첩을 보고 감사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계기로 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이 심화하게 되었으므로 ㉠은 서사적 전환에 관여하는 시간 표지라 할 수 있다.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긴 시간만큼이나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이 매우 깊어졌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은 감사가 ‘팔십여 세’의 나이로 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밤낮없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때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시간 표지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상황에서 흐느껴 울던 송이를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김기림, '연륜' /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지문해설 : (가)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연륜(年輪)'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르는 말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 온 '서른 나문 해'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나)는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대립되는 성격의 소재와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물건'은 소모적이고 물개성적인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고, '시퍼런 무쇠 낫'과 '꼬부랑 호미'는 개성적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 '현대 아파트'는 도시적 일상의 공간이고, '털보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이다. 화자는 전자에서의 삶이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느껴 후자에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발 아래 깔렸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하강적 이미지의 '꽃 이파리'와 '똥덩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을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독백적 어조’로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또한’은 ‘그것과 함께’라는 뜻으로, 대상과의 동질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 역시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의 ‘마구’는 ‘함부로’라는 뜻으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함부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구’는 화자가 자신과 ‘플라스틱 물건’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열렬히’는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강렬하다’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나)의 ‘한꺼번에’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량으로 소비되는 물개성적 ‘플라스틱 물건’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이 말은 ‘하나씩’과 대비를 이루어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③ (나)의 ‘온통’은 ‘전부’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부끄럽다는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날로’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당장’은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주름 잡히는 연륜’은 ‘피려던 뜻’이 굳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불꽃’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열정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연륜’에는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불꽃’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꼽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는 도시 문명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가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앞서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한 사물들은 털보네 대장간의 ‘무쇠 낫’이나 ‘꼬부랑 호미’이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걸려 있고 싶다’는 결핍에

---

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섬'으로 가려는 화자는 그전에 '육지'에 초라한 경력 즉,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겠다고 하였다. (나)에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다고 여긴 화자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가)의 '육지'와 (나)의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① 37. ⑤ 38. ⑤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① 44. ⑤  
45. ②

[35~37] 화법

35. 강연(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강연 1문단의 ‘(사진을 보여 주며) 기억나시지요?’와 2문단의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지요?’에서 강연자가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 대상인 ‘가로수’를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는 내용은 강연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강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2문단에서 ‘여러분이 사는 △△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와 같이 과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최근의 사례와 대조하며 설명하는 내용은 강연에 제시되지 않았다. ⑤ 강연을 시작하는 부분에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6. 강연(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전자 우편의 ‘여름 방학 봉사 활동을 위해’를 통해 청중이 여름 방학 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강연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안내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자 우편의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를 통해 청중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2문단의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관련한 도시의 토양 환경을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③ 전자 우편의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 청중이 도시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3문단의 ‘살수차를 동원해 ~ 투입하는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④ 전자 우편의 ‘저희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자’를 통해 청중이 봉사 활동의 의의를 알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3문단의 ‘여러분 덕분에 △△시의 가로수가 울여름에는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사 활동이 가뭄과 폭염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⑤ 전자 우편의 ‘강연하실 때 저희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를 통해 청중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한 자료의 활용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연 2문단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 ‘몇 월의 모습일까요? ~ 8월의 모습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의 사진을 보여 주며 질의응답한다는 계획은 강연에 반영되었다.

### 37. 강연(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㉔는 강연에서 설명한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가로수의 고사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강연 내용 이외의 궁금증을 떠올리며 들었음을 보여 주는 메모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는 내용도 메모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㉒는 화살표 ‘→’를 사용하여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과정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세부 정보들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㉓ ㉔는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보겠다는, 강연 이후의 조사 계획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㉕ ㉖는 동네 가로수의 보호 틀을 교체한 이유를 건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 내용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동네 가로수 보호 틀을 교체한 것을 목격한 자기 경험과 강연 내용을 관련지으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㉗ ㉘는 강연 3문단의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는 일이라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를 들은 학생이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따로 묶으며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38~42] 화법, 작문 통합

### 38.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㉕ ㉖에서 학생 2는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사안의 원인을 묻고 있으며, 학생 1은 ㉒에서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처럼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라고 답하고 있다. ㉓ 학생 1이 여섯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 학생 2는 ㉔를 통해 ○○시청이 한 노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학생 1에게 요청하고 있다. ㉕ 학생 1이 여섯 번째 발화에서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라며 의류 수거함 문제의 원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학생 2는 ㉖과 같이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㉗ 학생 1이 여덟 번째 발화에서 제시한 ‘공공의 문제 해결에는 시청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2는 ‘그



---

말도 맞’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라며 상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39. 대화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A]에서 학생 1은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 우편으로 보내 줘.’라며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 2가 ‘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라며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학생 1은 ‘나도 자료 준비되면 줄 테니까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라며 질문의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학생 2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학생 2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② 학생 1이 학생 2와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발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학생 1은 학생 2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⑤ 학생 1은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하고 있지 않다.

### 40.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건의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학생 1은 여덟 번째 발화에서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는 의류 수거함 문제의 실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학생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우리 학교 친구들도 수거함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처럼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 1문단에서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류 수거함 관리’처럼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② (가)에서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의류 수거함 주변이 ~ 쓰레기들도 많고.’처럼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 1문단에서 ‘수거 대상이 아닌 ~ 된 곳도 있다.’처럼 문제 제기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③ (가)에서 학생 1은 여섯 번째 발화에서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했다’처럼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 3문단에서 ‘인근 ○○시에서도 ~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와 같이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아홉 번째 발화에서 ‘안내대로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처럼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 2문단의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처럼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 41.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작문

**정답해설** : (가)에 나타난 학생 2의 마지막 발화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 3문단의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4문단의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일이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의 예상 독자는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필자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4문단의 ‘파손되고 방치된 의류 수거함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시고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주셨으면 합니다.’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의류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식의 글이다. ② (나)는 3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예상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의 신문 기사([https://www.\\*\\*\\*\\*.co.kr/v3R4e](https://www.****.co.kr/v3R4e))’를 통해 글의 특정 정보가 다른 자료에 연결되게 하고 있다. ④ (다)는 필자와 예상 독자가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으로 의류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의류 수거함 안이나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 4문단의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와 (다) 2문단의 ‘첫째, 도시의 미관과 ~ 도움이 된다.’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 42.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㉑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이므로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㉒를 기준으로 볼 때,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하도록 ㉑의 내용을 ‘의류와 가방, 담요 등은 가능하지만 솜이불과 베개, 신발 등은 넣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㉑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로 수정할 경우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진다. ② ㉑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㉑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㉑의 ‘예를 들어’를 ‘그러나’로 수정하더라도 앞뒤 문장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다. ④ ㉑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내용상 관련이 없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과 중에는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넣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

침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⑤ ⑥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내용상 관련이 없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43~45] 작문

43. 소개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도입 부분에서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과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 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초고 1문단의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 쓰기를 선호한다.'를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초고 2문단의 '컴퓨터 자판으로 ~ 생기게 된다.'를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초고의 3문단을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초고의 4문단을 통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소개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처럼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였고, '세 가지 빛깔의 진주'처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② 손 글씨 쓰기의 과정이나 한계는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는 언급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마무리하지 않았다. ④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소개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은 손 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손 글씨 쓰기로 인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고등 사고 과정이 이루어져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문단이다. 또한 ㄴ의 과제 1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집단과 손 글씨 쓰기 집단이 기억 여부의 성취도 면에서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보여 주므로 과제 1의 결과를 활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① ㄱ은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전 영역에 걸쳐 신경 회로가 형성되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이고, 2문단은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ㄱ을 활용하여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ㄴ의 과제 2는 손 글씨 쓰기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한 집단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집단보다 개념 이해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3문단은 손 글씨 쓰기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ㄴ의 과제 2의 결과를 활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ㄷ-1은 학습 과제 작성 시 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함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이고, 1문단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ㄷ-1을 활용하여 1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ㄷ-2는 손 글씨 쓰기 방식으로 학습 과제를 작성하면 과제에 '애착'이 생긴다거나, 과제에 '정성'을 쏟을 수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이므로, 이는 4문단에서 제시한 '정서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35~36] 언어

[35~36] 용언의 활용 양상과 표기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의 ‘활용’에서 각 용언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정보’를 통해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면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용언의 활용 양상과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깨묻다’는 ‘깨묻고, 깨물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옛듣다’ 역시 ‘옛듣고, 옛들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과 ㉡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르다’는 ‘구르니, 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잠그다’는 ‘잠그니, 잠가’ 등으로 활용하는데, ‘-’가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구르다’와 ‘잠그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흐르다’는 ‘흐르니, 흘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푸르다’는 ‘푸르니, 푸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③ ‘뒤집다’는 ‘뒤집고, 뒤집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껴입다’는 ‘껴입고, 끼어들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④ ‘붙잡다’는 ‘붙잡고, 붙잡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정답다’는 ‘정답고, 정다워’ 등으로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붙잡다’와 ‘정답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쌍- + -으니’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짜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쌍으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체가 나타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서- + -어’의 과정에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

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서’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㉔ ㉕ ‘끄- + -어’의 과정에서 모음 ‘ㅡ’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㉖ ㉗ ‘풀- + -니’의 과정에서 ‘ㄹ’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푸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㉘ ㉙ ‘믿는’은 교체(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믿는’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37~39] 언어

37.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㉔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노래를 부르기’로,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㉕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로 분류된다. ㉖에서 안긴문장은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㉗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와 마찬가지로 ㉔로 분류된다. ㉘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동생이 오기’로, 안은문장에서 체언인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㉘는 ㉕로 분류된다. ㉙에서 안긴문장은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㉙는 ㉖로 분류된다.

정답 ㉔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㉔의 ‘저희’에는 청자인 선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해 ‘저희’를 사용한 것이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㉒의 ‘학교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㉓의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㉔ 후배 2가 이전 발화에서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㉕의 ‘우리’에는 화자인 선배와 청자인 후배 1, 후배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㉖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라는 표현에서 ㉗의 ‘자신’은 ‘동아리’를 가리킨다. 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한 학교와 동아리 간의 입장 차이라는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㉙의 ‘서로’에는 예산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㉓의 ‘학교’와 예산안을 제안한 동아리에 소속된 ㉕의 ‘우리’가 모두 포함된다.

39.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목도리를 한 코씩 뜨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

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뭍은 코'의 '코'는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② '어망의 코'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③ '긴 코'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④ '코를 다쳐서'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40~42] 매체

40.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웹 페이지 화면 하단부에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꼭지를 제공하여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제시된 기사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아래에 'SNS에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기능을 통해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기사의 아래에 '좋아요(213) 싫어요(3)'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능은 수용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뿐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는 없다. ④ 기사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래프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청각을 결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기사의 하단에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 있지만, 이 정보는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A]에는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추이'와 '여행 1회당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군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숙박 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시각 자료를 통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 평가를 받아 왔다.'라는 내용 뒤에 시각 자료를 배치하여 ○○초등학교를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왼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군 관광객 수가 늘어나

고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상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오른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지폐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프로 제시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⑤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이 작성한 메모 중 ‘셋째 장면(#3)’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상 제작 계획’의 셋째 장면(#3)에서는 메모의 내용과 달리 주요 시설을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제목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을 넣어 도입 장면을 구성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서로 대비가 되는 배경 음악과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숙박 시설을 중심에 배치하고 숙박 시설과 인근 관광 자원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자막을 구성하여 기대 효과를 드러내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기사의 댓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속적인 그림으로 제시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 [43~45] 매체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진행자’의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 휴대용 선풍기 인데요.’라는 말과 ‘박 기자’의 보도 내용을 통해 (가)가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장면 4]에서 다룬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는 점이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③ (나)에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장면 3]에서 시민 인터뷰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가 아닌 한 명의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만 제시되고 있다. ⑤ (나)는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



---

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담고 있는 정보의 양도 (가)에 비해 적다.

#### 44. 매체의 언어적 특성

**정답해설 :** ㉠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행자가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에는 어떤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진행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명사 ‘휴대용 선풍기’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시청자가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휴대용 선풍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였다. ㉢ ㉠의 앞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다양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에서는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제가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였다. ㉤ ㉠에서 박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 뉴스에서 박 기자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마지막 발화인 ㉠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나)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가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이미지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각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휴대용 선풍기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한다. ㉡ ‘자료’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문구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풍력이 더 세졌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에서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한 풍력과 같은 제품 성능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료’는 ‘안전성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 (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는 ‘내 손 안의 태풍’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제품이 지닌 강력한 풍력을 강조하고 있다.



■ [공통: 문학·독서]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① 23. ②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②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②

[1~3] 독서

[1~3] 독서,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지문해설** : 이 글은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은 학생의 독서 체험을 담은 독서 일지이다. 학생은 이 독서 일지에서 미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하였으며, 책의 서론과 책의 내용을 관련지어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책의 제목과 목차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해 책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독서 일지를 통해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주제]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미술사를 다룬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미술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 적절한 책을 선정해 읽은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신이 선정한 책이 고프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다수의 저자가 집필에 참여하였는지가 책 선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을 받은 책인지 고려하였다는 언급은 없으며, 미술에 대한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④ 자신이 이전에 읽은 책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최신 학술 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책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책을 선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며 『서양 미술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독자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책을 읽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책의 서론의 내용과 27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

며 읽은 것이다. ② 3문단에서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고 책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책을 읽은 것이다. ④ 4문단에서 책이 7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을 고려하여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은 것이다. ⑤ 3문단에서 책의 여러 부분 중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책을 읽은 것이다.

###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수용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학생에게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보기>는 저자의 관점보다 책을 읽는 사람의 관점과 주관을 강조하고 있다. ② 학생이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보기>는 책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에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 저자가 구성한 방식대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 [4~9] 주제 통합

#### [4~9] 사회,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지문해설** : (가)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판매자가 이용하는 광고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으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이윤

---

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한편 광고로 인해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과 광고의 경쟁 제한 효과

**지문해설 :** (나)는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는 상품 정보의 노출을 통해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더 민감해지게 하거나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다시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광고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고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광고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제]** 광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는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판매자가 이윤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춤으로써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와 판매자가 광고를 하는 이유, 즉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 상품에 대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 유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 등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휘하는 효과가 크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광고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와 이로 인한 선순환 등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의 차별성이나 경쟁력, 상품에 대한 충성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기존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 상품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고와 관련된 제도나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즉,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며,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즉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며, 이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한계 소비 성향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 강화 → 소비 촉진 → 생산 활동 자극 → 고용이나 투자 증가 → 구매자의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과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의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함에 따라 고용 및 투자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와 이로 인해 촉진된 생산 활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 7.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려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이 일어난다. 한편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이므로, 가격에 예민해진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상황이므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진다. 한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구매를 꺼릴 것이므로, 구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발생하면 기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윤에 이끌린 신규 판매자의 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므로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수 있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 판매자도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은 상품의 차별성을 알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 결과이므로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면 더욱 촉진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다. ㉤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나타나므로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한편 ㉡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때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경쟁이 발생하고,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된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여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를 기획 중이므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갑’ 기업이 이 광고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장기적으로 신

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신규 판매자의 진입으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따라서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하여 해당 소비 집단이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를 소비한다면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이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을 부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비용은 최소화한 광고를 기획 중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구매자는 여드름 억제 비누의 가격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므로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다.

##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투입(投入)되다'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들어가므로'를 '투입(投入)되므로'와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반입(搬入)되다'는 '운반되어 들어오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② '삽입(插入)되다'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또는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영입(迎入)되다'는 '환영을 받으며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주입(注入)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 또는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10~13] 독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문해설** : 이 글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제]** 반자유의지 논증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 및 근거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만 지나지 않으며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즉 인간의 선택은 뇌라는 물리적 실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③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즉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즉 인간의 선택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므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11.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의미인 ㉠의 산물일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㉞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㉜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면 그 선택은 ㉝의 산물일 수 있다. ㉝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의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㉞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㉞가 있을 수 있다.

##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은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들어 ㉞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정답 ㉝

**[오답피하기]** 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㉞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㉝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㉞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어떤 선택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㉞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㉝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㉞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 13.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보기>에서 H의 실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 즉 인간의 선택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에서의 다른 신경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하였을 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될 수 있으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H의 실험은 선결정 가정과 관계된 것으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고 해서 ㉠이 무작위 가정을 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선결정 가정은 참이 아닐 수 있다. 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4~17] 독서**

**[14-17] 기술,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 공간의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며,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하여 이를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물체를 접촉하는 것과 같은 감각 반응을 사용자의 손에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을 이용한다. 가상 현실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기술로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있다. 전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장치이며, 후자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동작 추적 센서,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과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관성 측정 센서,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트레드 밀의 움직임은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지만,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현실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주제]**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기술들

---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의 감각 반응을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므로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해도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각 전달 장치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가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해 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HMD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사용자는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감각 전달 장치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사용자의 뛰는 힘을 감지하는 것은 압력 센서이다. 따라서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없다. ②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가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고 하였다. 반면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으므로,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 장면을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감지한 사용자의 동작 정보에 따라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라고 설명하였고, <보기>에서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동작 추적 센서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중 하나이다. <보기>에서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이므로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모두 이용하면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이 골격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⑤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는 동작 추적 센서인 키넥트 센서를 이루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가 제공하는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가 제공하는 컬러 이미지로부터 도출된 골격 이미지는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에 쓰인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둘 이상의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배비장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 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로, 4·4조의 율문체, 해학적 상황 설정과 같은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제주에 부임한 배 비장이 홀로 깨끗한 척하다가 기생 애랑과 방자의 계교에 속아 망신을 당한 후, 도망치듯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 내고 있다.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사공'은 '부인'이 혼자 빌린 배이기에 임의로 다른 행적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지, '배 비장'이 낯선 인물이라 경계하여 승선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계집'은 초면에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의 태도를 양반답지 못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의염치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계집'이 이름을 물었으나, '배 비장'은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당장 제주를 떠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배편을 찾는 '배 비장'에게 '계집'은 그날 저녁 해남으로 갈 배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⑤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는 '배 비장'의 말에 '사공'은 '당신 정경이 불쌍하'다며 연민을 드러내고 해 진 후에 다시 오면 부인 몰래 배를 태워 주겠다고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반말로 하대하는 '배 비장'의 태도에 계집이 불쾌함을 표하자, '배 비장'은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여보시오'라고 하며 계집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 또한 '배 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려' 자신도 역시 반말로 응대하는 사공을 보며, 배 비장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다고 하며 '어법을 고쳐' 사공을 '노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는 모두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배 비장'이 '여보게'라 하대하는 말에, 계집이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배 비장'이 자신의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는 계집을 보고, '분해서' '책망 겸'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 '어이'라는 반말에 사공이 '비위가 틀'렸다고 했으므로, 이는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배가 ‘오늘 저녁 물에 떠’난다는 사공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며 자신을 배에 태워 줄 것을 사공에게 사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배 비장은 부모의 병환 급보를 들었다고 꾸며 대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려 한다. ② 배 비장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배가 아니라,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이 친정에 가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빌린 배이다. ④ 배 비장이 배를 타야 하는 급한 사정을 사공에게 말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보상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⑤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배 비장이 행객들을 데리고 떠나기 위해 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주를 떠나기 위해 혼자 끼어 타려고 하는 배이다.

## 2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서울로 가는 배가 어제저녁에 다 떠났다는 계집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물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한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양반의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하는 것은 양반으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기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였다는 데에서 배 비장이 지역과 신분에 따른 우월감을 드러내며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배 비장이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계집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물음 사람이 계집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배 비장은 사공을 하대하여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말하며, 우월감을 갖고 있던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 [22~27] 문학

[22-27] 현대소설 시나리오 복합 - (가) 오영수, ‘갯마을’ / (나)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지문해설** : (가)는 갯마을에 대해 애정을 지닌 해순이라는 여인을 통해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는 소설이다. 해순은 풍랑으로 인해 첫 남편인 성구를

---

않고서 물뿔을 입고 바다로 나가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인 상수와 같이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가 징용으로 끌려간 뒤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느껴 갯마을로 되돌아온다. 이 작품에서 바다는 해순과 마을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근거와 의미를 마련해 주는 순수과 원형의 자연 공간으로서 형상화된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회구

지문해설 : (나)는 원작 ‘갯마을’을 각색한 동명의 시나리오이다.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원작이 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회구

##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윤 노인 며느리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의 윤 노인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 윤 노인 며느리의 회상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양상이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2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두 노인’은 기상 상태를 보고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고기잡이로 떠난’ 사내들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진다. 이 상황에서 두 노인은 ‘그새 구름은 ~ 코를 찔렀다.’에 묘사된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 뒤, ㉡에 비추어 그 자연 현상이 폭풍우가 올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두 노인’이 우연히 만났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두 노인’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두 노인’이 ㉠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해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노인’이 폭풍우가 오는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와 그 이후에 서술되는 내용을 고려하면 ‘두 노인’의 예측이 들어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등을 고려할 때 ‘두 노인’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 2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B]에 아낙네들이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데’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돛배’는 아낙네들이 마을의 사내들이 타고 나가 변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고등어 배’를 떠올리게끔 하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낙네들이 ‘돛배’를 보며 혹시라도 ‘고등어 배’가 무사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떠올렸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돛배’가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갯마을’ 사내들이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가져와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기사의 내용을 ‘고등어 배’와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는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바다’는 폭풍우가 칠 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의 방편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바다’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해순은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하기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 일을 한다. 따라서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5.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S#21에는 ‘해순’이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비에 젖은 채 성황당을 향해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남편이 고등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자 다급해진 마음에 성황당에 가서 기도라도 올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S#22에서 ‘해순’은 당목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한다. 이로 보아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S#22에서 ‘순임’은 성황당에 올라와 ‘해순’과 같이 절을 한다. 이로 보아 ‘순임’의 등장이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여 절을 하는데, 이들이 ‘해순’, ‘순임’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S#26에서 집을 나가는 ‘윤 노인’을 말리는 ‘순임’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순임’이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6.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S#18은 몽타주 기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은 모두 폭풍우가 몰려오는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S#18은 ‘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나 ‘뛰어나와 바다를 보’거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물들의 행동이 담긴 장면들을 연결하여, 폭풍우가 몰려와 어수선해진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S#24는 비바람으로 인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는 위험에 처한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S#24는 성철이 ‘선미의 키를 잡’는 행위와 ‘이를 악무는’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S#24는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림에 넘어지고’ 등과 같이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기 직전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7.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해설 :** (나)의 S#28에서 당목이 꺾이는 장면은 (가)에서 폭풍우로 인해 마을이 난장판이 된 ㉔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로 인해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상황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S#14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는 (가)에서 윤 노인과 박 노인이 만나 ㉔처럼 생각한 상황을 각색한 것으로, 이 대사를 통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S#15~S#17에서 노목, 바위, 축항을 통해 갯마을과 바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가)에서 ㉔로 묘사된 상황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각색한 것으로, 자연의 위력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S#22는 해순과 순임이 성황당에 있는 상황을, S#25는 해순, 순임과 더불어 몇몇 아낙이 모인 상황을 각각 보여 준다. 이들은 (가)의 ㉔에 제시된 하나의 장면을 등장 인물의 수가 다른 두 장면으로 나누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S#28에서 밤 동안 비바람이 치는 모습과 S#29에서 아침에 파도가 잔잔해진 모습을 O.L. 기법으로 연결한 것은, (가)의 ㉔가 나타내는, 폭풍우가 몰려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8~31] 문학

### [28-31] 현대시 - (가) 오장환, ‘종가’ / (나)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가)는 퇴락한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

만이로만 이어 온 집안인데, 이 작품 속 종가는 폐쇄적이고 암울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황과 어수선한 제사 분위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과거와 달리 고리대금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현재의 퇴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폐해진 종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고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봉건 질서의 몰락

**지문해설 :** (나)는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통해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2~7행에서 처용설화와 처용가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는데,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고, '처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으로 이어져 후세에 전해진다고 보았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재를 '악보'가 사라진 시대로 인식하며, 이후 부분에서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하여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를 지향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심장'은 감성, '뇌수'는 이성과 관련된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야기'는 덧난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이라고 보아, 이상적인 시의 형태로 '노래'와 '이야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 2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런데 종가에서 평소에는 신주를 '곰팡이가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삿날'이 되면 '갑자기'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도록 하여 귀하게 대접한다.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것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자손들이 대립하여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가의 변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것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종가의 행위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가의 부당한 위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통해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는 것이므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

---

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종가에 대한 전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2~3행에서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은 마지막 행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형상화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A]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다. [B]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가 제시된 것이다.

###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윙윙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종가’ 뒤뜰에 ‘달걀귀신’이 있다는 마을의 풍설을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은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검은 기와집’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가 ‘상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므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 시의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 나간다’라는 현재 시제형 표현을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한 행동과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보기>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횡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가 지닌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마지막 행에서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함으로써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기를 바라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이야기와의 결합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종가’에 얽힌 화자의 경험과 종가와 연관된 ‘동네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12~15행에서 ‘이야기’를 통해 ‘노래’가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32~34] 문학

#### [32-34] 고전 시가 - (가) 허난설헌, ‘규원가’ / (나)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의 규방 가사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서글픈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주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지문해설** : (나)는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말미의 만형청류에 포함된 사설시조이다. 임과 헤어진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나 ‘개울에

섰는 버들'과 같은 외부 대상이 '흔덕흔덕', '흔들흔들'하는 모습에서 입과 헤어져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고 있다. (나)의 종장에서는 '후루룩 비쪽'하는 '입하고 코'를 제시하여,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슬픔을 분출하는 화자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 중에는 입과 헤어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며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입과 이별한 슬픔과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빔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베오리', '북' 등 베들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자는 이들 소재가 베를 짤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최는 섯거 치고', '긋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회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솔’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입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④ 37. ② 38. ③ 39. ② 40. ③ 41. ⑤ 42. ⑤ 43. ① 44. ④  
45. ④

[35~37] 화법

35.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첫 번째 문장 ‘○○ 님,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와 마지막 문장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에서 질문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청취자에게 실천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라디오 진행자의 견해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견해의 근거가 되는 출처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라디오 진행자는 감사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4문단에서 권유하는 말을 ‘○○ 님,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 가치관까지 이야기하고요.’라고 권유하는 내용을 뒤이어 말하고 있으나 특정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중심 화제인 ‘자기표현’을 다양한 일상적 소재에 비유한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 대화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두 번째 문장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처음에는 낯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도의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에서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예를 활용한 발화 내용을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듣고 해결을 도와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를 통해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임을 도입부에서 소개하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제 읽어 볼게요.’와 2문단 내용을 통해 사연을 읽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 님,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 많이 속상했겠어요.’를 통해 사연 속 상황으로 인해 사연 신청자가 느꼈을 감정을 언급하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자신의 고민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원인이 돼요.’를 통해 사연 속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와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사연 신청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하겠다



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조언하고 싶은 말이나 소감을 청취자 게시판에 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를 통해 방송 내용에 관해 청취자가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진행자의 계획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7.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청취자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친구와 공유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껴서 부담이 됐었거든요.’라고 쓴 부분에서, 이 청취자도 친해지기도 전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공유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자는 4문단에서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 성격과 가치관까지 이야기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도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행자는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친밀감이 형성된 후에 자기의 고민을 말하기를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친구가 친해지기도 전에 갑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라고 자기표현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취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③ <보기>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행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대화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진행자의 조언에 공감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취자는 진행자의 조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들었다. ④ <보기>에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방송에서 들은 조언을 자신에게 적용할 것은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취자는 방송에서 얻은 정보의 유용성을 생각하며 들었다. ⑤ <보기>에서 ‘저도 ○○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대화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라고 사연 신청자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대화에 관해 ‘자기표현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한 진행자의 의견과 일치하므로 청취자는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대화에 관한 진행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들었다.

## [38~42] 화법과 작문

### 38.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의 3문단 중 ‘건립을 추진하면서 ~ 첫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를 통해 첫 협상이 개최된 이유가 Y동과 Z동의 부지 중 어느 곳이 더 주민 복지 센터 건립

부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 중 ‘이번 의견 수렴은 ~ 참여할 수 있다.’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함께 밝혀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중 ‘지금까지 Y동과 Z동은 ~ 함께 이용해 왔다.’를 통해 Y동과 Z동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민 복지 센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3문단 중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새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를 통해 첫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고려한 부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해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4문단 중 ‘시는 3층 규모의 ~ 구성할 예정이다.’를 통해 새로 건립될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두 동의 의견 수렴 결과가 ~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다.’를 통해 후속 협상이 개최될 경우에 다룰 주제를 밝혀야겠다는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는 ‘Y동과 Z동은 다른 동들에 비해 기존의 주민 복지 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동의 인구 증가로 현재의 주민 복지 센터로는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 주민 복지 센터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와 같이 시청에서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위해 시에서 수행하는 주민 대상 의견 수렴 업무를 소개하고 그 방법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Y동과 Z동의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서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3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주민 복지 센터를 구성할 다양한 시설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설치가 완료된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40. 협상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나)는 Z동에 신축할 주민 복지 센터 3층 공간 활용에 대한 협상이다. 이 협상에서 Y동 대표는 주민 복지 센터의 건립 부지를 Z동의 부지로 결정할 때 고려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에서 부지의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Z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였다는 정보는 Y동 대표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시청 담당자의 첫 번째 발화 중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

에도 참여해 주신 Y동 대표님과 Z동 대표님'을 통해 소식지에서의 첫 협상과 같이 후속 협상에도 양측 동 대표가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4문단 중 '의견 수렴 결과는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다.'와 [A]에서 Y동 대표의 첫 번째 발화 중 '시청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었습니다.'를 통해 소식지에 안내된 의견 수렴에 대하여 Y동의 결과가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 중 '도서관, 주민 영화관, 체육 시설 중 주민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와 [A]에서 Z동 대표의 첫 번째 발화 중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를 통해 소식지에서 소개한 공간 활용 방안 중에 도서관 설치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Z동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중 '새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와 [A]에서 Z동 대표의 두 번째 발화 중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신설 버스 노선이 체육 시설에도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를 통해 소식지에 언급된 신설 버스 노선에 대하여 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1. 협상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Z동 대표는 ㉠에서 'Y동 입장에서는 이용자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Y동)의 이익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 동 주민들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Y동의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자신(Z동)의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십시오.'라고 하여 Y동의 체육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은 체육 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은 체육 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의 요구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42.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는 사실만 나열되고 있을 뿐, 필자의 의견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1문단 중 '협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를 통해 독자들이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통해 독자들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의 협상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의 1문단의 첫 문장 'Y동과 Z동의 주민 대표는 신설될 주민 복지 센터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를 통해 독자들이 기사의 중심 내용인 협상의 결과를 도입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④ <보기>의 2문단 중 'Y동 대표가 ~ 필요하다고 밝혔다.'를 통해 독자들이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에 참여한 두 동 대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43~45] 작문

43. 보고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보고서 본론의 '1. 현황'에서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글쓰기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고서에서 문헌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본론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3문단에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서론 마지막 부분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에서 조사 대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사 기간과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⑤ 보고서에 조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44. 보고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2문단에 '설문 조사 결과,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 탈퇴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조합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의 원인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내용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한 내용은 본론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 현황'의 '조합원들이 점심시간 ~ 사용하고 있다.'에서 ㉠과 관련하여 협동 매점의 운영 시간과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1. 현황'의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 통계 자료를 통해 ㉠과 관련하여 협동 조합의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의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1문단에서 ㉠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유지와 설립 취지의 지속적인 실현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2문단에서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원인과 협동 매점 수익금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을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보고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ㄷ. 우리 학교 학생 인터뷰'의 내용은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협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조합원 비율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는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

---

만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ㄱ은 학교 협동조합의 수익금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조합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전문가 인터뷰이다. 이를 활용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체험 활동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조합원 복지 제도로써 협동조합의 수익금 사용 방법에 부합함을 밝혀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ㄴ은 Z학교의 협동조합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수익금으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인근 학교 사례이다. 이를 활용하여 '조합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합원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ㄴ은 Y학교의 협동조합에서 SNS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여 협동 매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인근 학교 사례이다. 이를 활용하여 '두 번째 문제점의 ~ 수단을 마련한다.'의 예로 SNS와 같은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협동 매점의 수익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ㄷ은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 학생 인터뷰이다. 이를 활용하여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 예로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을 홍보하여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35~36] 언어

[35~36] 우리말 음절 및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절과 표기의 관계, 음절에 대한 관습적 오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음절이 발음의 단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말 음절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표기 형태와 음절 유형의 일치·불일치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말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기인한 음운 변동과 그렇지 않은 음운 변동을 일부 사례를 통해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제] 한국어 음절의 특징과 음절 구조 제약

35. 음절의 이해

**정답해설** : ‘뭉’은 ‘[목]’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목’과 ‘뭉’은 ‘자음+모음+자음’의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싫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의 뜻을 나타내어 ‘싫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싫증’의 ‘싫’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은 사례에 해당한다. ② ‘북소리’와 ‘국물’이 각각 ‘[북소리]’, ‘[궁물]’로 발음되므로 이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무잎’, ‘잎새’는 각각 ‘[나무닙]’, ‘[입새]’로 발음되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닙-입’이 연결되지 않지만,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잎-잎’으로 끝말잇기를 할 수 있다. ⑤ ‘북어’는 ‘[부거]’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며, ‘강변’은 ‘[강변]’으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옷만 → 온만 → [온만]’에서는, ‘ㅅ → ㄷ’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③ ‘물약 → 물낙 → [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④ ‘값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ㅃ → ㅈ’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ㅌ’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

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끓는 → 할는 → [할른]’에서는 ‘ㄹᄇ → ㄹ’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39] 언어

37. 파생어의 형성

**정답해설** : ㉠에 쓰인 접사는 ‘-치-’, ‘-리-’, ‘-히-’, ‘-뜨리(다)’이다. ‘살리다’, ‘입히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쓰인 접사는 ‘-이’, ‘-음’, ‘-기’, ‘-개’인데, 이들은 각각 용언 ‘끓-’, ‘민-’, ‘크-’, ‘지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② ㉢에 쓰인 접사는 ‘-이(다)’, ‘-대(다)’, ‘-거리(다)’인데, 이들은 각각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③ ㉣에 쓰인 접사는 ‘-보’, ‘-꾼’, ‘-쟁이’, ‘-꾸러기’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다. ⑤ ㉤에 쓰인 접사는 ‘-질’, ‘-끗-’, ‘-휘-’, ‘-기-’이다. ‘부채질’, ‘푹나물’에서는 접사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며, ‘휘감다’, ‘빼앗기다’에서는 접사가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같은 품사인 동사를 파생한다.

38.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관형사절 ‘동생이 찾아뵈려던’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편찮으시던’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르신’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주어로 실현되었다. ② 관형사절 ‘고향에 계신’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③ 관형사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할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관형어에 포함되었다. ④ 관형사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드리’는 ‘들(달)+이’로 분석되는데, ‘들’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드리’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서 ‘∅’가,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ㅣ’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블’은 ‘밥(밥)+울’로 분석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밥’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인 것이다. ㉠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쓰였다.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를/를’이 쓰이기도 했다. ㉡ ‘나뭇’은 ‘나모(나무) + ㅅ’으로 분석되는데, ‘나모’가 사물을 뜻하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앞 체언이 존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동물과 같은 유정물일 때에 ‘이/의’가 쓰이기도 했다. ㉢ ‘물로’는 ‘물(물) + 로’로 분석되는데, ‘물’이 ‘ㄹ’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이나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으로/으로’가 쓰이기도 했다. ㉣ ‘님금하’는 ‘님금(임금) + 하’로 분석되는데, ‘님금’이 존재 대상인 체언이기 때문에 호격 조사 ‘하’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존재 대상이 아닌 체언 뒤에서 ‘아/야’가 쓰이기도 했다.

**[40~43]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해설 :** (나)에서 ‘카드 1’과 ‘카드 2’는 각각 (가)에 제시된 ‘○○ 기관 보고서’와 ‘○○ 기관 통계 자료’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을, (나)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성자의 주장은 나열되어 있지 않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청소년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카드 3’에서 기관의 이미지를 청소년의 이미지보다 더 크게 그린 것은,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



소년이 88.3%에 달한다고 하였다. ‘카드 1’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에 그쳤다고 하였다. ‘카드 2’에서는 이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적은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기관 중심의 참여와 청소년 주도의 참여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다. ‘카드 4’에서는 악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관한 김◇◇ 교수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카드 4’에서는 김◇◇ 교수의 말 중에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만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와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이 연결 어미 ‘-여’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앞 절의 내용은 뒤 절 내용의 ‘까닭이나 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는가’를 활용하여 해당 기사문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88.3%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가’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통해 김 모 학생의 발화를 전달하고 있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와 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 A’에 제시된 설문 조사 자료는 학생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3’과 ‘카드 4’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이유 또는 그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카드 A’는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

여 이유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카드 3'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카드 B'의 내용도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누리집은 매체의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웹툰의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하진'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와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0□□. 08. 12' 대화 내용 중 '하진'과 '우주'의 발화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파도'와 '솜사탕'이 주고받은 댓글의 내용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는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을 통해 웹툰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하진'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고, '우주'는 '하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면을 세로로 분할한 것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주혁'은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장면이 제시되는 세로 방향으로 숫자를 달리한 달력 그림들을 배열하여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였다. ③ (가)에서 '우주'는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가)에서 '하진'은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라고 하였고, '주혁'은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친구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표현하되, 사연을 보낸 학생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⑤ (가)에서 '하진'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말풍선 밑에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 [공통: 문학·독서]

01. ② 02. ⑤ 03. ①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① 18. ③ 19. ③ 20. ②  
21. ④ 22. ① 23. ④ 24. ④ 25. ③ 26. ⑤ 27. ⑤ 28. ② 29. ① 30. ③  
31. ⑤ 32. ④ 33. ⑤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의 목적과 가치

**지문해설** : 이 글은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들이 서가 앞에 선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독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독서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또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주제]**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의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하는 독서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가 앞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를 묻고 있다. 2문단에서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은 이유가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

찾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서가 앞에 섰다고 할 수 있다.

## 2. 읽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독서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과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독서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하여 관점을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를 하면서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도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반응은 적절하다.

##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독서 기록장’에서 ‘나’는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자신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 즉 ‘자기 성찰의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학생은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

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 노력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제시된 ‘독서 기록장’에는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거나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라고 한 데에서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된 ‘독서 기록장’의 내용에서 독서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나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4~9] 주제 통합

#### [4~9] 인문,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따르는 변증법에 대해 설명하고,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던 헤겔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며, 이들 셋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예술·종교·철학은 이념을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헤겔은 이러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주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서의 절대정신과 예술

지문해설 : (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엄밀하고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겔은 변증법 모델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

---

을 추가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 간 불일치에 대한 비판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철학보다 인식 수준이 낮은 절대정신으로 보고, (나)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가 변증법 자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를 살펴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가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을 제시하고, 각각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라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 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의 인식 대상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



---

나는 방식은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림을 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있을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나)의 글쓴이는 ㉠의 논리적 구조에서와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종합의 범주가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가 서로 대립한다고 본 것이다. ②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의 변증법적 종합은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두 대립적 범주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 8.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고 말하면서 헤겔의 미학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헤겔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정답 ②

**[오답피하기]** ㉠ <보기>에서 헤겔은 인생의 완숙기에 쓰여진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에 대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예술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을 잘 드러냈음을 헤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보기>의 헤겔의 말에 대해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에 대해 예술이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보기>에 언급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처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킨 작품은 재객관화된 단계로 볼 것이므로 <보기>의 헤겔의 말을 듣고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

을 지닐 것이라고 이해하여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헤겔은 예술을 절대 정신의 한 형태로 보았고,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한 헤겔의 말을 듣고 (나)의 글쓴이가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귀결되다’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의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10~13] 독서

### [10-13]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모순을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달러화의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한 트리핀 교수의 지적처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 이유를 기축 통화와 환율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된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

## 10.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이 어떤 전망을 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으며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기존의 금 본위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던 금에 달러화가 추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실제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 결과,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는 진술을 통해 ‘평가 절상’이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을 통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달러화가 금과 함께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으며, 금 1온스와 35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일정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의 금액이 기존에 비해 더 커지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2문단에서 언급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금 태환 조항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가 단행되었으므로 고평가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달러화의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

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하에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트리핀 딜레마 상황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2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금 1온스당 35달러를 맞교환해 주어야 하는 금 태환 조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금뿐만 아니라 이를 맞교환할 수 있는 달러화가 늘어나 국제 유동성의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일정 정도까지의 금의 생산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교차 환율’이란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세 국가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두 국가 간의 교차 환율이 존재하며 가짓수는 1이다. 한편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1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기 때문에 국가 간 통화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 국가를 A, B, C라고 할 때 A-B, A-C, B-C 국가 사이에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금 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한다. ㉠의 붕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수에 변함이 없고 기축 통화가 여전히 달러화이므로 교차 환율의 가짓수에도 차이가 없다. ③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금의 가치에 고정되며, 이에 따라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도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제한된 상황에서 ㉠에서 ㉡으로 바뀐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세 국가의 합의에 의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하였다.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이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가 합의 이전보다 낮아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국가 간 환율에 의해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A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공급이 줄어든 것이므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A, B, C국의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의 가치는 평가 절하, 즉 하락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보기>에서 세 국가의 합의 결과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하였다. C국 통화의 환율은 B국 통화의 환율에 비해 적게 하락하였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합의 이전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⑤ 3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교역 상대국과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 그 국가는 교역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낮춰 교역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국의 B국에 대한 경상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낮추어, B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야 한다.

[14~17] 독서

---

#### [14-17] 기술, 운전자에게 차량 주위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운전자가 자동차 내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서도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왜곡은 촬영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도 없어야 하므로 왜곡이 보정되면 보정된 영상의 점들과 이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 원근 효과를 제거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2차원 영상을 만드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얻은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여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주제] 차량 주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으로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왜곡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③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왜곡 보정이 끝난 영상을 2차원으로 시점 변환해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즉, 왜곡을 먼저 보정한 후 그 영상들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카메라는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점들을 실세계 격자판에 대응시킨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은 2차원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 영상을 의미한다. ㉡은 왜곡 모델이나 실세계 격자판과의 비교를 통해 ㉠에 발생한 왜곡을 보정한 영상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 '왜곡 보정이 끝나면'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물체가 작게 나타나는 원근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시점 변환 이전의 영상인 ㉠과 ㉡은 모두 같은 크기의 물체일지라도 멀수록 작게 보이는 원근 효과가 나타나는 영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에서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게 보일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2문단에서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즈 고유의 곡률이나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상의 왜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은 ㉠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보정하여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의 시야각은 ㉡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2문단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즉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나타나는 휘어짐이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은 ㉠을 보정한 ㉡에서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를 보정한 영상이다. 격자판의 위치 변화는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아내 왜곡을 보정할 때 이용되는 것이므로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시점을 변환하여 원근 효과가 제거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면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으므로 물체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같게 나타난다. <보기>의 그림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그림이므로, 전진 방향을 고려할 때 A는 B보다 차량의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고 크기는 작은 도형이다. 따라서 시점을 변환하기 이전의 영상에서는 카메라로부터 B보다 멀리 있는 A가 <보기>의 그림보다 작게 나타났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보기>의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본 시점의 영상이므로 원근 효과가



제된 것이다. 따라서 C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먼 윗변이 짧게 보이므로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은 사다리꼴 모양일 것이다. ② <보기>의 그림은 원근 효과가 제거된 것이므로 시점 변환 이후의 영상이다. 따라서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는 차량의 카메라 렌즈에서 가까운 D가 C보다 더 크게 보일 것이다. ③ A와 B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모든 점들과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보기>에서 A는 바닥에 그려진 도형이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p는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따라서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 A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교차로를 지나고’의 ‘지나다’가 문맥상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⑤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3] 문학

[18-23] 갈래복합 - (가) 이육사, ‘초가’ / (나) 김관식, ‘거산호 2’ / (다) 이육, ‘담초 (談艸)’

**지문해설 :** (가)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서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 그림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물 캐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향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지문해설 :** (나)는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지문해설 :** (다)는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 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에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어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 18.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그 실마리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인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도 역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 (다)는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나)에서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장소에 대한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1문단에 자연과 교감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가)의 [C]에서 ‘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는, ‘그넛줄’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 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이육사는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A]에서 보듯이, 작품에는 그곳이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으로 나타나 있다. ‘구겨진’,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등은 ‘유폐된’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시어들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 ‘종달새 소리’ 등으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봄날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말매나물’은 봄에 낮은 지대의 밭이나 들에서 자라는 ‘말냉이’의 방언이다. ④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 애써 지은 농사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 현실 너머의 세계(‘북극’)를 꿈꾸는 소년(‘곰처럼 어린 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에 나타난 삭막한 겨울 이미지는 <보기>에 제시된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20.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서 보듯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9~11행에서 화자는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화자가 ‘그(산)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라고 한 데에서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2~15행의 ‘그리운’, ‘그리며’, ‘그리며 산다’ 등의 시어에서 ‘산’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⑤ 7행에서 보듯이 ‘산’은 화자가 ‘본시’ 사랑하는 대상이며, 8행에서 보듯이 ‘평생’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으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즉 화자에게 ‘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

재이다.

## 21. 작가의 관점 및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견주어 보면서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의 쓰임새에 기준을 두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범상한 화초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가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날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연에서 ‘묵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묵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묵화’는 ‘솜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복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연부터 이어지는 ‘묵화’의 ‘그림 조각’들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서 ‘복창’을 통해 보이는 ‘산’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산’을 말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고향’을 그린 ‘솜이 친 ‘묵화’는 오래 세월이 흘러 낡고 헌 그림이다. 그러므로 ‘솜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

자는 ‘오늘’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는 ‘장거리’ 등지게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보듯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는 ‘오늘’을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④(가)의 1, 2연에 의하면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묵화’의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이다. 그것은 화자가 분절하여 제시한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낡고 닳아 부분적으로만 떠오르는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산’은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⑤(가)의 2~3연에는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가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역시 ‘묵화’에 그려진 ‘그림 조각’의 일부이다. ‘모매꽃’은 ‘메꽃’의 방언으로 옅은 붉은색을 띠는 들꽃이다. 그러므로 ‘모매꽃’을 통해 ‘가시내’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겸허한 덕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 시어이므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고려할 때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젊은이들은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젊은이들이 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장거리’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서는 거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져 여물로 쓰이는 것인 반면,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4~27] 문학

[24~27] 현대 소설 -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김달채 씨'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친구에게 받은 우산으로 인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김달채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달채는 친구로부터 우산을 얻는데,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는 우산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산 케이스를 노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산을 무전기로 보게 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자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과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비판

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김달채는 사람들이 무전기 모양의 우산과 그것을 지닌 자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산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다. 따라서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김달채의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중심인물인 김달채는 자신이 지닌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우산의 케이스를 살짝 보여 주는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시위 현장 이외에 공간의 이동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중심인물인 김달채의 내면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김달채의 행동들이 나타나 있으므로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달채가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행동들이 서술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2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김달채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에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행인들이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 편인 시위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우산이 필요하지 않은 청명한 가을날에도 우산을 지니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므로 그가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달채가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은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와 모양이 비슷한 우산 케이스였다. ④ 김달채가 시위 현장에서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나섰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가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

---

러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달채는 닭장차에 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이나 들어가라는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서고 있으므로 그가 닭장차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2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게 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우산이 들어 있는 케이스의 생김새로 인해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 즉 무전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② 김달채는 사람들이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잘못 보고 자신에게 겁을 먹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케이스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는 대신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준다. ③ 김달채가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얻어낸 결론이 제시된 부분에서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우산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김달채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케이스에 담긴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여 자신에게 겁을 먹는다고 판단한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김달채는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후 비표를 단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선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는 타산적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달채가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다는 설명이나 그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달채는 무전기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데, 이는 무전기로 상징되는 권력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김달채는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포장마차집 주인은 무전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진 김달채를 권력을 지닌 인물로 오인하여 저 자세를 취하며 술값을 받지 않는다. 이는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김달채는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으며, 잠바를 입고,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는 등 외양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자신이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해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김달채는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목청을 높여 항의한다. 이는 우산 케이스를 이용해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오인하게 만들었던 때의 경험들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28~31] 문학

[28-3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박태보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인 박태보가 주인공인 소설로,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본으로는 필사본 「박한림전(朴翰林傳)」이 있다. 작품 속의 사건들은 『정재집』, 『속종실록』 등에도 나타나 있는데, 실존 인물의 삶과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역사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 임금과 신하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도 직간을 통해 임금의 불의한 면을 적극적으로 공박하는 박태보와 자신의 권위가 능욕당했다며 노여워하는 임금의 팽팽한 대립을 서사화함으로써 소설적인 흥미를 더하였다.

**[주제]** 죽음 앞에서도 임금에게 충간을 아끼지 않은 충신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삶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박태보가 정배를 간 후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부인은 학 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되는데, 이것은 상의 하교로 이루어진 것이지 태보가 자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③ 대감은 박태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과천으로 가서 초종례를 극진히 한 후에, 박태보의 주검을 염습하여 집으로 옮겨 왔다. 따라서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지낸 것이 아니다. ④ 상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였으나, 아이들이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⑤ 형조 판서는 박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감 직계를 올렸다.

2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금부'는 박태보가 상의 명령으로 형옥에서 옮겨 와 갇히게 된 곳이다. 임금의 명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박태보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만조백관과 장안 백성이 박태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으므로 임금의 권위가 실현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 곳'은 임금이 자신을 풍자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애연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므로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도'는 임금이 박태보를 정배 보낸 곳이므로 박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이 민 중전을 내친 곳이므로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③ ‘이화촌’은 꿈에서 깨어난 부인이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 나간 곳이면서, 하인이 전해 준 박태보의 편지를 대감 부부와 부인이 받게 되는 곳이다. ④ ‘과천’은 박태보가 정배지인 진도로 가던 중에 머물다 숨을 거두게 되는 곳이면서, ‘이화촌’에 있던 대감이 박태보의 편지를 받고 향하는 곳이다. ⑤ ‘심산궁곡’은 아이들이 부른 노래 속에 나오는 곳으로, 백성들이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고 한 곳이고 ‘성내 성외’는 임금이 순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백성들이 임금을 피하려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30.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해설 :** [A]는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한 말로, 죽음 앞에서도 충(忠)을 잃지 않는 박태보의 강직함을 칭송한 것이다. [B]는 박태보가 생가 친척과 양가 제족에게 한 말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언급된 박태보의 강직함이 [B]에 나타난 박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박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이 나타나 있으나, [B]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박태보의 자책이 들어 있지 않다. ② [B]에 박태보가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삶을 도모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박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B]에서 그 상처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는 설명 또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 박태보의 후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B]에서 그러한 후회가 반복되었다는 설명 또한 적절하지 않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등에서 박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박태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민 중전이 내쳐지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민심이 박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고난과 시련 끝에 죽음을 맞게 된 박태보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부인의 꿈에 나타난 박태보는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라고 말하며,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에 구경 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태보가 윤리적 명분에 있어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감 부부에게 전해진 편지에서 박태보는 ‘국운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향이 되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박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박태보는 편지에서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이를 통해 박태보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아이들이 부른 노래에서는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임금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며 신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가) 정훈, ‘탄궁가’ / (나) 위백규, ‘농가’

**지문해설 :** (가)는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궁귀(가난 귀신)’와의 대화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며,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지문해설 :** (나)는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의 즐거움을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농부들의 생활상이나 생활 감정을 잘 드러낸 총 9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촌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노동의 풍경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는 모습,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 등을 그려내고 있다. 농촌을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주제] 농가의 생활과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

3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가)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을 배경으로 하여 파종할 법씨도 부족하고, 끼니조차 잇기 어려우며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곤란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나 거기에 조용하는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빼꾸기’는 봄의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 봄이라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에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 내용도 찾을 수 없다.

###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술에 후량(음식)’을 갖추고 화자가 ‘궁귀’의 이름을 부르며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전송하는 것은 화자가 의례에 따라 ‘궁귀’를 멀리 떠나보내는 예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B]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에서 화자가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면화는 세다래 네 다래요’는 풍성하게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가난을 분수라 생각하며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농사를 짓는 화자와 ‘면화’, ‘벼’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서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는 화자가 ‘궁귀’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며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고, [B]의 ‘칠월이 반이로다’는 벼가 패어 곧 수확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영탄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원근 친척 내빈왕객은 어이하리 접대할꼬’는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올벼 씨 한 말’은 파종할 볍씨이다. 화자는 가난한 향촌 사대부로서 농사를 지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인데, 볍씨를 쥐가 반 넘게 먹은 상황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곡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해 솔 시루에 녹이 슬어 붉은 빛이 보이는 상황은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앞의 ‘묵은 풀

---

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를 통해 농사를 위해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라고 하여, 예정된 차례대로 서로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해 협력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향촌 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설명과 연결할 때, 밥상 앞에서 잔을 들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제시한 ㉠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⑤ 37. ④ 38. ① 39. ① 40. ③ 41. ① 42. ② 43. ② 44. ⑤  
45. ③

[35~37] 화법

35. 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발표의 도입부에서 학생은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읽었던 책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주제를 정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석류탕과 난면을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음식 이름·음식의 재료 및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하지는 않았다. ②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은 자신이 발표한 두 가지 음식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음식디미방』을 읽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한 추가 자료 탐색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석류탕과 난면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음식디미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만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한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의 도입부에서 『음식디미방』이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며 책의 역사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36.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도입부에서 책에 대해 청중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다는 발표 순서를 제시한다. 이후 사진을 보여주며 청중들과 상호 작용한 후,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는 석류탕과 관련하여 먼저 소개하고 있다.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발표 도입부에 제시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석류탕과 난면이라는 다소 생소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음식이 『음식디미방』이라는 17세기에 쓰인 책에 나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발표의 중간 부분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발표의 도입부에서 『음식디미방』라는 책을 알고 있는지 묻고 난 후, 1670년경이라는 집필 시기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④ 석류탕이라는 음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난면

과 관련해서는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중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석류탕과 난면의 주재료가 꿩고기라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꿩고기가 구하기 쉬운 재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학생 3은 『음식디미방』에서 석류탕을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을 듣고 이로부터 석류탕의 꿩고기를 핵심 재료로 간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석류탕과 난면의 재료가 공통적으로 꿩고기였음을 언급하고 있지, 음식 재료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학생 2는 음식 재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② 음식의 재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석류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석류탕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③ 학생 3은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한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학생 2는 석류탕의 조리법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인 난면의 조리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2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비교하며 들었으며, 학생 3은 어육류에 속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며 들었다. 그러나 학생 2와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듣지는 않았다.

### [38~42] 화법 + 작문

### 38. 건의 글쓰기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가)는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내용을 제기하며, 주최 측인 학생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의문이다. 즉 (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회 운영진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작성된 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문제를 언급하며 주체인 학생회를 독자로 하여 예선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가)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며 주최 측에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한 성찰이 작문 목적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선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건의문 형식에 맞게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 39. 건의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2문단은 시간, 공간, 운영할 인원, 심사자 확보 등의 문제로 예선 참가 인원을 한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문단에서는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설문 조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는 ①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한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로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②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우리 학교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인근의 학교들 중에서 대면 토론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예선에서 토론 개요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④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⑤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0. 대화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예선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현행의 대면 토론을 토론 개요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일정상의 문제로 예선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예선 기간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학생 3이 제안한 동영상 활용 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를 통해 (가)에서 제시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식과 학생 3이 새롭게 제시한 동영상 활용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가)의 내용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시간과 공간, 심사자의 부족 등의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현행 예선 방식이 현장감 있는 대면 토론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 1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라며 현행 예선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언에서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마지막 발화를 통해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참가 기회가 제한된다는 현행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안의 도입을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41.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은 ㉠ 직전에 학생 2가 말한 동영상 촬영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니 참가 팀들의 입장에서 번거롭다는 내용과 동영상을 심사하려면 대면 토론만큼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내용 중 후자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토론 개요서로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동의를 표한 의견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을 뿐,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심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 직전의 학생 3이 말한 내용 중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려워.’라는 말과 관련하여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논증 능력임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 직전의 말에서 학생 3은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는 방식은 토론 개요서 활용 방안보다 심사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서 이런 내용을 재진술하는 부분은 없다.

#### 42.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나)에 제시된 대안은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과 ‘동영상 촬영 평가 방식’이다. 이 두 대안에 대해 학생들은 장단점을 파악하며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영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심사자 평가 부담이 크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토론 개요서 방식의 장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참가자들이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③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동영상 방식은 참가 팀들이 별도의 촬영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④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참가 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방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⑤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서 토론 개요서 평가 방식으로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현장감 있는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이다.

[43~45] 작문

43. 정보 전달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초고> 2문단의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면’을 통해 질환 유병률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범주를 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라고 하며 질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하여 2문단에서 피아니스트 ○○○ 씨의 질환 경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건반 악기 연주자들의 사례이지 악기군별로 그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질환 완화 방법을 휴식, 운동, 연주자의 인식 개선 등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질환의 부위별로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적절한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초고>와 <초고> 수정안을 비교하면, 수정안에서 <초고>의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정안의 둘째 문장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에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를 추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을 언급하고, 셋째 문장을 통해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원인도 역시 유사한 동작을 오래 반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업군, 즉 사무직의 사례를 삭제하였고, 장기간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손상 누적이라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무직의 요통 사례도 직업성 질환에 해당한다. ② 사무직의 요통 사례도 직업성 질환이며,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조건이 아니라 발병 이유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③ 질환의 발병 부위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발병 원인을 추가한 것이다. ④ 질환의 발병 유형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발병 원인을 추가한 것이다.

#### 45.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나-1)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를 보면, 상지 부위의 경우 악기 연주자의 유병률이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7배이므로, 유병률은 건반 악기, 현악기, 관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② 전체 부위 유병률은 건반 악기가 75.0%, 현악기가 68.1%, 관악기가 57.6%로, 이는 상지 부위의 유병률의 순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지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로, 건반 악기, 관악기, 현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부위 유병률과 하지 부위 유병률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나-2)를 보면, 연습 중 휴식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관악기는 51.2%에서 3.1%로, 현악기는 40.7%에서 19.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악기보다 관악기가 휴식을 하는 것이 유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는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를 활용하여 스트레칭 운동, 안정화 운동 등의 운동 방법과 근육의 긴장 완화, 바른 자세로의 교정 등 그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② 37. ② 38. ① 39. ⑤ 40. ④ 41. ③ 42. ④ 43. ④ 44. ⑤  
45. ③

[35~36] 언어

[35~36] 문법 형태소의 형태적·의미적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문법 형태소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문단에서는 현대 국어의 '-이'가 명사를 파생하기도 하고 부사를 파생하기도 하며, 명사 파생 접사 '-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이', '-음'이 명사를 파생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중세 국어의 '-이' 역시 현대 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설명하며, 3문단에서는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이'가 모음 조화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양상을 예시를 통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중세 국어의 조사 '의'가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파생 접사 및 격 조사의 특성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4문단의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진술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책꽂이'의 '-이'는 '연필꽂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현대 국어 '놀이'의 '-이'와 중세 국어 '사리'의 '-이'는 모두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국어 '길이'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길-+-이 → 기리'는 명사와 부사로 쓰인다. 중세 국어에서 '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여기에서는 '-의'가 분석되는데, 3문단을 통해 '-의'는 부사를 파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접사 '-이'는 '-의'의 이형태이며 부사는 파생하지 않고 명사 파생 접사로만 쓰였다.

36.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해설** : ㉠의 '구빅'은 '굽-+-의'로 분석되며, 3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는 음성 모음 뒤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겨퓌’는 ‘결 + 의’로 분석된다. 현대어 ‘결에’로 풀이된다는 점과 4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는 음성 모음 뒤에 쓰인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의 ‘불기’는 ‘불- + -이’로 분석된다. 현대어 ‘밝히’로 풀이된다는 점과 1~3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하는 부사 파생 접사이다. ④ ㉢의 ‘글지시’는 ‘글짓- + -이’로 분석된다. 현대어 ‘글짓기’로 풀이된다는 점과 1~3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사이다. ⑤ ㉣의 ‘썩리’는 ‘썩 + 이’로 분석된다. 현대어 ‘딸의’로 풀이된다는 점과 4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성 모음 뒤에 쓰인 관형격 조사이다.

### 37.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은 영이와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은 민수, 영이,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민수와 영이를 가리키며, ㉡은 영이와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③ ㉢은 봄이(민수의 강아지)와 솜이(민수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은 민수, 영이, 봄이(민수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④ ㉤은 민수, 봄이(민수의 강아지), 솜이(민수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은 민수, 영이,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⑤ ㉦은 민수, 봄이(민수의 강아지), 솜이(민수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은 민수, 영이, 봄이(민수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 38.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해설 :** <보기>에 쓰인 ‘유리하다’는 ‘이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관계되어 딸리다.’라는 뜻을 지니는 ‘속하다’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벌어진 옷깃이나 장막 따위를 바로 합쳐 단정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여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재료를 들여 밥, 옷, 집 따위를 만들다.’라는 뜻을 지니는 ‘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④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라는 뜻을 지니는 ‘걷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⑤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39.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누- + -이- + -어’는 ㉠에 따라 ‘뉘어’로 적을 수도 있고, ㉡에 따라 ‘뉘여’로 적을 수도 있다. ㉢이 적용된 ‘뉘어’에 대해 다시 ㉣을 적용하여 ‘뉘여’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적용되는 예로는 ‘가지- + -어’처럼 ‘ㅣ’ 뒤에 ‘-

어'가 와서 'ㄱ'로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갸다'는 ㉠이 적용된 결과 '개' 뒤에 '-었-'이 어울려 준 경우이고, '베'는 ㉠이 적용된 결과 '개' 뒤에 '-어'가 어울려 준 경우이다. ② '꽂'는 ㉡이 적용된 결과 'ㄱ' 뒤에 '-아'가 어울려 '과'로 된 경우이고, '쫘다'는 ㉡이 적용된 결과 'ㄱ' 뒤에 '-었-'이 어울려 '꼰'이 된 경우이다. ③ '채었다'는 ㉢이 적용된 결과 'ㄱ'로 끝난 어간 '차-'에 '-이-'가 와서 '채-'로 줄고, 여기에 '-었다'가 붙은 경우이다. ④ ㉣을 적용하여 '쏘-+ -이-'는 '쫘-'로 적을 수 있고, 여기에 ㉣을 적용하여 '쫘-+ -어'를 '쫘'로 적을 수 있다.

[40~43]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다룬 △△ 신문과 □□ 신문,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 신문과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는 △△ 신문의 내용은 전문가와의 면담을 포함하여 길게 다루고 있는 반면, □□ 신문의 내용은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에서 □□ 신문보다 △△ 신문의 기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진행자는 시작 부분에서 '며칠 전 김 모 군이 ~ 기사들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라는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진행자의 '먼저 △△ 신문, 함께 보시죠.'라는 말과 함께 방송에서는 △△ 신문의 기사 내용 중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자들의 지문 등록률 관련 내용을 선별해서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전문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개념과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고 있다. 특히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사전등록 정보는'은 서술어 '저장하고 있습니다'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사전등록 정보는'이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방송의 시작과 함께 진행자가 한 인사말로, 진행자는 상대 높임을 위해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니까'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의 앞 문장은 김 모군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다는 내용이다. 이 문장은 오늘 기사들 중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다룬 내용이 많다는 ㉢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의 내용이 인과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 쓰인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선행절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다'와 후행절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다'를 연결하고 있다. ⑤ ㉥에 쓰인 보조 동사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뜻한다.

#### 4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시청자 3은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 신문 기사를 다룬 방송 내용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시청자 4는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청자 3과 4는 모두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다룬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청자 1은 '신문에 나온 등록률 현황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가요?'와 같이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2가 작성한 글에서는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시청자 1과 4가 작성한 글에서는 모두 ○○ 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시청자 2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같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5가 작성한 글에서는 △△ 신문 기사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시청자 5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정도 걸린다는 전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는 ○○ 신문 기사가 아니라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 신문 기사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 폰 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시청자 3이 작성한 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고(생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수용)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고(생산) 하였다. 따라서 ㉠에

서,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㉓에서는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수용자가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며 필요한 메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㉔를 활용하여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이를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㉕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생산자가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㉖에서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㉗에서는 인적 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수용자가 글과 이미지가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㉘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㉙에서 사용자는 보호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45] 매체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언급한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 이전 글 숲의 힘(📖클릭)을 참고해 주세요.’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른 다른 게시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과 3문단에서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한 내용(‘숲을 지킬 수 있어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은 재생 종이의 활용 사례가 아니라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에 해당한다. ② 재생 종이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부각하기 위한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 ④ 2문단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진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지는 않았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2문단과 3문단이다. 2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나)의 #2에서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포함한 화면으로 구성하였고, 3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에너지 투입량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나)의 #3과 #4에서 배경 음악 없이 내레이션만 포함된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즉 (나)에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구성한 화면은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포함한 화면

---

#2와 배경 음악 없이 내레이션만 포함된 화면 #3과 #4로, 총 3개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이산화탄소, 폐기물)의 양이 제시되어 있다. (나)의 #3과 #4에서는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의 양만 제시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추가하여 정보를 보강하였다. ② '복합 양식성'이란 하나의 매체에서 소리(음향), 음성, 시각 자료(그림, 사진 등), 문자 언어,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말한다. (가)의 1문단에서는 재생 종이의 정의를 문자 언어로만 제시하고 있고, (나)의 #1에서는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 음성(내레이션), 배경 음악 등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는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양적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3에서는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양을, #4에서는 재생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양을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이를 소개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는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을 (나)의 #2에서는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공통: 문학·독서]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③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⑤ 23. ② 24. ② 25. ① 26. ① 27. ② 28. ③ 29. ① 30. ③  
 31. ⑤ 32. ② 33. ④ 34. ①

[1~3] 독서

[1~3] 독서 이론, ‘읽기 능력과 매튜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별 읽기 능력의 차이를 사회학적 개념인 매튜 효과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휘력 발달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 격차가 점차 커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어휘력 격차가 읽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읽기의 양 때문에 어휘력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명성과 물질적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인 매튜 효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읽기에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이 작용하므로 읽기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읽기를 매튜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단순 지능의 차이로 읽기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던 관점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읽기 능력의 차이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과 매튜 효과

1. 세부 내용 확인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읽기 기능에는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읽기 기능과 더불어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가 읽기 기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매튜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래프에서 ㉠과 ㉡은 어휘력 수준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어휘력 차이로 인해 읽기 양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다시 어휘력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휘력의 차이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므로, 읽기의 양이 적지만 어휘력이 큰 쪽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의 어휘력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③ ㉠과 ㉡의 어휘력 차이는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된 것이다. 따라서 ㉡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 ㉡의 차이는 글 읽는 능력이 지능의 차이 때문이라는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 3.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의 근거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개인 안에서도 속도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읽기 요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기>의 관점은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읽기 발달의 속도가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상호 작용으로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② 개인의 읽기 속도나 취향 등의 개인차에 따라 읽기 발달이 다르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보기>의 관점과도 다르다. ⑤ 시간과 장소를 주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해설 : (가)는 한(韓)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담긴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진(秦)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지식의 핵심이 역사 지식이라고 하면서 ‘통물’, ‘통변’, ‘인의’를 설명하였다. 육가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으로 평가된다.

[주제]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지문해설** : (나)는 조선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초 고려 관련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에는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조선 왕조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불교 사상의 폐단을 드러내며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었다. 『치평요람』의 편찬에서 나아가 세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주제]**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한(漢)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에서는 『신어』가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여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편찬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육가는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을 내세웠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세종이 편찬을 명한 『치평요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는 『치평요람』이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세종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치평요람』에 올바른 정치를 강조하고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며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한 입장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한(漢)에서 쓰인 책인 『신어』를,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인 『치평요람』을 다루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가 각각의 책이 쓰이게 된 시대 상황과 책에 반영된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저술된 책이므로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다. ③ (가)는 『순자』와 『신어』라는 두 권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순자』는 전국 시대에, 『신어』는 한나라 때에 저술된 것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다. ④ (가)의 『신어』와 (나)의 『치평요람』은 모두 새 국가의 통치를 위해 역사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 실용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두 책이 다양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육가가 저술한 책이고, (나)의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책이므로, 두 책 모두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은 아니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자치통감강목』의 강목체를 따르

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평요람』이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진(秦)의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진(秦)나라 때는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세종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용비어천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육가는 ㉠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무위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이며, 권세란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결국 육가에게 ㉠은 군주의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것이므로, ㉠이 학문 분야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② 육가의 사상은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은 맞지만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③ 육가는 도가의 무위를 수용하면서,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육가는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과 ㉡은 이러한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육가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왕도 정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육가가 제시한 ㉠과 ㉡은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보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및 인의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 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ㄱ. (가)의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에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고, 이 책에서 진(秦)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가는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치평요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기존 역사서와 달리 전쟁, 외교 문제 등을 부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가)의 육가는 『신어』에서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말하였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국가의 멸망 원인은 정치 운영, 정치 행위에 있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ㄷ. (가)의 육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사상을 통제한 진(秦)에 대해 거론하며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인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고려 정치와 관련하여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즉 고려의 사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여긴 것이지 고려에 사상적 공백에 있어 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ㄱ은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역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ㄱ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과 다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어』에서 육가는 진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진위 판별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서 진실을 중시하는 ㄱ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ㄴ은 흥망이란 객관적 형세의 흐름인 시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책으로,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ㄴ의 관점에 입각하면 『치평요람』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가의 흥망의 원인은 시세의 흐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ㄷ은 역사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어』에서는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ㄷ에서는 도의 본체는 경서에, 도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고 하였다.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가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경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역사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큰 쓰임에 해당한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민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는 ‘어떤 일을 이루도록 꾀하다.’라는 뜻이다. ㉢ ㉣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 ㉥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라는 뜻이다. ㉦ ㉧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의 뜻이다.

### [10~13] 독서

#### [10~13] 과학, ‘비타민 K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혈액의 응고 및 순환, 혈관 석회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드는 현상이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혈액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 내 칼슘 농도만 높아지고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MGP라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이러한 혈관 석회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즉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주제] 혈액의 응고와 혈관 석회화 방지에 관여하는 비타민 K

###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혈액의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한다. 혈액의 손실은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겼을 때에 발생하므로, 섬유소 그물이 혈액 내에서 뭉쳐 만들어진 혈전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멍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멍쳐 만들어진 덩어리이다. 따라서 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④, ⑤ 1문단에 따르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혈관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칼슘의 역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혈액 중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고 비타민 K<sub>1</sub>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칼슘염이 혈관에 침착될 수 있지만,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침착되는 것은 아니다.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칼슘이 혈액 내에 흡수되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카르복실화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은 식물에서 합성되며, ㉡은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는 비타민 K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

과 ㉠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3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을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하는 카르복실화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과 ㉠ 모두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거나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트롬빈은 비타민 K가 관여하여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됨으로써 전환된 것이다. (다)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를 투여한다고 해서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비타민 K는 혈전을 만드는 데에 관여하지만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가)를 투여하면 비타민 K의 작용이 방해받아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 ㉡ 혈전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친 것이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를 투여할 경우 뭉쳐 있는 혈전을 풀 수 있다. ㉣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트롬빈이 작용해야 하며,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 모두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는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도 피브리노겐의 피브린으로의 전환을 억제하므로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 [14~17] 독서

#### [14~17] 사회, '이중차분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평행추세 가정이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중차분법이 적용되면 사건의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주제] 평행추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중차분법의 사건 효과 평가

#### 14.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 1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행집단의 다른 시기의 변화로 파악하여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행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20.9 - 19.6 = 1.3$ 명이다. ② 5문단에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비교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할 때, 시행집단인 P주의 저임금 식당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1.3 - (-2.1) = 3.4$ 명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Q주 식당이나 P주 고임금 식당은 모두 -2.1의 변화를 보여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 17.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수원을 바꿨는데’와 ‘생각을 바꿔’에서 ‘바꾸다’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에서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오늘 신문에 났다’에서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결론을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건조주의보를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에서 ‘높이다’는 ‘깊이 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목소리를 높였다’에서 ‘높이다’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에서 ‘줄이다’는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이만 줄입니다’에서 ‘줄이다’는 ‘말이나 글의 끝에서, 할 말은 많으나 그만하고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쓰였다.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소현성록'

**지문해설:** 이 작품은 17세기 중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소설이다. 북송 시대를 배경으로 남주인공 소현성이 세 명의 부인과 살아가며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양 부인의 행적, 유복자인 주인공 소현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와 입신양명, 석씨의 현숙함과 부녀자로서의 덕성 등 남성 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당대 유교 사상에 따른 가족제도의 올바른 규범을 제시하는 교훈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소현성의 가족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는 여씨와 석씨, 여씨와 상서, 여씨와 양 부인 등 한 인물이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빛는 다면적 갈등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에서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알지 못하겠도다. ~임자를 찾아 주리라.'"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에서 계성의 독백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청운당을 비롯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공간이 나오지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③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상서가 여씨를 엄숙하게 책망하자, 여씨는 '크게 부끄러워'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파는 여씨, 석씨 등 소현성 집안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씨가 꾸민 일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일과 같은 집안일에도 관여하고 있다. ② 상서가 한 말인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를 통해 상서가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양 부인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죄를 지은 여씨에게 벌을 주고, 시녀들인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어 집안을 평정하는 등, 권위를 지니고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⑤ 여씨가 회면단 푼 물을 먹지 않고 버티자 소씨는 여씨에게 회면단을 먹이려고 '우김 질로 들이붓'는 등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④ ㉠은 석씨가 받는 총애를 석파가 여씨에게 자랑한 것을 두고 석씨가 석파의 경솔한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은 '상서가 정색하'면서 여씨에게 어디 갔었느냐고 묻자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씨가 거짓으로 꾸며 낸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석파의 독선에서 나온 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석씨가 그러한 석파의 행동을 꾸짖어 나무라는 말로도 볼 수 없다. 상서가 여씨의 그릇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 말이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은 상서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은 아니다. ③ ㉠은 석씨가 '내키지 않아 당부하'면서 한 말이므로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은 여씨가 상서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이므로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석파가 한 언행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말이며, 석파에게 얻은 정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 상서가 여씨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보를 여씨가 몰랐기에 할 수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⑤ 상서는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금수의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여씨가 앞으로 '과실을 고쳐' 나가길 당부하며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여씨가 꾸민 음모와 악행의 실상을 밝혀낸 것이며 그 처분으로 양 부인이 여씨를 내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사건에서 상서와 양 부인이 저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일 뿐 여씨의 처벌 방법을 두고 둘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씨는 자신을 석씨와 견주면서 석씨의 훌륭함에 질투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여씨는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 하는데, 이는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하고 집안에서 석씨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여씨가 석씨를 모해하고자 꾸민 '봉한 것'은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지며 양 부인은 '봉한 것'을 풀어 보고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함을 목도하게 된다. 이는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여씨)와 조력자(시녀 계성)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③ 양 부인이 '그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에게 누설을 금지하여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여씨가 꾸민 음모의 실행은 잠정적으로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었으므로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회면단'을 먹자 화씨로 변했던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로써 음모자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인 약을 먹고 변신하는 것이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황희, '사시가' / (나) 조우인, '자도사' / (다)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지문해설** : (가)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1수에서는 봄을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가는 분주한 일상이 나타나며, 2수에서는 여름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고 밭을 갈다 녹음이 우거진 곳에 누워 잠드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3수는 붉게 물든 골짜기에 대추와 밤이 익어 가는 풍경과 추수를 끝낸 논에 게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함께 술을 걸러 먹으리라는 화자의 흥취도 제시되어 있다. 4수는 새도 사람도 하나 없는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 홀로 뉘싯대를 드리운 노인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사계절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

(나)는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옥에 갇힌 작가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시화(詩禍)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다)는 전통적인 집에 얽힌 아름다운 기억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면서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살았던 집은 '그'와 가족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공간으로 모든 것이 뚜렷하고 명료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 역시 명료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글쓴이는 탄생과 죽음이 있던 전통적인 집의 역사는 끝이 났으며 탄생과 죽음이 없는 현대의 쓸쓸한 집만이 남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 집에서의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그리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제1수>의 '강호에 봄이 드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

용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음력 설달 거의로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한 긴장감의 조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는 자연 속의 삶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 역시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달리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과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전원생활을 하는 화자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초월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임이 계신 곳을 ‘천문구중’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초월적 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 2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제2수>의 초장에서는 샷갓에 도롱이를 입은 후 가랑비 속에서 호미를 메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밭을 맨 후 녹음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풍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인물은 가랑비 속에서 밭을 맨 후 녹음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3수>의 초장은 가을에 밤이 떨어지는 모습이므로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가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3수>의 초장은 밤이 떨어지는 모습을, 중장은 벼를 벤 논에 게가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초장과 중장이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4수>의 초장은 겨울 산에 새도 보이지 않고 들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므로 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적 분위기가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한겨울의 추위를 걱정하여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한다. 따라서 ‘음력 설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에는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임의 옷을 기우

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구중궁궐에 가는 것이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간장이 다 썩고 뉘조차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자신을 애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백일’은 임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고, ‘뒤집힌 동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므로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쟁’은 악기이고, ‘월곡’은 원망하는 마음을 담은 곡조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녹음’은 자연 속 공간으로 화자가 누워 있는 곳이므로 평온한 분위기의 장소라 말할 수 있다. (나)의 ‘동방’은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라 볼 수 있지만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의 ‘자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있지만 (가)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은 전원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보여 줄 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볼 수는 없다. (나)의 ‘임의 잠’을 깨우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돌아가니’는 익은 술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계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동짓날 자정이 돌아오자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고 있으므로 ‘돌아오니’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그 집’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아파트’는 그러한 비밀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집’에서 자란 ‘그 집 아이들’은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면 다음날 비가 온다는 비밀을 알았다. ③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사계절이 불분명한 아파트에서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집’에서 알 수

있는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공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그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며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은 아파트를 가리킨다. 글쓴이는 아파트에서의 삶은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는 낚시의 깊은 맛에 몰입한 사람을 보며 그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자는 전원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저 늙은이’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저 늙은이’를 작가로 본다면 (가)는 전원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아녀자’를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힌 작가로 볼 경우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그’를 작가로 볼 경우 이는 작가 자신을 타자화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하면 개인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다.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을 포함시킬 경우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우리들’이라고 말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다.

## [28~31] 문학

### [28-31] 현대 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백 주사를 만나는데,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된 아들 덕에 권세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성난 군중에 의해 집과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인물이다. 미천한 일을 하다가 기회를 틈타 권세를 잡았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과, 그런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궁리를 하는 백 주사는 모두 해방기의 부정적 인간상을 나타낸다.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 풍자



##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방삼복은 술을 정종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종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탕던 차에서 내린 뒤, 어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9.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30.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㉔ ㉕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㉖ ㉗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㉘ ㉙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A]에서 ‘그의 광애는 ~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㉒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㉓ [C]에서 ‘있었더라’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 고만두고 말이였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㉔ [D]에서 ‘백 주사가, ~ 고리대금을 하고 하엿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신동엽, ‘향아’ / (나) 기형도, ‘전문가’**

**지문해설 :** (가)는 ‘향’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허위와 가식이 넘치는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존재했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향’에게 ‘돌아가자’고 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전설 같은 풍속’이 있던 공간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던 농경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그곳에 가면 ‘병들지 않은 젊음’과 ‘싱싱한 마음밭’을 지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화자가 살고 있는 현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가득하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존재하는 곳으로, 화자는 ‘향’에게 이러한 물질문명의 허위와 가식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지문해설 :** (나)는 동화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사온 그’의 집에 세워진 유리 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담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간다. 그 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한다. 결국 모든 유리 담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권력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 담장’은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그’가 이사 온 후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기만적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에 의해 우매한 군중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들의 비열한 통치 전략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며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수수력’, ‘미끈덩’은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

용되지 않았고, 경이로운 상상 세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④ (가)에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변주한 ‘가자’, ‘가자꾸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적 청자인 ‘향’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청유형 어조로 전달할 뿐 위로하는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이며,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곳이다. 이처럼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상징한다. ㉡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렸던 공간인데, 유리 담장이 모두 깨지자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날’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은 ‘아이들’이 철없이 놀이만 즐기다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추방 이외에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로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므로 낯선 공간은 아니다. ㉡은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추방당하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일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개성이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둘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그’에 의해 ‘아이들’이 굴종당하는 곳으로,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 미개지’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고 한 것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지금의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떼어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

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리 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판 담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흉내’는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④ 37. ③ 38. ②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③ 44. ⑤  
45. ③

[35~36] 화법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한 부분은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자는 도입 부분에서 ‘잘 들리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전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후 준언어적 표현인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저는 텃밭을 처음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아마 15제곱미터 정도의 좁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라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

을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 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한 뒤 작물의 배치도를 그려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을 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배치도를 그려 효율적으로 텃밭을 가꿔 보세요. 땀을 흘려 손수 먹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먹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이라는 효용을 제시하면서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텃밭에 작물을 배치할 때, 작물의 키와 재배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옥수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나 잘 자랄 수 있음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해당 내용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해의 작물 배치도([자료 1])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키가 큰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하여 상추와 감자에 그늘이 많이 생겼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재배 기간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첫해의 작물 배치도([자료 1])를 활용해 고추 재배가 10월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배추가 광합성을 많이 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다음해의 작물 배치도([자료 2])를 활용해 키 순서에 따라 상추는 남동쪽, 감자는 북동쪽, 고추는 남서쪽, 옥수수는 북서쪽에 배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첫해와 다음해의 작물 배치도([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 첫해와 다음해 모두 배추는 동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주변 작물의 재배 기간과 키에 따라 배추의 자라는 정도가 달랐음을 언급하고 있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청자 3’은 발표자가 작물들의 키 순서만 언급하고 작물들이 다 자랐을 때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다 자랐을 때 작물의 키를 알려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발표 중에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작물을 수확하고 다른 작물로 교체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을 교체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자 1’의 반응은 발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청자 2’는 브로콜리와 케일의 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를 발표 내용과 비교하지 않았고 발표에서 다른 정보의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청자 1’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청자 1’과 ‘청자 2’ 모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검토하지는 않

았다.

[38~42] 화법 + 작문

38.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이 조사해 온 ‘디스토피아’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대화 참여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해당 담화 상황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것임을 제시하고 글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며 다른 친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세 번째 발언에서 앞서 이야기한 ‘학생 3’의 발언과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이 지닌 부정적인 점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앞서 ‘학생 3’이 언급한 ‘작품의 메시지’를 다시 언급한 뒤,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⑤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와 여섯 번째 발화를 보면 허구인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떻게 현재의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으면서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이해해 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9.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㉞은 ‘학생 3’이 ‘학생 1’의 이전 발화 내용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학생 1’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허구적인 미래가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㉞에서 ‘학생 2’가 ‘학생 3’이 말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형상화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라는 내용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㉞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소품을 구입하는 모습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이 아니라 인기 현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② ㉞은 ‘학생 3’이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극적인 장면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언급한 발화이지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③ ㉞은 ‘학생 3’이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신세계」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언급한 내용이지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낸 발화가 아니다. ④ ㉞은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학생 3’이 디스토피아 작품들의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는 발언이 아니다.

---

#### 40. 비평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과 그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을 문제 삼는 내용은 (나)에서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서는 (가)에서 제시된 디스토피아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설명한 뒤 그와 반대 개념인 ‘유토피아’와 비교하고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는 (가)에서 디스토피아 작품의 소재로 언급된 현재의 문제가 극단화된 미래 상황을 과학 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했던 「멋진 신세계」를 통해 과학 기술 맹신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다. ⑤ (나)의 5문단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41. 비평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나)의 5문단에서는 디스토피아 작품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디스토피아 작품 열풍,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다’라는 부제에서 ‘아픈 사회’나 ‘거울’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어 제시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표제와 부제가 (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디스토피아 작품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제나 부제가 (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제에서 ‘묵직한 메시지’를 통해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으나, 제목이나 부제가 (나)에서 다뤄진 내용과 거리가 있고 글쓴이의 관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⑤ 부제에서 ‘대화’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제목과 부제 모두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 42. 비평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 중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해당 내용은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서 디스토피아 작품의 흥행과 그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스토피아 작품 인기 현상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5문단에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이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글쓴이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4문단에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으로 인해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 장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극적인 장면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43~45] 작문

43. 설득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2문단에서 ‘청소년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라는, 예상되는 반론의 주장을 제시한 뒤, 기존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소수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활동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예상되는 반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1문단에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라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의 변화’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화한 것이 아니다. ② 초고의 내용 중 통념을 언급한 내용이나 통념의 모순을 지적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④ 초고의 3문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주장의 한계점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실시 대상의 확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4.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3문단을 보면 활동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 맞는 감정 관리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고위험군임에도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 ‘[자료 1]의 (나)’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감정 노트 쓰기가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3]’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라는 내용은 도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추가할 경우 초고의 전체적인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감염병 유행 이후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1]의 (가)'와 심리적 고위험군임에도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 '[자료 1]의 (나)'를 바탕으로 ㉠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초고에서는 ㉡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 2]'를 활용해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초고에서는 ㉢이 필요한 이유만 제시했으므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료 3]'을 활용해 ㉣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초고에서 ㉤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 1]의 (가)'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났음을 추가하고, '[자료 2]'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학습의 어려움과 학업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45.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A]는 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의 접근 방향인 '실시 대상 확대'와 '활동 내용 다양화' 중에서 '실시 대상 확대'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실시 대상의 확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고쳐쓰기 과정에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글에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어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A]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 실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초고의 [A]에는 '지역 구성원'이라는 예상 독자가 언급되어 있다. ④ 초고의 [A] 내용 중 초고의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보기>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삭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⑤ 초고의 [A]에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이라는 해결 방안의 이점을 다루고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① 38. ⑤ 39. ③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①  
45. ③

[35~36] 언어

[35~36]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개념 및 양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작동되는지를 국어와 영어의 비교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 규칙 역시 영어와 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음화를 통해 예시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을 들을 때에도 작동됨을 설명하는데, 특히 영어를 듣는 과정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에 부합하게 바꾸어 듣는다는 점과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인식 및 작동 양상

35. 음운의 이해

**정답해설** : '밤만'을 듣고 '밥만'을 복원했다면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결과이겠지만, '밤만'으로 복원했다면 음운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의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을 통해 '몹 → [목]'의 자음군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라는 설명을 통해 음운 'ㄹ'이 그 자체로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는 뜻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의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를 통해 영어 'spring'을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작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의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를 통해 영어 'v'를 국어 'ㅂ'로 인식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앞일 → [암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음절 말 평파열음화는 '앞'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고, ㄴ 첨가와 비음화

는 ‘앞’과 ‘일’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넣고 → [너코]’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넣-’과 ‘-고’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굳이 → [구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굳-’과 ‘-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장미꽃 → [장미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장미’와 ‘꽃’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 ㉣ ‘걱정 → [걱뽕]’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걱정’은 단일어이므로 이러한 음운 변동이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37.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보습고져’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舍利弗씩’에는 객체 높임의 조사 ‘씩’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는 것이다. ③ 조사 ‘씩’과 객체 높임의 동사 ‘습다’는 둘 다 객체인 ‘世尊(세존)’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④ 조사 ‘께’는 ‘이모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동사 ‘모시다’는 ‘어머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⑤ ‘선생님’이 주체이고, ‘그 아이’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동사 ‘여쭙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8. 형태소의 종류

정답해설 : ‘찾아냈다’는 ‘찾- + -아 + 내- + -었- + -다’로 형태소 분석이 되며, ‘찾-’과 ‘내-’는 ㉠에 속하고 ‘-아’, ‘-었-’, ‘-다’는 ㉡에 속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명사 ‘우리’와 부사 ‘드디어’는 ㉠에 속한다. ② ‘비’, ‘길’은 ㉠에 속하고, ‘를’, ‘을’은 ㉡에 속한다. ③ ‘맞다’의 어간 ‘맞-’은 ㉡에, ‘맞서다가’의 접두사 ‘맞-’은 ㉡에 속한다. ④ ‘바람’은 ㉠에 속하고, ‘에’는 ㉡에 속한다.

### 39. 피동 표현

정답해설 :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입히다’는 동사 ‘입다’에 ‘-히-’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때의 ‘-히-’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다. ② ‘건네받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다. ④ 이 문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다.'처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존경받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서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제도 실시 후 ~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를 요약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형으로 표현된 '나도 가입해 볼까?'는 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가입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도의 주요 제재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부각하기 위해서 해당 글자를 다른 글자에 비해 더 크고 굵게 제시하였다. ③ ㉢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와 같이 제도에 가입 가능한 대상과 누리집 주소를 추가로 제시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은 관계자의 발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와 같이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은 뉴스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뉴스 방송이 끝난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에서는 '만큼'을 통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조 용언 '있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에 쓰이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함'에 더해 '포인트를 받음'도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 어미이다.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4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해설** :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제시 여부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은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⑤ 학생 5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 제시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선택!',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는 다시 채워 쓰기!', '물건 살 때 전자 영수증 받기!'는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수용자인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 이외에 QR코드를 함께 제시하여 수용자가 좀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는 돼지저금통과 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수용자로 삼는 (가)와 달리 (나)는 '◇◇고 친구들'로 수용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고 등학교 환경 동아리'라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

**정답해설** : 진행자의 발화 중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를 통해서 접속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기획 내용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숫자만큼 꽃잎을 만들어야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경우 접속자들이 지루함을 느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발화 중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를 통해서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진행자의 발화에서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45. 수용자 특성

**정답해설** : [C]에서 ‘꿈꼬미’는 방송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을 다시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빛세종’은 ‘채화’ 중 ‘채’의 뜻을 질문하여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B]에서 ‘햇살가득’은 만들 꽃을 골라 달라는 진행자의 발화에 대해 ‘월계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④ [D]에서 ‘아은맘’은 진행자가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E]에서 ‘영롱이’는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방송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공통: 독서·문학]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⑤ 08. ③ 0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⑤ 29. ④ 30. ③  
 31. ③ 32. ④ 33. ③ 34. ②

[1~3] 독서

[1-3] 독서 이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 정도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이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고, 고정 횟수도 많았다.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도 빈번히 일어난다.

**[주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눈동자는 그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은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도 많다고

---

하였다. 이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이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독자가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밝힌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속될 때에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눈동자의 고정이 빈번히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다.

##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는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㉔에서 학생은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었다고 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면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므로, 이 단어들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독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으며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㉔에서 학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으므로,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났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A]에서는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처럼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갈 때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를 읽을 때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의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에서 생소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약이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A]에서는 생소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다고 하였다. ㉔에서 익숙한 단어인 ‘대신하여’와 달리 생소한 단어인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고 했으므로,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익숙한 글을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이 변화한 것은 읽기와 관련한 지식이 많아지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꼼히 읽으면 단어에 대한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아는 단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와 관련이 있다. ⑤ 3문단에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예술은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동일화에 저항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주제]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미학 이론

**지문해설 :** (나)는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의 미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하고 미적 체험을 비정형적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 영역에서의 동일화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도르노의 주장과 달리, 전위 예술이 아닌 작품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주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2문단에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나)는 2문단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

---

치 체계로 환원되는 동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아니라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글의 화제로 삼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3문단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를 들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4문단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성,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 1문단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과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의 의도로 제시하면서, 2~4문단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점,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 그의 미학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이다. 즉 양자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

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며, 대중 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㉔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6.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에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때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데, 그 이유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즉 예술가의 주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에 비정형적인 형태만을 통해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된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정형적 형태는 도외시되며, 예술가의 주관도 재현되지 않는다. ㉒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즉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재현되지 않으며,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㉓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는 ㉑의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㉔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미적 체

---

힘의 과정에서 예술가의 주관은 작품에 재현되지 않으며,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나)의 비판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대중 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즉 동일화된 상품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진정한 예술은 이러한 동일화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화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상품의 교환 가치라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므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전위 예술의 속성에 의해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따라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현대 사

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느꼈다. 따라서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으로, 작품에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볼 때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학생이 느끼는 익숙함은 A에 따르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의 '전락하다'의 사동사이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라는 뜻의 '맞바꾸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파하기]** ㉒ ㉓는 '따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동떨어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㉑ ㉔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라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㉕ ㉖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빼앗는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㉗ ㉘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찾아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10~13] 독서

[10~13] 사회, 유류분권

---

**지문해설** : 이 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을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보다 가치가 적을 때에는 물건에 대한 지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물건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제] 유류분권의 개념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

##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문단에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지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나,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물건이 한 개일 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지분'은 하나의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 경우, 각자의 몫을 뜻한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물건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지분도 커지게 된다. 이때 무상 취득자는 유류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분이 작아진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때 유류분권자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권자가 무상 처분된 물건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는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2.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유류분의 정의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상 처분된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한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③ 유류분의 취지는 피상속자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의 몫이 지분으로 반영되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련

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동까지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A 물건의 가치+B 물건의 가치) $\times$ 1/2, 즉  $(300+100)/2=200$ 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된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A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100/700$ 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이 아니라  $1/7$ 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700+100)/2$ 가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700이므로 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은  $300/700$ , 즉  $3/7$ 이다.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300+100)/2$ 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 물건의 시가는 100이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은 200이고,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400이다. 갑의 재산 100은 두 경우 모두 병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 [14~17] 독서

#### [14~17] 기술,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고,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이때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이 실제 받는 값은 사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인 댄핑 인자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한편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을수록,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

---

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아진다.

[주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한 항목인 중요도와 적합도를 구하는 방법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다.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가 0.8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는 커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러므로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2, 3문단에 따르면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특정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해당 웹 페이지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여기에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 목록이다.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는 중요도와 적합도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인덱스에 정렬된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해당 주제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음)를 간략하게 설명(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음)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옴)하면 ㉠이 높아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을 높이려면 다른 많은 웹 페이지가 ㉠을 높이려고 하는 웹 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나열하거나 유명 검색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것은 ㉠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웹 페이지에 포함된 단어가 알파벳 앞 순서에 있는 것과 ㉠은 관련이 없다.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하는 것은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체 글자 수를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많게 하면 ㉠은 오히려 낮아진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b와 e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된다. e의 중요도는 16이고, 이를 b와 c에 8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에 댐핑 인자 0.5를 곱하면 b와 c가 e로부터 받는 값은 각각 4이다. 한편 b는 이렇게 받은 값을 a와 c에 2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데, 댐핑 인자 0.5를 곱하면 b로부터 c가 받는 값은 1이 된다. c가 b와 e로부터 받은 값은 각각 1과 4이므로 이를 합한 중요도는 5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중요도는 d와 b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d로부터는 16에 댐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는다. b는 e로부터 16에 댐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아 이것을 a와 c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므로, b에서 a로 가는 값은 4에 0.5를 곱한 2가 된다. 따라서 a의 중요도는 8과 2의 합인 10이 된다. ② a가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고, b로부터 받는 값은 2이다. 따라서 두 값은 다르다.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c는 b로부터  $8 \times 0.5$ 의 값을 받게 된다. b의 중요도는 e로부터 받은  $16 \times 0.5$ 이기 때문에 두 값은 다르다.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e의 중요도 16은 a와 b에 균등하게 나뉜다. 8에 댐핑 인자를 곱하면 b의 중요도는 4가 된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정이 넘었다.'에서 '넘다'는 문맥상 자정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㉔와 가장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③ '경계를 건너 지나다.'의 의미이다. ④ '어려움이나 고비 따위를 겪어 지나다.'의 의미이다. ⑤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온다.'의 의미이다.

## [18~21] 문학

###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정수정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 극복 과정, 무용담 등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정수정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고 과감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 급제를 이루고 국가에 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에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웅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중군장인 남편 장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

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장면에서는 주인공 정수정의 영웅적 면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효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수정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

##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한복’은 ‘정수정(대원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지휘하여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를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 후 본진에서 ‘정수정’이 무사에게 호령하여 ‘진량’을 처형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 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진량’은 ‘정 상서’가 간악한 인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황제’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진량’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정 상서’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 ②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를 통해 ‘중관’이 ‘황제’에게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관’이 ‘정 상서’의 집에 가서 ‘황제’의 명을 전하니 ‘정 상서’는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인 ‘진량’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⑤ 아들인 ‘장연’의 말을 듣고 ‘태부인’이 원통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내자 ‘월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아뢰며 시어머니인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 1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 앞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 상서’는 ‘중관’을 통해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다. ㉡은 ‘사관’이 ‘정 상서’에게 빨리 귀양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는 말이지, ‘정 상서’로 하여금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량’은 ‘정 상서’가 병으로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이를 이용하여 ‘정 상서’를 모함하고 있다. ③ ㉢ ‘정 상서’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정수정’은 혼절하게 되었다. ④ ‘정수정’이 침입한 ‘호왕’을 격파하자, ‘황제’는 ‘정수정’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를 좌각로 평복후를 봉해 ‘정수정’의 노고에 보답했다. ⑤ ㉤ 앞의 내용 중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

---

어 청주로 보내나라.’를 통해 ‘태부인’이 ‘원 부인’과 ‘공주’의 조언을 듣고 ‘정수정’에게 기주로 오라는 화해의 편지를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다음의 ‘기빠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로 볼 때, ‘정수정’은 ㉠으로 전쟁에서 ‘장연’을 징계한 일로 인한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첩서’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이다. ‘정수정’은 ‘호왕’을 격파하고 승전하였다는 내용인 ㉡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계’는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정 상서’가 귀양지인 절강에서 죽자 절강을 다스리던 관리인 ‘절강 만호’가 ㉠를 작성하여 ‘정 상서’의 죽음을 ‘황제’에게 보고한 것이다. ② 이 글에서 ‘절강 만호’는 ‘황제’와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교’로 볼 때, ‘정수정’은 승리를 보고하는 첩서를 먼저 올린 후 경사(수도)로 개선하여 ‘황제’를 직접 만난 것이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황제’와의 대면을 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대면을 피할 목적으로 ㉡가 작성된 것도 아니다. ⑤ ‘정 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은 ‘절강 만호’가 ‘부인’에게도 알렸고, ‘호왕’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황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정수정’을 맞아 치하하는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와 ㉡ 모두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고민은 <보기>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면서도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인 ‘정수정’의 서로 다른 역할과 관련한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수정’의 답답한 심사는 시어머니인 ‘태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답답한 심사 때문에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수정’이 ‘진량’의 귀양지를 물은 후 ‘한복’에게 철기를 거느리고 가서 ‘진량’을 결박하여 오라고 명하는 내용에서 부친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정수정’이 무사를 시켜 ‘진량’의 머리를 벤 후 제사를 차려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서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호왕’의 침입에 맞서 출전한 군대에서 아내인 ‘정수정’은 대원수이고, 남편인 ‘장연’은 그 부하인 중군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 ‘태부인’이 ‘장연’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모습은 자신의 며느리인 '정수정'이 군대의 지위를 내세워 남편인 '장연'을 함부로 대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정수정'이 기주로 갈 때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리고 이동하며, 용맹한 장수인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는 상황을 통해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주에 도착하여 '태부인'에게 예의를 보이고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 (가) 박두진, '별-금강산시 3' / (나) 신경림, '길' / (다) 백석, '편지'

**지문해설 :** (가)는 마치 한 편의 기행문처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1연과 2연에서는 금강산에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 곳을 떠나 점차 금강산의 자연에서 인간적 번뇌마저 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3연과 4연에서는 금강산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5연과 6연은 바다와 산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별이 뜬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되는 과정

**지문해설 :** (나)는 길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길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내부로 나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길'을 의인화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지문해설 :** (다)는 '당신'에게 자신의 체험을 친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두 이야기는 모두 '밤'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담겨 있다. 먼저 개인적 경험은 '당신'에게서 받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떠올린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로, 글쓴이에게 아름답지만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한다. 공동체적 경험은 복을 맞이하는 밤에 고향의 동네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을 하며 즐거워하던 이야기로, 야생적 생명력이 넘치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밤과 관련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상반된 감

---

정을 경험한 글쓴이의 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 밤과 관련하여 슬픔과 즐거움을 환기하는 두 경험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가을날 곱게 떨어지는 ‘낙엽’을 ‘낙화’에 빗대고 있으며,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난만한 ‘꽃’에 빗대고 있다. 비유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는 ‘길’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 빗대고 있다. 마치 사람처럼 길을 바람직한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다)에서는 ‘나’가 좋아했던 ‘처녀’를 ‘수선’에 빗대고 있다. 자연물을 통해 ‘처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처럼 (가)~(다)에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어젯밤 머물렀던 어촌을 회상하며 오늘 산장에서의 경험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에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과 정월 대보름 무렵의 고향 모습을 회상하며 여인과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길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현재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을 뿐, 과거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금강산에서 본 자연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거나 특정 인물과 공간에서 환기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는 ‘-더니라’처럼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나)에는 ‘-는다’, (다)에는 ‘-버니다.’처럼 현재에도 흔히 쓰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가)에는 ‘풍설’, ‘낙엽’, (나)에는 ‘꽃’, (다)에는 ‘유월’, ‘육보름’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특정 대상과 시간을 드러낼 때 활용될 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상 사는 슬기’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생각과 관련이 있다.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은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고 여기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금강산에 왔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1연에서는 ‘화안한 골 길’을 거쳐 왔으며 2연에서는 ‘백화 양상한 사이’를 지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는 화자가 금강산에 올 때 만난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5연에서 화자는 어촌에서 본 ‘바다의 별들’이 장엄하다고 느꼈고, 6연에서는 산장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 꽃처럼 난만하다



고 느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처럼 화자는 이 별들을 통해 자기 내면에 투영된 자연의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벼랑 앞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길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길이 이들에게 벼랑 끝에 세우는 좌절이나 시련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는 산장에서 바라본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나)의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는 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 길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가)와 (나)의 각 구절에는 ‘별’과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2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걷던 시간으로, 그때 화자는 ‘아득히’, ‘머연 생각에 잠기’었다고 했다. 따라서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남은 시간으로, 글쓴이는 이 시간에 당신이 좋아할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묻는다. 따라서 ‘이 남은 밤’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구월’은 고운 낙엽이 푸른 물 위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은 아니다.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이 보내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수선화와 관련한 인물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간은 아니다.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어촌에서 별이 장엄하게 뜬 모습을 보았던 시간으로,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육보름 즈음 복을 맞기 위한 기대감으로 들뜬 고향의 밤으로,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④ (가)의 ‘오늘밤’은 산장에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과거에 좋아했던 여인을 처음 알게 되었던 날로, 글쓴이가 그녀와의 만남을 후회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은 아니다.

####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5연에서는 화자가 ‘동해안’에서 바다에 허다하게 뜬 별들을 보며 장엄함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6연에서는 화자가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꽃과 같이 가득 떠 있음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과 ‘산장’은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유사한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안’에서 ‘산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한 것은 화자가 떠나온 곳이 멀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금강산으로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거치는 오랜 시간 ‘머연 생각에 잠기어’ 있는 화자의 내면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이 되어 씻기우며’에서 ‘흰 돌’은 화자를 비유한 것으로, 이 돌이 ‘물소리’에 씻긴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3연의 ‘오래여 작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모양이 만들어진 나무와 봉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에서 풍기는 장엄한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④ 3연에서 ‘홀 홀 홀’은 흰 구름이 날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4연에서 ‘쌌아’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호르르르’는 낙엽이 낙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자연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26.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E]는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음을 아는 사람, 즉 진정한 길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길이 제 뜻을 아는 사람에게 꽃과 그늘을 선사하는 모습을 나타낼 뿐, 길이 자신의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에서 ‘길’이 큰물을 내어 길을 끊음으로써 사람들이 길을 버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구체적인 양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C]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B]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한 생각이다. ③ [C]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에게 슬기를 가르친다고 여기는데, [D]에서는 이런 생각이 진정한 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⑤ [F]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는 [A]에서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비된다.

## 2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글쓴이는 ‘육보름’과 관련해 자신이 고향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한 고향의 즐거운 풍속을 소개할 뿐,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이처럼 ‘당신’을 편지의 수신인처럼 설정하여 직접 말하듯이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과거에 좋아했던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녀가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어 시들어 간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사랑했던 여인과 관련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거나 ‘부엌의 솔뚜껑을 들고 오’는 것은 일탈 행위이지만, 이는 육보름이라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새악시 처녀들’에게 잠시 용인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⑤ ‘자갈자갈’은 복 맛이를 하는 ‘새악시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이고, ‘끼득깨득’은 육보름에 ‘새악시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의 즐거움과 쾌감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다섯 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야간 통행금지 상황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주인공 ‘나’(철이)는 겨드랑이에 통증을 느끼고, 집 밖에 나가면 이러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금지된 밤 산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며, 그러면서 그는 서울 도심 곳곳을 찬찬히 관찰한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벌이는 기괴한 매스 게임을 구경하고 5·16 군사 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주제] 1960년대의 억압적 시대 상황과 자유의 문제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

---

**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 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쭈신 증상 때문에 제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 30.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은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겨드랑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 ㉠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 ㉠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뒷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

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점을 고려하면,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윗글에서 ‘날개’가 ‘꿇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꿇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박인로, ‘소유정가’

**지문해설 :** (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연시조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임금과 속세의 정치를 생각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의식 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훗날 윤선도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삶

**지문해설 :** (나)는 17세기 무렵 박인로(1561~1642)가 정구(1543~1620)와 함께 대구에 머물렀을 때 소유정(小有亭)이라는 누정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 작품이다. 다양한 비유와 고사를 활용하여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으며, 그 속에서 뱃놀이와 낚시를 하며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닷’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㉞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㉞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좃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③ ㉞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㉞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 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맘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 3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돛단배가 돌아옴)을 돕는 자연 현상으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꿰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④ 37. ③ 38. ① 39. ② 40. ② 41. ⑤ 42. ② 43. ① 44. ⑤  
45. ②

[35~36] 화법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도입부에서 ‘개똥썩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발견했다는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나시나요?’라고 하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에서 ‘종자 금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지만,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청중에게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화면을 보여 주며)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면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로 지하에 종자가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화면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면1]은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위기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매년 나무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화면1]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를 보여 주는 자료로, 멸종 위기의 나무 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화면2]는 전체 식물 중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전체 멸종 우려 종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화면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 발표자가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A]에는 발표자가 발표 중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자의 질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종자 금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종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라고 하였으므로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이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보관 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종자 금고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였으나 두 나라의 종자 금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자 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 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종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적정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정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반출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38~42] 화법 + 작문

### 38. 비평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가)의 2문단~5문단을 보면, ‘하지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따라서’와 같은 담화 표지로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특정 이론이 활용되거나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학교 근처의 ‘팬 상품’ 판매점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례는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조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거나 이를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중심 화제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39. 비평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을 보면,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이 충동적으로 팬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충동적인 팬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보면,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 본 우리 학교 근처의 ~ 팬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팬 상품 판매점의 분위기를 제시함으로써 팬 상품의 인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3문단을 보면, ‘사회학자 유△△ 교수는 ~ 그 원인을 밝혔다.’와 같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팬 상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의 심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4문단을 보면, ‘1학년 정○○은 ~ 라며 인터뷰 과정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었다.’와 같이 학생을 인터뷰하여 팬 상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소외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5문단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박□□의 저서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문화』에서 언급하였듯이 ~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와 같이 관련 저서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들의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40.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B]에서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 아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발화이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 더 커 보여.’라는 ‘학생 2’의 발화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C]에서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라는 ‘학생 3’의 발화는 늦게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되묻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D]에서 ‘방금까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에 대해 ~ 논의 중이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대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 3’에게 앞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⑤ [E]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괜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 줄 수 있어?’라는 ‘학생 3’의 발화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41.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나)의 대화 상황을 살펴보면,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빠트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설문 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에는 설문 조사를 한 주체와 응답 대상이 밝혀져 있지 않아 설문 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움을 확

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을 보면, ‘2020년에 실시한’과 같이 설문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② ㉠을 보면, ‘설문 조사에 따르면’과 같이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을 보면, 설문 조사의 응답 결과를 순위대로 밝히지 않지만, 이는 설문 조사 자료의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을 보면, 설문 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설문 조사 자료의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

#### 42. 비평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가)의 1문단 마지막 문장 ‘국내 팬 상품 시장의 ~ 확대되었다.’와 (나)의 ‘학생 1’ 열 번째 발화 ‘팬 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할 것 같아.’를 통해 (가)의 처음에 2014년도 국내 팬 상품 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학생 2’, ‘학생 1’의 각각 여섯 번째 발화를 보면, (가)의 제목을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수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목을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일회성 소비’를 ‘충동적 소비’로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소비’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학생 2’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5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나)에서 ‘학생 3’의 다섯 번째 발화를 연결하여 보면,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어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교체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43~45] 작문

#### 43.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을 보면, 체육 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 대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1문단에서,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올해 체육 대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 대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이름 짓기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한 ‘보조개 사과’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름 짓기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효과를 ‘임산부 양보석’과 비교하여 이름 짓기를 잘하면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름 짓기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나)의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름 짓기를 할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밝힘으로써, 이름 짓기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 44.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이름 짓기를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와 같이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체육 대회는 ~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와 같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2문단의 이름 짓기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은 밝히고 있으나, 2문단에서 언급한 이름 짓기 효과가 아닌 이름 짓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은 밝히고 있으나, 2문단에서 언급한 이름 짓기 효과와 관련되지 않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의 이름 짓기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으나,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히지 않고 있다. ④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히지 않았으며, 2문단에서 언급한 이름 짓기 효과와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체육 대회의 이름이 가져다줄 효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45.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자료 1]을 보면, ‘보조개 사과’와 ‘등급 외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는 0.8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을 보면, ‘등급 외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가 외관과 맛 항목에서 모두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음을 보여 주는 근거이므로,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 2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료 2]를 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름이 국내 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잘 지어진 이름이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례이므로, 참여 동기와 관련된 3문단에 또 다른

---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료 2]를 보면, 'G4C'라는 이름은 지나치게 생소해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민원24'로 이름을 바꾸자 인지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나치게 생소하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므로, 이름 짓기의 방법과 관련된 4문단에 활용될 수 있다. ⑤ [자료 2]를 보면, '민원24'라는 이름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생소해 의미 파악이 어려운 'G4C'라는 이름과 달리, 누리집의 인지도를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이름 짓기의 방법과 관련된 4문단에 활용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④ 40. ⑤ 41. ② 42. ② 43. ① 44. ③  
45. ①

[35~36] 언어

[35~36] 합성 용언의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명사 + 동사’, 명사 + 형용사’로 구성된 합성 용언의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구성 요소 간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적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성 용언과 본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합성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나는 학구열에 불타다’의 ‘불타다’와 같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제]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합성 용언의 분류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뒤돌아’는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값싸게’는 ‘값이 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② ‘눈부신’은 ‘눈이 부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밤새워’는 ‘밤을 새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앞서서’는 ‘앞에 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의 ‘담쌓다’는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야식과’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목말라’는 ‘목이 마르다.(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② ㉢의 ‘점찍어’는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떻게 될 것 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간식으로’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의 ‘녹슬지’는 ‘녹이 슬다.(쇠붙이가 산

화하여 빛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가 성립하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㉔의 ‘눈뜨게’는 ‘눈을 뜨다.(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신 이론에’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37. 용언

**정답해설** : ㉔의 ‘(갈증이) 가셨겠구나’는 ‘가시- + -었- + -겠- + -구나’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의 ‘즐거우셨길’은 ‘즐겁- + -(으)시- + -었- + -기 + ㄹ’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으)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전성 어미이다. 이때의 ‘ㄹ’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㉔의 ‘됐을’은 ‘새- + -었- + -을’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은 전성 어미이다. ③ ㉔의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거롭- + -(으)시- + -겠- + -지만’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으)시-’,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연결 어미이다. ⑤ ㉔의 ‘다다른’은 ‘다다르- + -ㄴ’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ㄴ’은 전성 어미이다. ㉔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38. 부정 표현

**정답해설** : ㉔의 ‘고요하지 않다’는 형용사 ‘고요하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㉔의 ‘비가 안 오다’는 부정물 ‘비가’ 주어로, 동사 ‘오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㉔,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은 동사 ‘발달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부정물 ‘옷’이 주어로, 동사 ‘도착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② ㉔은 형용사 ‘어렵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유정물 ‘저’가 주어로, 동사 ‘잇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③ ㉔은 형용사 ‘궁금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유정물 ‘동생’이 주어로, 동사 ‘가져가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④ ㉔은 동사 ‘놀라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부정물 ‘전기’가 주어로, 동사 ‘통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 39.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겉늬다[건늬다]’에서는 ‘겉’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밖만[방만]’에서는 ‘밖’의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② ‘폭넓다[퐁널따]’에서는 ‘폭’의 ‘ㄱ’이 비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값’의 ‘ㅍ’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40~42] 매체

#### 40. 뉴 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화면 3]에는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의 내용 중 검색 어구가 버스 광고와 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버스 광고의 장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색의 결과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학생이 자신이 다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즐거찾기 목록’에 있는 1장과 3장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 학생은 ㉡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였다. ③ ㉢은 책의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용한 사전 찾기 결과이다. 사전 찾기 결과가 본문과 한 화면에 제시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은 화면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는 ‘100% 화면’이 [화면 3]에서는 ‘120%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져서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고 있다.

#### 41.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해설 : (나)의 [화면 2]에서는 버스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는 모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메모 1’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화면 2]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메모 2’에서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를 선택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메모 3’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메모 3’에서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려는 것은 [화면 3]의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⑥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이는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임 광고’를 부각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짧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앞에 열거된 내용을 고려할 때, ㉠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의 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추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의 앞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의 뒤에는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장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그’는 지시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버스 광고’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43~45] 매체

####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가)에서는 교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특정 다수’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많은 수’를 뜻한다. (나)에서는 ‘민지’, ‘상우’, ‘보미’라는 특정된 개인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민지’의 발화 중 ‘지금 보미랑 과제 때문에 다른 대화방에서 얘기 중인데’라는 내용을 통해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4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에서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는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것이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의견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라는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민지’를 통해 대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두 팔을 들어 큰 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민지’는 ㉠을 활용하여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는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한 것이고,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는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⑤ ㉠에서는 ‘상우’가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촬영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45. 소통 목적 고려

**정답해설** : (나)에서는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는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②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상우’의 발화 중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

(나)에서 '보미'의 발화 중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와 (가)에서 '민지'가 신청한 노래 제목 '다시 만날 우리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는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 자막은 내가 넣을 게.'라는 '보미'의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⑤ 22. ①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① 28. ⑤ 29. ① 30. ②  
31. ① 32. ④ 33. ② 34. ③

[1~3] 독서

[1-3] 독서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지문해설** : 이 글은 독자가 독서를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와 관련된 사회나 시대와 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배경지식이나 관점과 같은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와 같은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책이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제]** 독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즐거움과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자 요인이란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점 등을 말하며, 상황 요인이란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읽기 환경과 과제는 독자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독자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이며,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에는 ㉠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는 ㉠에 대한 답을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찾아낸 것이므로, ㉡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의 ㉢ 중 ‘이 내용들을 종합해 ~ 알게 됐다.’라는 데에서 ㉠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에 나타난 질문은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는 질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는 ㉡가 아니라 ㉠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독자는 다른 독자들과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며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공유하며 다른 독자와 다양한 양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유서의 특성과 의의 / (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지문해설** :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유서의 특성과 의의

**지문해설** :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편찬하여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18세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19세기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였다.

**[주제]**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임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유서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고 유서의 의의를 밝혔다. (나)에서는 17세기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 18세기 이익이 편찬한 『성호사설』, 19세기 이규경이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드러난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유서를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 유서란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라고 그 개념을 밝혔다. 또한 유서가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가)에서 유서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⑤ (가)에서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각각의 유서를 통해 서학의 수용 양상을 설명하였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유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고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개인이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의 목적을 위해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한 유서를 편찬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중국에서는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다고 하였다.

##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㉞에는 평가가 더해져 저술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규경이 ㉝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이규경은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통해 기존의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㉞의 편찬 의도는 지식의 제공과 확산이었다. 이는 이익이 ㉝에서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㉞는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이익이 ㉝에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㉞는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는 경향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는 이규경이 ㉝에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㉞는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이는 이익이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과 이규경이 ㉡에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이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에 대해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을 강조하여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봉유설』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수광이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번성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수광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지봉유설』에서 당대 조선의 지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였다. 이수광은 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수광이 배움과 익힘이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마찬가지로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고 중화 관념에 구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현실 개혁의 뜻이 담겼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에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인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라고 하였고 안설을 부기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임원경제지』에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지봉유설』은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이 발췌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성호사설』은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계몽하다’는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㉝는 ‘계승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용이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혼재되다’는 ‘뒤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변경하다’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10~13] 독서

#### [10~13] 사회,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 법원이 어떻게 법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일 수도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는데,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이때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한편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이 규율하는 행정 작용 중에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인 기속 행위와 행정청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인 재량 행위가 있다. 행정청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으나, 이 재량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다만 재량 준칙대로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행정청은 평등 원칙에 따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주제] 법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과 이에 대한 재량 판단

##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에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있다. 이 중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조문에 대해 법원은 그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그리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행정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를 다루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은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 관행이 생길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재량 준칙은 행정 법령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을 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면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재량 준칙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이다. ③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이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면 행정 관행이 생기게 되고, 그 후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재량 준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 이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재량 준칙이 정해질 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1문단의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 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약금 100을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으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정해져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가)에서 을의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나)에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므로 갑은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된 경우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모두, 손해 배상 예정액인 100을 법원이 재량에 의해 감액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위약금 100은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지킬’의 ‘지키다’는 모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의 ‘맞다’는 ‘어긋나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다.’의 의미로, ‘맞는지’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제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 ② ⑥의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들고’의 ‘들다’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⑦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의 의미로, ‘받았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⑧의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골랐다’의 ‘고르다’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4~17] 독서

[14-17] 과학,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지문해설** : 이 글은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에 대한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등장하게 된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법을 통해 측정하거나 간접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에 대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체표 면적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1930년대 클라이버는 L-그래프를 이용하여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고,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75</sup>, 즉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의 허용량 결정에도 이용되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X축에는 체중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Y축에는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기울기에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반영되며,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작아지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 즉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으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8문단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7문단에서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L-그래프에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이 아니라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면 적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코끼리의 체중을 100, 생쥐의 체중을 1로 가정할 때 코끼리의 대사 체중은  $100^{0.75}$ , 생쥐의 대사 체중은  $1^{0.75}$ 이므로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보다 적다. 따라서 체중에 비례하여 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적정량보다 적은 양을 먹이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②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75</sup>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체표 면적은 (체중)<sup>0.67</sup>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은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체중이 2배 증가할 때 기초 대사량은  $2^{0.67}$ 인 약 1.6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 9문단의 내용을 통해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75</sup>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은 19세기 초기 연구에 비해 클라이버의 법칙을 따를 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문단에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은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환경 온도에 따라 체온을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을 적용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환경에서 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라는 요소가 ㉠에 의한 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아야만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 ㉡ 모두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⑤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X축에 표시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Y축에 표시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가로축인 ㉠의 증가율이 세로축인 ㉡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과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만든 순서쌍이 직선을 나타내므로 ㉠과 ㉡는 지문의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따라서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가 더 커지면 편차의 제곱 합도 더 커진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러나 <보기>와 같은 L-그래프에서는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한다. ④ 6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러므로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은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점들은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 조위한, '최척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결혼, 이별과 재회를 중심으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핏진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어느 봄날 밤'의 풍경을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 들었다'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풍경 속에서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감각적인 배경 묘사로 시를 읊는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느 봄날 밤'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었는데, 이는 '맑은 정경'을 대한 자신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를 읊은 것이지 인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 일로 볼 수 없다. ②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최척과 옥영의 결혼을 '친척들'이 축하해주었으며,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했던 옥영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뿐이지 옥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최척은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해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렀다. 안남에서 옥영과 재회한 최척은 전란에서 헤어진 아버지와 장모님의 안위를 묻지만 옥영은 두 분의 안위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란이라는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최척은 ‘어느 봄날 밤’ 자신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읊은 절구 한 수를 들으며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최척이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며,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양국의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이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가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며 놀라고 있다.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냐고 물으며,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밝힌 후에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냐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며 그 조선 사람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다. ④ 시집에 온 옥영은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추’었으므로 그녀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척은 ‘결혼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이 점차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혼례를 마친 후 대청에 오른 최척과 옥영을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옥영을 향해 이웃 사람들이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옥영의 행실을 칭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에 최척은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라 할 수 있고, ㉡은 그런 날들 중의 하나로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은 때이므로 ㉡은 ㉠ 중 한 시점을 특징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후사에 대한 염려로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므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에 옥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② ㉠에 옥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났으므로 인물이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에 옥영은 최척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었으며, 최척은 이런 옥영의 시 읊는 실력에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④ ㉠은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던 ㉡ 중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의 표지에 해당한다. 한편 ㉡은 최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에 행해지던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⑤ ㉠에 행해지던 행위가 ㉡을 거쳐 ㉢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아 자식을 잉태해 아들을 낳았으므로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최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을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없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최척과 옥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의외의 만남을 하고 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둘은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았으며, 헤어져 있는 동안 쌓아 두었던 감정이 폭발쳐 올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과장된 표현으로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최척과 옥영은 결혼한 후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만복사에 올라 정성을 다해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은 본인을 ‘만복사의 부처’라고 하며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고 있다. 이후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아들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은 옥영에게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면서 그 사내아이에게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옥영이 낳은 아들의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붉은 점’은 장육금불이 예언한 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음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오늘날의 베트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아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영은 어젯밤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인 최척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다. 최척이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으러 일본인 배에 왔고, 서로 헤어졌던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리 소리’는 이별 상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 복합 - (가) 이항, ‘도산십이곡’ / (나) 김득연, ‘지수정가’ / (다) 김훈, ‘겸재의 빛’

---

**지문해설** : (가)는 이항이 만년에 은퇴하면서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며 지은 총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 있고, 후 6곡 ‘언학’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가)의 <제1수>, <제2수>, <제6수>는 모두 전 6곡 ‘언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감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학문 수양의 길

**지문해설** : (나)는 조선 중기의 문인 김득연이 지수정과 그 주변의 자연 풍광에 대해 노래한 가사이다. 와룡산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직접 세운 정자인 지수정과 이를 둘러싼 자연물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흐름을 배경으로 자연을 벗삼고 풍월을 읊조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도학자로서의 결의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지수정을 자연 자체이자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지수정을 짓고 자연에 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지문해설** : (다)는 조선 시대의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동해안의 승경을 찾아다니며 겸재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반추한 내용을 서술한 수필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옛 망양정 터를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풍경과 그림 속의 풍경 간의 괴리를 간파하고, 이는 겸재 그림의 사실성이 물리적 거리감에 근거하는 대신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겸재의 그림에 나타난 원근과 사실성의 의미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의 한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정함으로써 자연에 합일하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다)의 글쓴이는 겸재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사실성이 인간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드러낸 화가의 시선에 공감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 (나), (다)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거나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다) 모두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가)와 (나)의 자연 공간은 이상화되어 제시되었으며, (다)에서는 현실에 대한 통찰보다는 현실 공간이 화폭에 담기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④ (가)의 <제6수>에서는 계절감을 활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

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화자가 자연을 벗삼아 늙어가는 과정에서 장차 바라는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보여준다. [B]의 ‘티 없어’는 산의 모습을 비춘 ‘작은 연못’을 보고 이를 ‘맑은 거울’로 비유한 화자의 평가이다. 따라서 ‘티 없어’를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구절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제1수> 초장은 ‘이런들’과 ‘저런들’, ‘어떠하며’와 ‘어떠하료’ 등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A]의 <제1수> 종장에서는 천석고황, 즉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고쳐 무엇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자연물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A]의 <제2수> 초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을 티 없는 ‘맑은 거울’에 비유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④ [A]에서 ‘연하’와 ‘풍월’은 각각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이들과 화자의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었으며, [B]의 ‘활수’는 ‘끌어 들여’ ‘머물게 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이를 가까이 끌어들여, 가는 것을 멈추고 머물게 하고자 하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24.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스스로 지은 정자를 ‘무릉도원’이라 칭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상적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무릉도원’이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반면 (가)의 화자가 ‘천석고황’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처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자신이 처한 자연 공간을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석고황’을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가)의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초야우생’은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으로, 자연에 거하여 이를 지향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황무지’의 ‘진면목’을, 즉 자연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알아차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말이다. ④ (가)에서는 ‘사시 가흥’을 ‘사람과 한가지라’라 표현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이어지는 ‘백석’, ‘벽류’, ‘첩첩한 산들’, ‘뺨뺨한 소나무’ 등 지수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서 확인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꽃이 만발한 봄과 달빛 가득한 가을밤의 모습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벽류는 칼칼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맑고 푸른 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발견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작은 정자’는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과 같은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필괘 위언의 그림의 것’이자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따라서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다)의 ‘옛 망양정 자리’에서 글쓴이는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자문자답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스스로 세운 정자이므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로 볼 수 있지만, ㉡은 글쓴이가 겸재의 화폭에 등장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방문하게 된 곳이므로 이를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결부하여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을 (나)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은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를 보아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이 자연에서 거할 공간으로 세운 것이므로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라 하기 어렵다. ㉡은 실제로 ‘망양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일 수 있으나, 글쓴이는 ㉡에 대해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반응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겸재 그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가 ㉠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다듬’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의 글쓴이 역시 ㉡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C]에서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이 띠고 있는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라고 하였다.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보기>의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에 상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는 점을 증명한 것이 겸재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먼 산을 그릴 때’ 겸재가 그리는 것은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아닌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보기>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 의하면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고 했으며,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에서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구절로 볼 수 있다.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상들 역시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빠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될 때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의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은 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화가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거주의 공간으로 ‘집’이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한 후 터를 잡고 살던, 그래서 ‘나’의 유년 시절과 현재 시점까지의 삶이 오롯이 녹아 있는 천변의 집을 떠나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천변의 집은 주위에 산과 시냇물이 있으며 앞마당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새로 이사를 갈 집은 변화한 도로변에 있어 도시의 온갖 소음이 들려오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주의 공간,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에 대한 회고

2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영익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사를 가야 하는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통해 영익이 이삼일 전 집에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겼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를 물어볼 뿐 아들의 근황을 궁금해

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 ‘나’가 가리킨 동편 산마루의 깎박이는 불빛의 승암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문을 닫는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천변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인 ‘나’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는 모두 ‘나’이므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벽오동집 아주머니’와 ‘오동나무 아주머니’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를 호명하는 말로 이를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호칭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일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자리를 잡은 곳인 천변에 대해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네였을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술이므로 서술자가 동네의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으며,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 해지고,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끼며,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동나무는 서술자인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동나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동나무를 심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특징에 부합하는 별명을 지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이다. ⑤ 오동나무는 내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기념으로 심은 것이므로 자식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 심은 나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앞마당에 심은 것이므로 마을 곳곳에 심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을 곳곳에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것은 서술자의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마을 곳곳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는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술자인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보이고 있을 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천변’ 집에 살면서 이웃들과, 그리고 집 앞마당에 자라는 오동나무와 함께 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천변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③ ‘서걱거리는 소리’는 앞마당에 있는 오동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이고, ‘불규칙한 마찰음’은 새로 이사를 간 집 주변에서 나는 소리이다. 오동나무 잎사귀가 하늘을 뒤덮는 앞마당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마찰음’이 들려오는 곳은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채광이나 통풍은 주거의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볼 때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느끼는 애착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는 것은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서술자가 느끼는 부정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게 느끼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1-34] 현대시 - (가) 유치환, '채전(菜田)' / (나) 나희덕, '음지의 꽃'

**지문해설 :** (가)의 채전은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글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처럼 화자는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영글어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감각적으로 그림으로써,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묘사를 통해 타고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족적 태도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채전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볼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자족하는 태도

**지문해설 :** (나)는 인간에 의한 생명 파괴를 고발하고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이다.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썩은 참나무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통해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음지'는 참나무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패역의 골짜기'가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이라면 '음지'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버섯'이므로 이 작품은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간에 의한 자연의 황폐화와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중심 제재는 '한여름'의 '채전'이라 할 수 있다. 그곳은 '황금의 햇빛' 속에서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글어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키는,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보여 주는 곳이다. 한편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이 (나)의 중심 제재는 '버섯'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썩어 가는 참나무 떼'의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난다. 그것은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서서히 썩어 가는 참나무의 고통과 상처를 멈추게 하기에 화자는 '버섯'을 '음지의 꽃'으로 부른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사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화자가 중심 제재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죽할 줄 알라’ 등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는 있으나, 화자는 채소들의 이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의 ‘씩어 가는 참나무 떼’는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씹어 간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나 비관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통해 만물의 조화와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는 생명의 파괴와 그로 인한 씹음, 상처,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을 ‘버섯’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관조적 시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의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읽어낼 수 있기에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 등에는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채전’은 긍정적 인식과 예찬적 태도가 담겨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가)의 ‘많은 손님들’은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들 사물을 인격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손님들’은 ‘채전’의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데에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존재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은 모두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가 보아라’가 반복되고 있다. 2연의 마지막 행은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로 끝난다. 여기에서 ‘가 보아라’는 ‘와서 보아라’로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 ‘한여름’의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과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경험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지극히’는 ‘범속한 것들’ 앞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 앞에서도 수식어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여름 채전의 채소들에서 느끼는 화자의 충족한 느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과분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형 ‘말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 명령형은 ‘주어진 대로’, ‘스스로를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빛나는 생명의 양상’은 ‘생명의 양상’이라는 관념을 시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채전’의 ‘지극히 범속한 것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33.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보듯이 ‘우리’가 함께 씹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든다. 그 ‘바람’은 [C]에서 보듯이 ‘잠자던 흙씨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흙씨들’의 일어남은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남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순환’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을 의미하기에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이,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③ [C]에서는 참나무의 상처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고, [D]에서는 그로 인해 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 생성의 순간과 고통이 멈추는 과정을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없다. ④ [D]에서는 버섯의 피어남으로 인해 참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E]에서 낙엽은 산비탈을 구르고, 바람은 골짜기를 떠돈다. 그러므로 참나무 모습에 일어난 변화와,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을 인과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⑤ [E]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낙엽, 바람 등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 즉 ‘버섯’과 동질적 존재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년출’은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로 (가)에서 ‘년출’은 채전 울타리에 덩굴을 이뤄 자라는 작은 박과 호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의 일부이다. 이 ‘년출’은 어우러진 생명체와는 관련이 있지만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나)의 ‘흙씨’는 참나무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의 흙씨이다. 그러므로 썩어 가는 참나무의 몸에서 피어나는 버섯은 <보기>에서 말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한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채전’에서 자라고 영글어 가는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벌목’으로 썩어 가는 ‘참나무 때’가 ‘겨울’을 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참나무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과 아울러 그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처럼 (가)가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면 (가)의 ‘채전’은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울타리’는 그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패역의 골짜기’는 벌목된 참나무들이 슬픔으로 서 있는 공간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 공간은 ‘벌목’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가)에서 ‘그늘’은 나비, 풍덩이, 잠자리, 바람, 비, 햇볕 등과 함께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음지’는 참나무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패역의 골짜기’는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음지’ 역시 그러한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버섯’이다. 그러므로 ‘음지’

---

에서는,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찾을 수 있다. ⑤ (가)의 ‘비’는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햇볕 등과 함께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소나기’는 ‘서서히’ 썩어가는 참나무들과 대비되어 ‘후드득’ 피어나는 버섯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⑤ 37. ③ 38. ④ 39. ④ 40. ③ 41. ② 42. ④ 43. ⑤ 44. ②  
45. ①

[35~37] 화법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안전 설계’가 발표에서 다룰 화제임은 제시되어 있으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의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설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와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에서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과 관련지어 발표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③ 2문단의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리며 차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고)’에서 청중의 경험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월 평균 2.6건이었던 것이 가로 흠을 시공하자 3개월간 0건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발표 내용의 근거로 활용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⑤ 5문단의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에서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찾아보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자료 3]은 <낮의 터널 내부>에 대한 자료로서, 조명등이 설치된 간격이 달라서 낮에 터널 입구 쪽과 출구 쪽이 중간 구간보다 밝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료 3]은 달라지는 밝기에 눈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조명등의 설치 간격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세로 흠과, 진행 방향에 수직인 가로 흠을 진하게 표시한 그림이다. 따라서 [자료 1]을 흠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달리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② [자료 1]은 세로 흠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가로 흠은 제동 거리를 줄여 준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1]을 ㉠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③ [자료 2]는 흠의 너비와, 흠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합한 값에 따라 음 높이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2]를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느끼는 차의 진동이 흠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④ [자료 3]은 터널 입구 쪽과 출구 쪽이 중간 구간

보다 밝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3]을 ㉡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도서관에서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어.’라고 반응하였으며, 학생 2는 ‘이런 도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라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학생 1의 ‘곡선 도로에 경사를 준다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해서 아쉬워.’라는 반응을 볼 때,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 학생 2의 ‘멜로디가 들리는 도로가 재미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안전을 위한 거였군.’을 볼 때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 2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다. ㉣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으나,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 학생 2는 실제로 이런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반응하였으며, 학생 3은 미세한 유리 알갱이를 차선에 바르는 방법과, 밤에도 터널 구간별 밝기가 다른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38~42] 화법 + 작문

### 38. 성찰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다 함께 식물 지도 만들기’를 위해 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친구들은 힘들다고 포기했지만, 자신은 ‘누군가는 이 지도를 보며 마을의 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 조사에 임하는 자신의 참여 자세를 친구들의 참여 자세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1문단을 보면 식물 지도 만들기 행사에서 자신이 깨달은 점을 밝히고는 있으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 2문단을 보면 식물 지도를 만든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 2문단을 보면 학급마다 특색 있게 식물 지도를 그렸다는 언급은 있으나, 그러한 학급별 식물 지도의 특색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 3문단을 보면 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음은 언급

하고 있으나 그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 39. 성찰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교실 밖 관찰 활동을 위해 책을 활용한 학습을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실 밖 관찰 활동을 하니 책으로만 접했을 때보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점을 반성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그동안 주변의 식물에 무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와 같이 자신의 어떤 점을 반성했는지 밝히고 있다. ② <보기>에는 교실 밖에서 관찰한 식물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화살나무나 분꽃 등의 식물’을 관찰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보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식물 지도 만들기 행사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만 언급하고 있으나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관찰 활동의 효과로, <보기>는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 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가)의 마지막 문단은 ‘책으로만 접했을 때보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가)의 마지막 문단과 같이 수정한 것은 교실 밖 관찰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본 행사의 취지와 관련짓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40.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B]에서 ‘학생 1’은 ‘약효가 있는 식물은 그 정보도 제시하자는 거지?’, ‘식물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자는 말이었어?’와 같이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학생 2’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도 좋지만,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더 좋을 듯해.’와 같이 ‘학생 1’의 발화를 일부 재진술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1’은 □□ 농장에는 매실나무만 많다는 점을, ‘학생 2’는 □□ 농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가 본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는 ‘그거 좋은데?’와 같이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우리가 행복산에서 조사할 꽃과 나무 중 일부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학생 3’의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은 ‘□□ 농장에 갔으면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와 같이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B]의 첫 번째 발화에서도 ‘학생 3’은 ‘식물 이

름과 함께 식물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도 제시했으면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와 같이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 41.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국가 보호종을 비롯해 주목할 만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할 듯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의 2문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대한 여러 종류의 식물 사진을 찍은’ 후에 ‘학급마다 특색 있게 그린 지도 위에 조사한 모든 식물의 이름을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처럼) 우리도 몇몇 주목할 식물만 지도에 표시한다.’를 수용할 점으로 논의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식물의 이름을 알려 주는 누리집을 이용해 식물 이름을 편리하게 찾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식물 이름은 ○○고등학교처럼 누리집을 이용해 편리하게 찾자.’라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아이디어를 (나)에서 수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식물 지도의 범위를 ‘△△동 전체’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의 범위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 1’이 ‘그러자.’라고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가)의 지도의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을 통해 ○○고등학교에서는 식물 지도의 범위를 ‘△△동 전체’로 했다는 점을, 3문단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조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를 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 3’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라고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을 조사할 장소에 대해서는 (나)에서 (가)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만든 지도를 이어 붙여’ △△동 식물 지도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의 여덟 번째 발화를 보면 ‘○○고등학교가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지도를 만든 건 참신하긴 한데 통일감이 없어 부자연스러울 듯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가)의 지도를 이어 붙이는 방식은 (나)에서 수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2.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학생 2’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장소마다 대표 식물을 하나씩 선정해서 그 식물 이름 밑에 식물의 사진도 함께 제시하는 건 어때?’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에는 식물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고 식물의 사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장소마다 하나씩 대표 식물의 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의 사진을 추가해야겠다는 반



응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를 보면, ‘국가 보호종을 비롯해 주목할 만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할 듯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식물이 있는 곳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하기로 논의한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학생 3’의 일곱 번째 발화를 보면, ‘행복산은 갈림길이 많으니 걷기에 더 편한 길을 화살표로 표시하고.’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 보호종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동선으로 표시하기로 논의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학생 3’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화,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를 통해 □□ 농장은 식물을 조사하는 장소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학생 3’의 일곱 번째 발화를 보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식물은 모두 빗금으로 표시하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식물 중 학생들에게 낯선 식물은 빗금으로 표시하기로 논의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45] 작문

43.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는 커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커피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글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커피를 만든 후 남는 커피 찌꺼기’를 ‘커피박’이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커피박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거나 흙에 버리기도 한다며 커피박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커피박이 탈취제나 방향제, 합성 목재를 대신하는 재료, 비료,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44.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조언에 따라 [A]에는 먼저 초고 2~4문단에서 문단별로 문제 삼고 있는 점을 해결할 방안(2문단은 커피박의 올바른 처리 방법, 3문단은 재활용 분야 홍보, 4문단은 커피박 수거 시설 확충)을, 다음으로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으며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②는 첫 문장에서 초고 2~4문단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안을, 두 번째 문장에서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으며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초고 2~4문단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가운데 2문단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③ 조언에서 언급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④ 초고 2~4문단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반영되었으나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⑤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와 커피박 수거 시설 설치의 효과는 제시되었으나 초고 2~4문단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 45.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는 커피박이 소각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커피박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소각용 쓰레기와 함께 잘못 배출되었을 때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가)를 커피박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추출 직후 커피박에 남은 카페인과 수분이 각각 식물과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커피박이 식물과 토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나)는 커피박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이는 커피박이 최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3문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다)는 커피박 수거 시설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커피박 수거 시설이 매우 부족함을 제시하고 있는 4문단에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커피박 수거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부각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⑤ (다)는 커피박 수거 시설의 확충이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과 커피박 수거나 운반 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자료를 4문단에 활용한다면 커피박 수거 시설의 확충이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① 38. ④ 39. ① 40. ② 41. ① 42. ③ 43. ⑤ 44. ④  
45. ③

[35~36] 언어

[35~36]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인 어근들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갈비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합성 명사를 이루는 어근들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단어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중심적 의미만 지니다가 그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는 새로운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합성 명사의 어근이 합성 명사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꿀잠’, ‘구름바다’의 사례를 통해 일부 어근들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과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싸우--+ㅁ)’과 ‘(논+밭)+(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새우+(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탈+(추--+ㅁ)]+(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정답 ②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입꼬리’와 ‘도끼눈’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리’와 ‘도끼’로,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칼잠’과 ‘구름바다’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잠’과 ‘구름’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②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글’과 ‘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벌레’와 ‘벼락’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⑤ ‘꼬마전구’와 ‘꿀잠’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마’와 ‘꿀’로, 그 위치가 같다.

### 37.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분, 뻥, 흙’ 외에 ‘스그불’에서도 종성 글자 ‘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⑥는 비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뵈, 스그불’에서 ‘뵈’를 확인할 수 있다. ③ ④는 초성과 종성 자리에 쓰이는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뽀니, 뻥, 흙’에서 각각 ‘뽀, 뻥, 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⑤는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분, 스그불, 흙’에서 ‘ㄴ, ㅡ, ㆍ’를 확인할 수 있다.

⑤ ⑥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뽀니, 사뵈, 뻥’에서 ‘ㅣ, ㅏ’를 확인할 수 있다.

### 38.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의 ‘안겨라’는 ‘안- + -기- + -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기-’는 피사동 접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푼다’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가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의 ‘여름도’는 체언 ‘여름’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의 ‘잠가’는 ‘잠그- + -아’로 분석되는데, ‘ㄹ’과 ‘ㄱ’이 모두 ‘잠그-’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하는 소리가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의 ‘큰지’는 용언 어간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가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39.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③ ㉡의 명사절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며, ㉤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⑤ ㉦의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누리집의 특정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누리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댓글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누리집 하단에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과 ‘주요 행정 서식’을 선택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④ 누리집 상단에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누리집 하단에 ‘○○군으로 놀러 오세요’에서 ○○군의 관광 명소인 ‘두루미 생태 공원’과 축제인 ‘국화 축제’의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모집합니다.’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군’이라는 단체 명사 뒤에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터 공모 주체가 ‘우리 군’이라는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모집합니다’에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으나, 이는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을 높이는 것이다. ③ ㉠의 ‘제한함’에 명사형 어미 ‘-ㅁ’이 쓰였으나,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대상이 ○○군 주민으로 한정됨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④ ㉠의 ‘기부금을 내면’에 연결 어미 ‘-면’이 쓰였으나, 제공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의 ‘제공됩니다’에 피동 접사 ‘-되다’가 쓰였으나, 오히려 피동 표현이 쓰임으로써 혜택 제공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4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수영’의 발화 중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채팅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은 적절하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다. ② 회의 중간에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그래픽 자료를 함께 보며 포스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설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연'을 위하여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화면 녹화를 하였다. 따라서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설아'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해윤'에게 소리가 너무 작다며 마이크 음량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윤'은 '설아'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 음량을 키웠다. 따라서 '설아'가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수영'의 마지막 발화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의 제시 방법에 대해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포스터에는 '수영'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두루미가 아닌 스피커 모양의 그림에 말풍선을 제시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설아'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설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하였다. ② '수영'은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수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하트 모양을 사용하였다. ③ '종서'는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레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종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레품인 인삼을 그려 넣었다. ④ '해윤'은 '우리 지역은 ~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해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은 '개설 목적'과 '규칙 2'를 고려하여 언론사에서 생산한 매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링크를 제시한 것으로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카페의 활동 주체인 '□□고 동아리 매체통'과 활동 내용인 '매체 자료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밝힌 '개설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는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매체 자료 비평 글을 올리도록 정한 '규칙 2'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는 비평 활동 결과 제출 기한이 공지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정한 '규칙 1'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규칙 3'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원'은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민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재원'과 '민수'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재원'은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혜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인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던 특성 성분이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에 대하여 '재원'은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영진'은 이와 달리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영진'은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라고 하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의 파급력을 예로 들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통: 독서·문학]

- 01. ②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9. ① 10. ④
-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① 19. ② 20. ④
- 21. ⑤ 22. ⑤ 23. ④ 24. ① 25. ③ 26. ④ 27. ⑤ 28. ③ 29. ④ 30. ②
- 31. ④ 32. ② 33. ⑤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 동기의 두 유형’

**지문해설 :** 이 글은 슈츠가 제시한 동기의 두 유형인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로 독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되고,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 관련된다. 독서 습관은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시작하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새로운 독서 행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주제] 독서 동기의 두 유형과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슈츠가 동기를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의 두 유형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슈츠가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고 하였다. ③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독서를 이끌어 내는 힘이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에 해당하고, 독서를 지속하는 힘이 독서를 계속하게 하는 힘에 해당한다. ⑤ 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동기 개념’, 즉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학생의 메모에서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로, 독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되므로 독서의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와 ㉢(어려운 책을 읽어 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 관련되므로 독서의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위하여 동기’가 아니라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② ㉡는 ‘때문에 동기’가 아니라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③ ㉢은 ‘때문에 동기’에 해당하지만 ㉣는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④ ㉣는 ‘때문에 동기’에 해당하지만, ㉤는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해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면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독서 행위(㉠)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이러한 선순환’이란 ㉠, ㉡, ㉢의 선순환을 말한다. 3문단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4~7] 독서

[4~7] 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

**지문해설** : 이 글은 공포 소구에 대한 재니스와 레벤달의 연구,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위티가 도출해 낸 결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니스는 세 가지 수준의 공포 소구 중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효과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한 후, 이 두 요인의 수준에 따라 위험 통제 반응과 공포 통제 반응이 달리 작동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내용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에 대한 재니스와 레벤달, 그리고 위티의 연구를 설명하고 있다.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고,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였으며, 위티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화제, 즉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재니스, 레벤달, 위티의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 연구의 진척을 재니스, 레벤달, 위티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공포 소구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위티의 결론이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 소구에 대해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레벤달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위티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이러한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위티는 위협의 수준이 높으려면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크다고 느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위협의 수준이 낮게 되고,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지 않아 수용자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을 것임을

---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재니스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통해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재니스가 공포 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효과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보고 재니스의 연구가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레벤달이 재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들이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오히려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레벤달이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위협의 수준이 달라지고,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위티가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두 요인의 수준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4문단을 통해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으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으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고,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집단 1은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4문단에서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집단 2는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낮았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7.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기여(寄與)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주다’에서의 ‘주다’는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여하다’는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편향(偏向)되다’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② ‘명명(命名)하다’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경험(經驗)하다’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발송(發送)하다’는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8~11] 독서**

**[8~11] 과학기술,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지문해설** : 이 글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물질인 촉매가 화학 산업에서 사용될 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되는데,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한편 고온에서는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는 소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지체는 소결 현상으로 인해 활성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이다. 또한 증진제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거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는 등 활성을 조절하는 요소이다.

**[주제]**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와 촉매 활성 조절의 원리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화학 산업에서 고체 촉매가 주로 이용되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그러므로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결된다

---

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되며,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그러므로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9.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소결이 일어나면 촉매 활성이 저하되므로, 소결을 촉진하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촉매 활성은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 따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할 경우 반응이 느려지므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이 뭉쳐져 큰 입자를 이루는 것을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촉매 활성이 저하되므로,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크게 만드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실리카의 표면에 금속 입자를 분산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지지체인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세틸렌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에틸렌으로 변환이 된다. 2문단에 따르면 화학 반응을 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② <보

기>에서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2문단에서 활성 물질은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고 하였으므로, 수소를 흡착시키는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서 규소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고, 은은 전자의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 4문단에서 증진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⑤ <보기>에서 실리카는 지지체에 해당한다. 지지체는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11.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에 흡착되는 경우 흡착 세기가 너무 강하여 촉매 활성이 낮아지므로 ㉠에 흡착될 때보다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촉매 활성이 높다는 것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 ㉡를 활성 성분으로 할 때 ㉠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보다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②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흡착 세기가 강하면 흡착량이 많아 촉매 활성도 높으므로, ㉠가 ㉡에 흡착될 때가 ㉠에 흡착될 때보다 흡착량이 더 많다. ④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그러므로 ㉠는 ㉡보다 ㉡에 더 강하게 흡착된다. ⑤ ㉠에 흡착되는 경우 흡착 세기가 너무 강하여 촉매 활성이 낮아지므로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가 아니라 ㉡이다.

### [12~17] 주제 통합

[12~17] 인문, (가)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 (나) 체험으로서의 지각

**지문해설** : (가)는 심리 철학의 동일론과 기능주의, 그리고 ‘설’의 기능주의 비판을 소개한 후, 인지 과정을 몸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므로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설’은 이러한 기능주의에 대해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동일한 기능이 구현되더라도 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이론은

---

모두 의식의 문제를 몸의 내부에 한정된 논의들이었다. 반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하나인 '인지'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하였다.

**[주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사고 실험과 달리 의식의 문제를 몸 바깥으로 확장시켜 이해한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의 의의

**지문해설 :** (나)는 객관주의 철학의 지각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지각은 몸의 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각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객관주의 철학의 한 입장은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 입장은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하여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처럼 객관주의 철학의 두 입장은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으로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지각의 얽힘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확정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주제]**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객관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과 몸의 체험으로서의 지각에 대한 주장

## 1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이때 기능이란 입력과 출력의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또한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즉 '설'은 의식과 기능이 같다는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지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거나,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4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이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 몸의 체험'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4문단에서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반응'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



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㉔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㉔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란 기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기능이 같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기능주의의 주장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같으면 의식 역시 같다는 것이지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력과 출력’이 ㉔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㉔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13.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는 기억이나 믿음과 같은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몸 외부로 확장된다고 본다. 따라서 로랜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고 해서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능이 같더라도 의식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았다. 따라서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중국어 방’ 안의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은 다르다고 볼 것이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랜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며,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따라서 로랜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파생적 상태라고 볼 것이다.

### 1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며,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지각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 따르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에 이어진 내용에서도 로랜즈는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인지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고 주체에 의해 인지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에 대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보아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처럼 객관주의 철학은 전자든 후자든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3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는 점에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주의 철학의 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의 필자는 이는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나)의 필자는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④ ㉠에 따르면 로랜즈는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적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확장적 인지 과정이란 외부의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즉 로랜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나)의 필자는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주체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그리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주체와 대상이 확정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지각의 얽힘은 곧 감각의 얽힘이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곧 지각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객

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감각을 사물로부터의 자극으로, 지각을 이에 대한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여 감각과 지각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감각과 지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며,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이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 모두 몸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나)의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식으로서의 주체를 전제하여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즉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즉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지만,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이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한편 <보기>의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지각한다. 따라서 암실 내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막대기의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이며, A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막대기의 진동 상태를 조작하여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인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막대기의 진동 상태가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을 기능으로 보며, 이때 기능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다. 또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 즉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대답, 즉 동일한 출력을 내놓는다면 기능이 동일하므로 A와 B의 의식 역시 차이가 없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에서 인지 과정이란 주체에게 믿음이나 기억과 같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가 생겨날 것이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따라서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한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지

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알아보다'는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을 지니므로,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의 '알아보다'와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단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의 '보다'는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② ㉔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을 지니지만,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의 '일어나다'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③ ㉔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⑤ ㉔의 '만지다'는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쥐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의 '만지다'는 '물건을 다루어 쓰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상사동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중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영영전」, 「회산군전」으로도 불리는 한문 애정 소설이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작품의 제목이자 배경인 '상사동'은 영영의 이모이자 김생을 도와주는 노파가 사는 동네의 지명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 김생과 궁녀 영영이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교적 현실성 있게 그려 낸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열렬한 사랑

## 18.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막동이 생에게 계책을 말하는 부분에서, '한 식경 후', '날이 저물 때쯤', '오늘', '내일', '다음 날', '그다음 날'과 같은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생이 노파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모월 모일', '그날'과 같은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생이 마음을 상심하며 애태우고 있는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막동이 생에게 계책을 말하는 부분에서 ‘~ 하시면 ~ 하지요.’, ‘~면 ~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과, 노파가 생에게 방법을 말하는 부분에서 ‘~한다면, ~있을 것입니다.’ 등과 같은 앞날의 일에 대한 가정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막동의 ‘낭군께선 늘 언행이 ~ 거침없으시더니’, 노파의 ‘자색이 고운 것은 ~ 다를 게 없지요.’ 등에서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노파가 ‘이 애는 회산군 ~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에서 인물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격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노파의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라는 말에서 회산군 맥 ‘부인’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 그치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는 생의 말이며, 노파가 이에 동의를 표하거나 스스로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막동이 생에게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막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생이 자신이 첫눈에 반한 남자에 대해 노파에게 말하자 노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가 ‘문득 깨닫고’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라고 말하였다.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며, 영영에 대해 ‘바로 죽은 제 ~ 자는 난향이죠.’, ‘이 애는 회산군 맥 ~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와 같이 자신이 아는 바를 생에게 알려 주었다. ⑤ 생이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천상의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은 ‘흉금을 털고 말하’게 되므로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 이루어지면 생은 영영과 만나려는 ‘낭군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생은 ㉠에 대해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내 일이 잘 되겠구나’라고 반응한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반응한다. 따라서 생은 ㉠과 ㉡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도모하는 일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은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을 실행하며 노파는 생에게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은 생을 위해 막동이 제안한 것이며, 생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은 생의 제안이 아니라 노파가 제안한 것이다. ⑤ ㉠에서 생은 ‘미인이 머문 집’의 주인인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손님’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내세운다. 그러나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노파가 죽은 언니의 제사상을 차리고 영영이 그곳에 오도록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을 뿐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노파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에 해당한다. 노파는 생과 영영의 만남을 돕기 위해 ‘단오’ 때, 죽은 언니의 제사상을 차려 영영이 제사에 올 수 있도록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듣고 생은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기뻐하며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생은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을 추구하면서 영영을 만나기 위해 막동과 노파의 제안에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생이 감정에 매우 충실한 성격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조적 인물인 막동과 노파는 주인공인 생과 영영이 애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생은 ‘길에서’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할멈의 집’까지 뒤따르는데, 이러한 공간은 모두 일상에 밀착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영영은 회산군 댁 시비로서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며, 노파는 생이 그녀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원인을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에서 찾아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22~26] 문학

[22-26] 갈래복합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나) 김낙행, '기취서행'

지문해설 : (가)는 총 19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사대부인 작가가 겪은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제2수>부터 <제7수>까지는 공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제8수>부터 <제13수>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후의 모습을, <제14수>부터 <제19수>까지는 내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공명과 은거 사이의 갈등과, 한가로운 강호의 삶에 대한 긍정

(나)의 글쓴이는 껍질을 벗긴 삼대인 겨릅을 더 가지고자 사람들과 이전투구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욕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쓴이는 탐욕에서 벗어나 본심을 회복했을 때의 상태를 대취했다가 술이 막 깬 때로 비유하고, 맹자와 이극이 한 말처럼 궁핍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살펴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 이욕에 사로 잡혀 의리를 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글쓴이는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잠시 잊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어조'를 대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조'를 한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화자는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워 세상일에 대해 번잡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는 성현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성현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D]에서는 취서사에서 겨릅을 구해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점층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드러낸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백세’는 백 년을 의미한다. 화자는 세월이 빠르니 백 년도 길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세’를 통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은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화자의 인생을 모두 포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충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십재(십 년)’는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만고’는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성현의 가신 길이 유구한 세월 동안 한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십 년 전’은 진세, 즉 번거로운 세속의 일에 대한 일념이 가득 차 있던 과거의 시절을 가리키므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충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충’의 실천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임천’으로 대변되는 삶, 즉 속세를 멀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과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제8수>의 ‘출’하는 것은 세속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므로 ‘너를 좇으려’했던 태도가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8수>의 명철 군자가 즐기는 ‘이것’은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하는 삶이다. ‘치군택민’은 ‘충’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즐기나니’에 <제1수>의 ‘이 두 일’ 즉 충과 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수>의 ‘절로 한가하였던 것은 화자가 아니라 무심한 어조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부러워하여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제3수>에서 물고기와



---

새의 한가로운 삶을 부러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17수>에서 화자는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현이 추구한 도가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제19수>의 ‘일념’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세를 지향하는 삶으로,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도와준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헛걸음하지 않고 겨릅을 얻어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욕’에 빠져 ‘의리’를 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반성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신이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두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할 줄 알았다면 아내가 자신에게 겨릅을 얻어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겨릅을 구해 오길 권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 유택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유택이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것이 ‘의리’에 부합하지 않고 ‘이욕’을 탐하는 행위라는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유택과 달리 유평은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행위에 대해 해 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이 ‘의리’를 심히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유평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도무지 할 일 없어’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은 겨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글쓴이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글쓴이는 궁핍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의 티끌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힘겹게 구해 온 겨릅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숨어 있거나(隱), 세상으로 나가거나(出) 도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여 성찰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최명익, '무성격자'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근대 지식인이 가진 내면 의식의 추이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경 유학생 출신의 교사인 주인공 정일은 현실적인 삶에서 무게와 고통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경멸의 대상이나 귀찮은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는 돈만 아는 속물로 경멸했던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인의 의의를 느낀다. 무성격한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주제]** 근대 지식인의 무성격한 모습

2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일이 경험하거나 감각한 일과 정일의 내면으로 사건의 양상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회상 장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판알, 도장, 물그릇, 어항 등의 사물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일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는 대목에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일의 반복적인 행동은 병을 앓는 아버지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2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용기를 못 내는 자기’와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모습을 정일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㉔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㉒는 용팔이 상속세를 물지 않을 방안을 정일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계산을 하며 상속세 물지 않을 궁리를 하는 용팔의 모습에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정일이 이러한 용팔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㉑ ㉒에서 용팔이 정일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㉑ ㉒에는 용팔이 정일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일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주시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㉑ ㉒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정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29.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A]에서 정일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의 언행을 접하며 불쾌함과 미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㉑을 일으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된다. [B]에서 정일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가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도록 ‘어항’을 늘어놓고, 아버지가 그로 인한 ㉑에도 만족하지 못하자 ‘흐르는 물’이 보일 수 있게 ‘드리우는 물줄기’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㉑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A]에서 정일이 용팔의 ‘웃음’을 미워하며 느낀 불쾌감으로 인해 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홀한 눈’은 ㉑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㉑ [A]에서 정일이 용팔에게 ‘도장’을 내어 준 후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㉑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아버지는 ㉑을 느끼려는 ‘동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㉑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㉑ [B]에서 ‘꺼멧게 탄 혀’는 심하게 앓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 주는데, 아버지는 ‘어항’이 환기하는 ㉑을 방편으로 삼아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정일이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정일의 ‘신경 쇠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신경 쇠약’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B]에서 아버지는 ‘심한 구역’ 이후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갈증을 ㉢을 통해서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은 용팔이 ‘공모’ 요구를 하며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에 정일이 느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팔이 정일에게 위임장을 내놓고 도장을 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자, 정일은 그러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고 불쾌감에서 비롯된 ‘심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일은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으면서도 용팔에게 도장을 건네다가 ‘실없이 웃’는 자신이 ‘더 심한 심열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일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정일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이를 속으로 ‘이 소인 놈!’이라고 하며 경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일은 용팔이 벌이는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불러내고 싶어하지만, 행동을 주저하며 붙잡지 않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팔이를 불러낼 기회를 놓친 것을 자신이 ‘정말 후회하’는지에 대해 자문하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 정일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과 달리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의지력’을 느낀다. 또한 그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정일은 아버지가 죽음과 싸우는 모습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눈을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주인공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조지훈, '맹세' / (나) 오규원, '봄'

**지문해설** : (가)는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에게 입은 '일월'처럼 '거룩한' 존재로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흰뺨이 되'었지만 부활 때까지, 또 '붉은 마음이 솟아 되'었다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입의 손길에 울고 입을 부르며 우는 모습도 입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작품은 이미지의 대비, 설의적 표현,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는 특징도 있다.

[주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

(나)는 표면적으로는 봄을 맞아 생명력 넘치는 주변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시인으로서 언어 사용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연에서는 언어를 통해 대상에 자유를 주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봄날에 보이는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은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대상으로, 자유로운 언어를 통해 대상을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2연에서는 봄이 자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언어와 대상이 모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려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언어의 한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언어 사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새로운 언어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처럼 촉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비는 입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것일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대상들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봄을 맞은 대상들의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에서 '~ 어찌하리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어떤 시련에도 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6연에서 '~ 지니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거룩한 입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② (가)는 4연에서 '사랑하는 것'을 모두 잃는 가

정의 상황을 통해, 9연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모두 잇는 가정의 상황을 통해 입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③ (나)는 ‘저기 저 ~, 저기 저’, ‘~은 내 언어의 ~고, ~은 내 언어의 ~고’, ‘~고 싶은 놈 ~고, ~고 싶은 놈 ~고’처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쉼표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운율을 느끼도록 한다. ⑤ (가)는 5연과 10연에 ‘나는 울어라’를 반복하여 부재 하는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는 1연의 끝 문장인 ‘그래 봄이다’와 2연의 첫 문장인 ‘봄은 자유다’에 공통적으로 ‘봄’이라는 시어를 넣어 ‘봄’이 곧 자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아픈 가락’은 화자가 입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리 가락이다. 그런데 이 노랫가락을 내는 피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 난 대나무로 만든 것이므로, 이 가락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가락에 ‘아프’고 ‘사모침’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가락에 설움이 담겨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6연에서 화자는 입에게 자랑과 선물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픈 가락’에 입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나무에는 의로운 사람의 피가 스며 있는데, 이는 입의 뜻이 아니라 화자의 뜻이 대나무에 서려 있음을 나타내며 화자를 질책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흐느끼는 피리의 아픈 가락에 입이 호응해 주기를 바랄 뿐, 입이 이 가락에 호응해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입이 구천에 사무친 피리 소리를 듣기 바란다.

###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9연에 나오는 ‘붉은 마음’은 부재하는 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마음이 솟아 되었다가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못 잊겠다는 것은 영원히 입을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 봄날의 ‘담벽’은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처럼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주변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지금 세상이 ‘어둠’에 놓여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해돋는 아침’과 같은 밝은 세상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봄을 맞아 자신과 모든 대상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 대상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유를 얻은 ‘담벽, 라일락, 별, 개똥’이다. 따라서 ‘자유

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의 대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하다고 여겨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저 담벽'이 '서고', '저 라일락'이 '꽃이 되고', '저 별'이 '반짝이고', '저 우리 집 개의 똥'이 구르는 모습에 주목해 각각의 대상이 지닌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창백한 꽃송이'를 위해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겠다는 것은 꽃송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화자는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는 것처럼 대상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여 마침내 이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뛰'며 자유를 누리려 하고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이 작품을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본다면, 2연의 처음에 나오는 '봄은 자유다'라고 한 후 ㉠에서 봄을 '지옥이라고 하자.'는 것은 '봄'을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은 언어에 의해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 언어와 대상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 하나'라는 대상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이 언어에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따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② ㉢은 표현할 대상에 자유를 주기 위해 이를 표현할 언어에도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언어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은 언어와 상관없이 대상은 변하지 않으므로 언어로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⑤ ㉤은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났을 때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 자신이 규정한 의미에 따라 대상이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⑤ 41. ① 42. ④ 43. ② 44. ⑤  
45. ③

[35~37] 화법

35. 강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강연자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책 보따리를 들고 다녔기에 ‘주 보따리’로 불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었던 주시경 선생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화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현배 선생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검열을 피해 솜옷 속에 쪽지를 숨겨 놓으며 한글을 연구했다는 이야기도 한글 연구에 대해 굳은 의지가 있었던 최현배 선생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③ 강연자는 한글 교육과 연구에 힘쓴 주시경, 최현배 선생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자인 최현배 선생이 스승인 주시경 선생의 길을 따랐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두 인물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④ 강연자는 강연의 도입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여 화제인 주시경, 최현배 선생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화제를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지 화제를 다른 것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⑤ 강연자가 강연을 시작할 때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는 부분은 없다.

36. 강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강연자는 한 손을 올렸다 내리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그러나 강연에서 최현배 선생이 남긴 말을 인용한 부분은 없으므로,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강연자는 한글 창제 이야기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한글 대중화에 힘쓴 주시경, 최현배 선생을 강연의 화제로 선정했다. ② 강연자는 최현배 선생의 대표 저서인 『한글갈』을 소개할 때, 청중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우리말 ‘갈’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했다. ③ 강연자는 강연 내용에 관심 있는 청중이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두 인물의 대표 저서, 주시경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최현배 선생



에 대한 자료가 있는 △△ 기념관 누리집을 안내했다. ④ 강연자는 강연의 도입 부분에서 주시경, 최현배 선생이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런 뒤 최현배 선생을 소개할 때 두 인물이 사제 간이라는 답을 제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37. 강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청중 2는 자신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맡았음을 밝히며 강연 내용이 발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청중 1은 강연을 통해 한글 학회의 출발점이 국어 연구 학회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강연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연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청중 3은 강연에서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소개할 때 제목만 알려 주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 하고 있다. 이는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지만,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것은 아니다. ④ 청중 1은 한글 학회의 출발점이 국어 연구 학회였음을 알게 되었다며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청중 3도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청중 3은 강연에서 언급된 주시경 선생의 저서 제목과 관련하여, 저서들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청중 2는 강연에서 최현배 선생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며 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발표에 활용하려고 할 뿐, 강연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지는 않다.

### [38~42] 화법 + 작문

### 38. 토론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찬성 1은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초보 운전과 관련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여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찬성 1은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초보 운전자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기준 1년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반대 측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찬성 1은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일본의 초보 운전 표지 의무 부착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지만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찬성 1은 최근 '초보인데 보태 준 거 있어?'라는 표지를 커다랗게 붙인 차를 봤던 특정 경험을 활용하여 표지의 내용과 형식을 자율에 맡겨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경험을 활용해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찬성 1은 논의의 배경으로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초보 운전자의 정의만으로는 면허 취득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39. 토론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은 초보 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면 경력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는 태도로 운전할 수 있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에서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묻고 있다. 이는 경력 운전자들의 실제 태도가 상대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상대의 주장이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입론에서 찬성 측은 초보 운전자가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 근거로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이 전체 운전자의 평균에 비해 18%p 높다는 통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에서 통계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 이는 상대가 근거로 인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출처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② 입론에서 찬성 측은 초보 운전자가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표지 부착 의무화는 초보 운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에서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표지 부착 의무화가 운전 미숙을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려는 질문이다. ④ 입론에서 찬성 측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해 초보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에서 제도 도입으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용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⑤ 입론에서 찬성 측은 국가 차원에서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해 초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에서 표지 의무화는 제재를 가한다는

---

뜻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묻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 40. 토론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나)에서는 초보 운전자 대부분이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 자료를 스크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언급하며,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는 비용이 발생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설문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표지를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데 국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규격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반대 측이 표지 교체 비용을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초보 스티커, 되레 난폭 운전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표지 부착 부작용 사례를 다룬 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집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인터넷 신문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표지 부착 의무화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임시 면허 기간을 두어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이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문 자료를 찾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논문 자료에 제시된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 교통 문화 지수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운전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표지 부착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보도 자료에 제시된 교통 문화 지수의 상승 추세를 바탕으로, 운전 문화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표지 부착 의무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저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표지 규격화가 개성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규격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41. 성찰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는 토론의 논제를 보고 자신도 내년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겼다면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하지만 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밝히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는 먼저 쟁점을 분석한 후 주장할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에는 근거 자료를 마련했으며, 그다음 날에는 친구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았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③ 2문단에서는 인터넷에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과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고, 관련 기관에 메일로 요청하여 보도 자료를 받았으며,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고 설문 결과를 스크랩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론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④ 3문단에서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 편이라 걱정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전처럼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그 덕분에 토론에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말하기 불안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 것이다. ⑤ 3문단에서는 토론 후 상호 평가를 해 보니,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한 반면 자신은 찬성 측 반론을 미흡하게 반박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는 친구와 자신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다.

#### 42. 성찰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A]에는 토론을 준비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을 깨달은 내용만 제시되었지만, 고쳐 쓴 내용에는 토론 중 상대의 발언을 잘 듣고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도 함께 제시해 보라는 조언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토론의 경쟁적 속성이 지닌 장점에 대한 내용은 [A]에서 확인할 수 없고 고쳐 쓴 글에서도 단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고쳐 쓴 내용에는 토론을 통해 배운 점이 제시되었을 뿐, 토론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보완할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고쳐 쓴 내용에는 토론 중 겪은 어려움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고쳐 쓴 내용에는 토론을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 조사와 말하기 연습을 했다는 점이 제시되었을 뿐, 협력하며 준비하는 토론의 가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43~45] 작문

#### 43. 설득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초고’의 4문단에는 학교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언급되어 있다. 글쓴이는 기대되는 효과로 ‘나의 생각은 커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과 ‘학업에도 더욱 열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학교 공간이 학습을 위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러한 실태를 부각하기 위해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공간의 구조를 비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문단에서 학교에는 지적 성장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교의 기능이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는 내용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3층과 4층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편 끝 교실을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 4층 교실, 3문단에서는 3층 교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공간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44.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ㄴ에서는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을 통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ㄷ-2에서는 청소년기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색의 대비, 부분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고 부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ㄱ에서는 38.0%의 학생들이 조용한 휴식 공간을, 32.0%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친교 공간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은 1문단에서 학습 이외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ㄷ-1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 사용과 천연 소재 소품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ㄷ-1은 2문단에서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③ ㄷ-2에서는 청소년기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동식 가구를 이용하면 그러한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ㄷ-2는 3문단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④ ㄴ에서는 투명한 유리 재료를 이용하면 시각적 확장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진다고 하였

---

다. 그리고 ㄷ-1에서는 창을 통해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을 늘림으로써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ㄴ과 ㄷ-1은 2문단에서 통창 설치를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45.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편집부장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3편>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자고 하였다. <3편> 부제에서는 학생 주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은 편집부장이 주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습 공간 외에 사색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 적절하다. ② 공간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는 적절하다. ④ 국내외의 많은 학교들이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3편>의 표제와 부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는 적절하다. ⑤ 학생들이 공간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3편>의 부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는 적절하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⑤ 37. ② 38. ④ 39. ④ 40. ② 41.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①

[35~36] 언어

[35~36]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및 부사격 조사가 쓰이는 일반적인 양상과 예외적인 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선행 체언에 따라 달리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후행하는 용언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어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일반적인 결합 원칙에서 벗어나서 쓰인 사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선행 체언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양상을 설명하며, 특히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는 ‘애/에/예’가 아닌 ‘이/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부사격 조사가 있음을 ‘이그에(에게)’와 ‘스끼(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예외적 사용 양상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의 ‘나조히(나조ㅎ + 이)’는 ‘저녁의’가 아니라 ‘저녁에’로 해석된다. 이때의 ‘이’는 일부 특수한 체언들과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뉘’의 끝음절 ‘꺠’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되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 ‘애/에’가 아닌 ‘예’가 쓰인 경우이다. 참고로, 중세 국어의 ‘꺠, 꺠, 꺠, 꺠’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중 모음이였다. ② ㉢의 ‘우ㅎ’는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우희’가 된다. ④ ㉣의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이’에 ‘그에’가 결합되어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라고 3문단에서 설명하였다. ⑤ ㉤의 ‘께’는 중세 국어 ‘스끼’가 현대 국어로 이어진 것임을 중세 국어에서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 ‘스끼’가 쓰였다는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1문단의 설명을 통해서도 ‘께’가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이그에(에게)’에서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이’가 분석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 36.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공자의 남기신 글’은 ‘공자가 남기신 글’이라는 의미이므로 ‘孔子(공자)의’는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다. ‘孔子(공자)’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스’이 결합하여야 하지만 ‘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예외적 결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플’이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다. ② ‘눔’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③ ‘世界(세계)스’를 ‘보샤’의 의미상 주어로 볼 수 없다. 또한 ‘世界(세계)’가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름’이 ‘잇논’의 의미상 주어이기는 하지만, ‘사름’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이 아니다.

### 37.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선생님께서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고, ‘살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 ㉢가 모두 실현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는 ‘-니다’를 통해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라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연결 어미 ‘-으므로’가 쓰인 이어진문장으로, 안긴문장은 없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않았다. ④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에서는 안긴문장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가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었-’을 통해 이 문장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않았다. ⑤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에서 안은문장 전체의 서술어 ‘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참고로 안긴문장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의 서술어 ‘받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기능한다.

###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단어[표준 발음]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넓디넓다[널띠널따]	×	○	○
높푸르다[놉푸르다]	○	×	×
늦깎이[늘까끼]	○	×	×
닭갈비[닥갈비]	×	○	○
쑥대밭[쑥대받]	○	×	○
앞장서다[압짱서다]	○	×	○
웁다[읍따]	○	○	○
있다[일따]	○	×	○
짓밟다[질뽱따]	○	○	○
흙빛[흑뽁]	○	○	○

따라서 ㉠, ㉡, ㉢가 모두 일어나는 ㉡로 분류되는 단어는 ‘웁다[읍따], 짓밟다[질뽱따], 흙빛[흑뽁]’이고, ㉠, ㉢가 일어나는 ㉠로 분류되는 단어는 ‘쑥대밭[쑥대받], 앞장서다[압짱서다], 있다[일따]’이다.

정답 ④

### 39.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의 ‘왔어’는 정수가 화자인 민수가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만 ㉡의 ‘왔었구나’는 정수가 화자인 희철이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내일’과 ㉡의 ‘어제’는 둘 다 발화 시점에 따라 언제인지가 결정된다. ② ㉠의 ‘네 말’은 이전 발화를 가리킴에 비해 ㉡의 ‘저기 저’는 ‘○○ 서점’을 가리킨다. ③ ㉠의 ‘정수’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고정되지만 ㉡의 ‘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결정된다. ⑤ ㉠의 ‘우리’는 ‘민수, 희철’을 가리키고 ㉡의 ‘우리’는 ‘기영, 민수, 희철’을 가리킨다.

### [40~43] 매체

### 40.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

정답해설 : 주로 음성 언어로 전달되는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는 이러한 청취자를 위하여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지난주부터 ~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를 통해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섯 번째 발화 중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를 통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일곱 번째 발화 중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 손잡이가 있습니다.’를 통해 청각적 정보만 접하는 수용자를 위해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 물으시네요. ~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와 다섯 번째 발화 중 ‘실시간 댓글로 ~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를 통해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여행가의 다섯 번째 발화 중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듣고 진행자는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라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에서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다는 글을 쓴 ‘새달’은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달’이 이해한 바를 ‘알콩’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으며, ‘사슴’은 스탬프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과 ‘사슴’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아쉬운 마음을 담아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감정에 ‘알콩’과 ‘사슴’이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콩’이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사슴’은 ‘알콩’의 말에 동조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은 여행가의 말 중에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를 가져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제목은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를 다룬 ㉡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

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②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 순서가 화살표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③ ㉡에는 여행의 순서가 글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림으로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④ ㉢에는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 등 여행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말씀드린’에 쓰인 ‘말씀’은 화자인 여행가가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와 같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에도 ‘말씀’이 쓰이지만 ㉣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시작합니다’에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따라서 진행자가 방송을 (보고) 듣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모셨습니다’에는 특수 어휘 ‘모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객체인 ‘여행가 안○○ 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 ㉢의 ‘선택하셔서’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는데, 이는 ‘선택’의 주체가 방송을 보고 듣는 청자들임을 고려한 높임 표현이다. ④ ㉣의 ‘있으시답니다’에는 ‘있으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높임 대상과 관련되는 ‘궁금증’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 [44~45] 매체

####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정답해설 :** (가)의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휴대 전화의 메뉴 중에서 선택해야 할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따라서 앱에 기록할 정보(성별, 키 등)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 기기 구성 정보’에서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기기의 구성 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②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였다. ④ ‘3.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의 항목

---

을 나열하여 배치하고, 궁금한 내용은 해당 기능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사용 설명서의 하단에는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와 수정 시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4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활용

**정답해설 :** (나)의 '2023년 4월 15일' 대화에서 '시윤'은 '할머니'에게 (가)의 내용 중 '4. 기타 안내'에 있는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고 따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6일' 대화에서 '시윤'은 (가)의 내용 중 '3. 기기 기능 안내'의 '자동 누적 기록'과 관련한 기능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할머니'와 '시윤'이 주고받은 내용에서 (가)의 수정 과정과 관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성을 지닌 매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가)의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과 '4. 기타 안내'를 통해, (가)도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023년 5월 6일' 대화를 보면 '시윤'이 '2023년 4월 15일' 대화 중 '할머니'가 쓴 글의 내용을 불러와 그 글에 [답장]을 다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이전 내용을 환기하였다. (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 [공통: 독서·문학]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⑤ 19. ② 20. ③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①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①

[1~3] 독서

[1~3] 독서 이론, ‘읽기 준비 단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했을 때,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읽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양상,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읽기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읽기 발달은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읽기 발달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제]** 읽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양상과 그 경험의 중요성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영·유아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각 영역이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는 것은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③ 2문단에서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듯이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라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

---

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에서 영·유아는 ‘읽는 흉내’를 낼 뿐,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글자를 읽지는 못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거리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두 내용을 비교해 볼 때,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보기>에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가 이러한 읽기 지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A]이다. ④ <보기>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A]에서는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다. ⑤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에는 <보기>만 해당한다.

#### [4~7] 독서

#### [4~7] 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소개한 후, 최근에 논의의 중심이 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주제]**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에 대한 논의와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따른 변화

####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현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이 ‘개인의 데이터’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며, 빅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후자(소유권의 주체를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⑤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였다.

#### 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A]에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B]에는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나타나 있다.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데이터 이동권에 따른 데이터 전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은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②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고,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은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B]에서는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④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보기>의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므로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은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며,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데이터 이용권의 도입에 따라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후자(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라고 하였다.

## 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쉬워져)는 ‘하기가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따라)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용이(容易)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거(根據)하다’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 ‘용이(容易)해져’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는 ‘근거(根據)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유력(有力)하다’는 ‘세력이나 재산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 ‘유력(有力)해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③ ‘의탁(依託)하다’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는 ‘의탁(依託)하여’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④ ‘원활(圓滑)하다’는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와 ‘거침이 없이 잘 나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 ‘원활(圓滑)해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는 ‘의탁(依託)하여’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⑤ ㉠은 ‘유력(有力)해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러나 ‘기초(基礎)하다’는 ‘근거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는 ‘기초(基礎)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8~11] 독서

[8-11] 과학·기술,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그 응용’

**지문해설** : 이 글은 압전 효과에 기반을 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하여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한 후, 이 원리를 응용하여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압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인 수정을 가공하고 전극을 만든 후에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의 전압을 가하여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수정 진동자는 질량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미세한 질량을 갖는 물질이 달라붙어도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러한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응용하면 수정 진동자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주파수가 많이 감소하여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주제]** 압전 효과를 이용한 미세 물질의 질량 측정과 기체 농도의 측정 원리

## 8.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제시한 후, 3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4, 5문단에서는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압전체인 수정을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압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 자체를 제작하는 방법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② 2문단에서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나누어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은 없다. ④ 2문단에 압전 효과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을 뿐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3문단에서는 고유 주파수, 질량 민감도 등의 개념을 통해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9.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압전체로는 수정이 주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든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미세 질량을 측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1문단에서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에서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가하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을 압전체인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압전체의 진동 폭이 커지지만, 고유 주파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주파수는 진동 폭이 아니라 진동 횟수와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수정이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에 수정이 쓰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때, ㉠에서는 전압으로 인해 압전체인 수정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3문단에서 수정을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 수정 진동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이 수정이 사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원리로 질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는 물질의 양에 따라 주파수의 감소 정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농도에 따라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하여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감소 정도는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크다. 따라서 <보기>에서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면,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

붙지 않았을 때보다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크게 감소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보다 더 작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없다. ③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것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통해 특정 기체의 농도를 알기 위함이다. <보기>에서 A와 B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어 농도의 민감도를 구한다. 따라서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농도에 대한 민감도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는 반응 시간이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B의 반응 시간이 A의 반응 시간보다 더 짧다.

[12~17] 독서

[12~17] 인문, (가)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 (나)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지문해설 : (가)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양천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노비의 경우 도망과 속량의 방법으로 천인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들은 유학(幼學) 직역을 얻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음에도 이들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이는 조선 후기에 비양반층이 양반층으로 편입하려는 힘과 이를 막으려는 양반층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와 유학의 증가 현상

지문해설 : (나)는 도덕적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유형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형원은 신분 세습을 비판하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는 공거제를 주장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사농공

---

상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하고, 도덕적 능력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選士)를 선발한 후 이들 중 관료를 선발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비제는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둘은 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지배층을 재구성하여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제]** 도덕적 능력주의를 통해 도덕적 이상 사회를 추구했던 유형원과 정약용의 개혁론

##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이다.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양인 내부의 분화된 신분과 관련되므로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속량의 제도화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노비들은 양인이 가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의 법적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법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유학이 되면 균역을 면제 받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게 되면 균역 면제라는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13.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로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유형원과 정약용이 모두 예비 관료를 추천으로 선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약용은 예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선사를 교육한 후 관료로 바로 임명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선사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비도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자 하였다. 이 직업군은 유형원이 구상한 도덕 국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유형원과 정약용 모두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하였다.

#### 1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신분과 상관없이 도덕적 능력이 우수하다면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므로, 능력주의에 따라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일부 상민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학 직역을 획득하는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정약용이 제시한 개혁안의 세부 내용으로, ㉠과 같은 장치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일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획득하는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재편된 사 집단의 거주지에 더 많은 선사를 배정하는 것이고, 다른 직업의 거주지에도 선사를 배정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정약용이 이를 기존 양반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 신분 구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는 하나,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보다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비양반층의 신분 상승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선발하여 지배층을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지 지배층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 ⑤ 조선 후기에 양반층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양반층의

---

특권이 사라져 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 양반층의 특권이 사라져 가는 상황을 반영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은 유형원이 신분 세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 1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ㄱ은 사농공상의 사민 체제에서 지배층인 사가 도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므로 유형원, 정약용의 입장과 부합한다. ㄴ은 농민도 도덕적 능력이 있다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유형원, 정약용의 입장과 부합한다. ㄷ은 도덕적 능력으로 인재를 판정하고 모든 이에게 관료가 될 기회를 열어 둔다는 점에서 유형원의 입장과 부합하지만, 노비에게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 정약용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ㄹ에서 양반과 상민이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능력주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체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약용은 ㄱ에는 동의하지만 ㄷ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형원은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② 유형원은 ㄴ, ㄷ 모두 동의할 것이다.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며,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④ 정약용은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유토피아에서는 학자 계급과 노동 계급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진다. 또한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여야 하며,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승격'이라는 표현에서 두 계급 간 차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두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유형원과 정약용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였고, 사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학자 계급이다. 이들은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선발의 과정을 거쳐 될 수 있다. (나)의 선사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지만 (가)의 유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자 계급의 성격은 유학보다 선사에 가깝다.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학자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학자 계급은 노동을 면제받지만,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특권이 세습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16세기 이후의 양반은 세습적으로 균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

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특권의 세습 측면에서 유토피아의 관료가 16세기 이후의 양반과 다르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자 계급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유형원, 정약용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토피아의 권력 체제와 유형원, 정약용이 구상한 권력 체제가 유사점이 있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성직자의 추천과 대표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유학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과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의 의미로, ‘~으로’와 함께 쓰인다. 문장의 맥락과 ‘가훈으로’라는 부사어를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와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닐 만큼 단단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닐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숙영낭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안동의 한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고전소설이다.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백선군과 사랑하게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지만, 부활하여 선군과 함께 승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효를 요구하는 부모와 그에 맞서 부부의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의 모습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의 현실적 장애를 넘어선 남녀의 사랑

###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춘양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하며, ‘아버님 편지가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



동으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양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고 어머니 영전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춘양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언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해 답답해한다. 이를 통해, 춘양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춘양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주기를 요청할 뿐,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④ 춘양은 동생인 ‘동춘을 안고’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갔으며, 동춘은 ‘젓 먹자고’ 울 뿐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거나 이를 춘양이 막아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선군은 ‘태산 같은 정이 ~ 볼 수 없고’라며,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그사이 부모님께서서는 평안하셨나이까?’라며 받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③ [B]에서 글쓴이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그림이 전과 ~ 달라 날로 변하’는 것을 보고 짐작을 통해 받는 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남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라고 하며 상대방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었음을 말하면서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만, [A]에서는 ‘천은을 입’었다고 말할 뿐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는 않는다. ⑤ [B]에서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라면서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내용이 나오지만, [A]에서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전할 뿐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당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숙영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영이 ‘너무 한탄치’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돌아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㉓: 정 씨는 편지의 수신인이 '네 어미'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상대에게 '잘 간수 하라'면서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② ㉔: 정 씨는 '춘야아', '동춘아'라고 손주들을 호명하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할 만큼 격해진 감정과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라며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④ ㉕: 속영은 옥황상제의 '올라오라'는 부름에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예정된 이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㉖: 속영은 부모가 춥지 않게 지내고 기운이 불편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마음으로 '백세 무양'을 기원하며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하고 있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속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하는 것은 선군이 부모와의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했을 뿐이지, 속영 부부가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속영 부부는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며 '세상 연분이 다하였'다고 말하면서 승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속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것은 속영 부부가 먼저 천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부모님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 부모님을 천상으로 모셔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화궁에서 속영과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속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속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영이 선군에게 인간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재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영 부부의 승천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속영 부부를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인 가문이라는 명분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천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속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 준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속영 부부가 '천궁에 올라간 후', 상공 부부가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가문의 명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공 부부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22-27] 갈래 복합 (가) 박용래, '월훈' / (나) 김영랑, '연1' / (다) 서영보, '문의당기'  
지문해설 : (가)는 적막한 산골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절절한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노인이 사는 곳과 노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인은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갱 속 같은 마을'의 '외딴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곳으로 노인이 세상과 고립된 채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아 먹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무료함과 고독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름 모를 새'와 '귀뚜라미', 달무리가 비치는 시적 분위기도 이러한 노인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나)는 '연'을 매개로 하여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을 보며 '아스플'한 유년 시절을 반추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가 회상한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외로이 자랐다', '눈물이 고이었던'다는 시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외롭고 슬픈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화자에게 유년 시절은 늘 위태로웠고, 무언가를 상실했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파랑'게 보이는 '하늘'과 '흰 연', '하얀 옷', '하얀 냇'과 '붉은 발자욱'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슬프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회상

(다)는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은 것과 관련하여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었다고 밝히며, 글쓴이에게 이 집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글쓴이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배를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섬사람이므로, 물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늘 물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다 물을 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상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갱 속 같은 마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등은 노인이 사는 곳을 묘사한 것으로,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

---

의 2연은 하늘을 날고 있는 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으로, 연이 위태롭게 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넘실거리는 큰 바다 ~ 듯했습니다.’는 ‘천하의 지도’를 묘사한 것으로, 천하만국이 물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이와 같은 이치를 ~ 의심을 품겠소?’는 설의적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위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에서는 신위와 ‘나’가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나)에는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에는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회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가), (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⑤ (가)에는 겨울 귀뚜라미가 떼를 지어 우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았다. (나)에는 가상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다)에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을 통해 가상의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척척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것은 노인이 사는 마을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은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는 모두 시골의 정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은 <보기>의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는 <보기>의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24.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4연에서 ‘하얀 냇’은 ‘외로이 자랐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의 화자가 느낀 외로움과 연관된다. ‘붉은 발자욱’ 역시 ‘눈물이 고이었었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

절 화자가 느꼈을 슬픔과 연관된다. 이처럼 ‘하얀 냇’과 ‘붉은 발자욱’은 모두 애상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슬한 하늘에 뜬 연’, ‘바람에 깎박이는 연실’에 빗대어 ‘아슴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연실’의 긴장을 보며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3연에서 연실이 ‘끊어’져 울었던 상황과 연결되므로 정서의 고조를 유발한 것이다. ③ 3연에서는 ‘울다’를 반복하고 있고, 4연에서는 ‘눈물이 고이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내 어린 날’이 힘들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2연에서 화자는 연을 보며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데, 1연과 4연에서는 그 시절에 대한 인상과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아실아실’은 위태로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로, 너무 높이 떠 오른 연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산속 마을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음을 함축하고 있다. ② ㉡은 처마 곁에 나래를 묻는 새가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은 흰 빛깔이 보일 듯 말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끊어진 연줄을 보며 서러워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은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외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집 이름을 ‘문의’라고 하였고, ‘나’도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는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두 상황 모두 결국 물 가운데 사는 것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위는 자신이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하의 지도’를 보고 자신이 물 가운데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③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물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사람들이 ‘산에 산다’고 하지 않고 ‘물에 산다’고 하

는 예를 들어, 신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나 신위가 물을 보지 못하므로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 두 경우를 의미하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과 ‘천 리를 간 것’이 ‘매한가지라 할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나’는 이를 통해 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다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물에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노인이 무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노인이 먹는 음식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천하의 지도’에 그려진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물에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지만,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모두 ‘작은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두 소재는 대립이 아니라 유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8~31] 문학 ‘현대 소설’

#### [28-31] 현대 소설 - 양귀자, ‘월미동 시인’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의 『월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월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나’는 김 반장이 ‘그날 밤’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김 반장이 몽달 씨를 매정하게 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으며 김 반장네 가게의 음료수 박스들을 쟁여 놓는 일을 하는 모습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몽달 씨가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난 후, ‘나’를 대하는 김 반장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김 반장이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김 반장을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 반장은 선옥이 언니가 떠난 후 ‘나’를 다소 통명스럽게 대하였지만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④ ‘나’는 선옥이 언니의 예쁜 얼굴에 대해 평가하며,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지지리 궁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나’가 집안 형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몽달 씨가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엄연히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나’는 김 반장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하고 있는 몽달 씨를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몽달 씨를 친구로 생각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 2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몽달 씨는 ‘나’가 ㉔를 말하자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김 반장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몽달 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㉑와 같은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러므로 ㉑는 김 반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몽달 씨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㉑ ㉔는 몽달 씨가 그동안 시를 자주 읽곤 하였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이 시를 읽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못마땅함이 투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㉔를 고려할 때, ㉔는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한 몽달 씨의 상태에 대한 ‘나’의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㉒ 몽달 씨는 ㉒와 같은 말을 건네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몽달 씨는 ㉒에서 자신이 시를 읽으며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몽달 씨는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㉓ ‘나’는 김 반장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몽달 씨가 ㉓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듣고 그의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몽달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새로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㉔와 같은 말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 ㉕ 몽달 씨는 ‘나’가 ㉖와 같은 말을 건네자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몽달 씨의 반응에 대해 ㉗와 같은 말을 하며 다그침으로써 몽달 씨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여기’는 김 반장네 가게 앞에 있는 비치파라솔로, ‘나’는 ‘여기’에서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은 ‘나’와 김 반장이 재미있게 지내다가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며 김 반장의 태도가 다소 통명스러워졌던 시점으로, ‘나’가 김 반장을 친구라고 여기던 시간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가 몽달 씨에게 건넨 말에 따르면, ‘나’는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보고 김 반장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김 반장을 친구로 생각하던 ‘요즘’ 이후에 벌어진 것이며, 김 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나’는 김 반장을 친구로 여기고, ‘매일같이’ 재미있게 낄낄거리는 행동을 했었지만,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보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리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자신에 대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㉒ ‘나’는 김 반장이 ‘요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통명스러워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가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 글에서 김 반장이 ‘나’에게 반성을 유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㉓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를 한 것은 김 반장네 가게의 음료수 박스들을 나를 때이며, 이는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것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 행위는 아니다. ㉔ ‘나’는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던 몽달 씨가 일상으로 돌아와, ‘의자’에서 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몽달 씨의 행위가 ‘그날’ 김 반장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몽달 씨가 ‘의자’에서 시를 읽는 행위가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1.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서술자인 ‘나’는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통해 몽달 씨가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판단은 독자들로 하여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상력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서술자인 ‘나’를 의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선옥이 언니와 좋아지냈던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자 동생인 ‘나’에게 다소 투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㉑의 내용은 개연성과 합리성이 높아,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㉒에는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속한 몽달 씨의 안색과, 그러한 안색을 갖게 된 이유로 실컷 두들겨 맞아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㉒의 내용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㉓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나’, 즉 서술자가 논리적, 사실적 관계를 따져 보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몽달 씨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이처럼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이 강화되어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되면, 독자는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고 작품을 더욱 집중하여 읽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㉔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나’가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몽달 씨가 시를 읽는 행위를 비난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태도와 행동은 <보기>에서 언급한 합리성이 부족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성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정철, ‘성산별곡’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가) 정철, ‘성산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정철이 벼슬길에 나서기 전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 있는 서하당과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 주인에 해당되는 김성원 등의 은거와 풍류 생활을 예찬한 가사 작품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산 주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 자신으로 추정되는 손님과 김성원으로 추정되는 주인의 문답 형식을 빌려 성산의 외적인 생활 환경과 내적인 정신세계를 그려냈다.

[주제] 성산에 묻혀 사는 삶의 흥취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꿩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는 일상적 삶의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생매를 풀어 꿩을 사냥하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동감 넘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화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는 자신을 산중호걸이라 표현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꿩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초장에서 ‘활활 살살’은 말을 솔직하는 종의 행위를, ‘꽝꽝쌩쌩’은 말뚝 박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으며, 중장에서 ‘주섬주섬’, ‘와지끈 똑딱’, ‘주루룩’, ‘너슬너슬’ 등은 물고기를 잡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정경의 변화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에서는 두 개의 개별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 이동의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생매를 이용하여 꿩 사냥을 한 후 여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현과 호걸은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의 중장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고기들을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심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담담한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덮인 것은 ‘삭풍’이 불어 공산에 쌓인

가을 잎을 쓸고 간 이후이므로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로, 화자는 경요굴 숨은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성산의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산의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만고 인물’을 거슬러 생각하며 시운의 흥망에 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산중에 벗이 없’는 적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지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생매’는 꿩 사냥에 동원된 새인 ‘매’를 가리키므로 이를 고고한 취향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학’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고기’는 앞내 여울과 뒷내 여울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로 화자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움버들 가지에 꿰어 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소선’과 ‘적선’은 각각 소동파와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로 청정한 강호의 세계인 성산에서 떠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학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아오거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 말하고 있다. 화자는 뒷내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므로 ‘선관’은 화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려 하는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산옹’은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인 김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초장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세상사는 구름처럼 험하다고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동자에게 학을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으면 술을 가져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술병’은 물고기를 잡는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로 볼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④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⑤  
45. ⑤

[35~36] 화법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을 제시할 뿐 그 제시 순서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1문단에서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라고 청중에게 묻고 있다. 이는 발표에 대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③ 발표자는 2문단에서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청중에게 묻고 있다. 이는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이다. ④ 발표자는 2문단에서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 작용에는 곰팡이의 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균사는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중이 균사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균사의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⑤ 발표자는 2문단에서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곰팡이의 균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균사의 모양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일상적 소재인 실의 모양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또한 3문단에서 식물 뿌리와 연결된 곰팡이의 균사는 양분이 오가는 통로가 되어, 마치 서로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균사의 역할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일상적 소재인 다리의 역할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화면 2]는 식물 뿌리와 곰팡이 사이에 양분이 오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발표자는 3문단에서 식물 뿌리와 연결된 곰팡이의 균사가 양분이 오가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한 뒤, 화면을 제시하여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도 곰팡이로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화면 2]가 ㉠에 제시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면 1]은 식물 뿌리를 균사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발표자는 이 화면을 ㉡에 제시하여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곰팡이의 균사라고 설명한 뒤, 균사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② [화면 1]은 균사가 식물 뿌리를 실처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된 자료이다. 3문단에서 식물과 식물을 연결한 균사를 통해 양분이 식물 간에 전달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화면 1]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③ [화면 2]는 식물 뿌리와 곰팡이 사이에 양분이 오간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2문단에서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했지만, 이는 [화면 1]을 ㉠에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지 [화면 2]를 ㉡에 제시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⑤ [화면 3]은 곰팡이에 따라 균사가 식물 뿌리와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발표자는 이 화면을 ㉡에 제시하여 화면의 왼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로 들어가는 곰팡이가 있고, 화면의 오른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의 겉면이나 식물 뿌리 세포를 감싸는 곰팡이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문단에서 균사가 땅속에서 퍼져 나가면서 주변에 서식하는 여러 식물의 뿌리들을 연결할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이는 [화면 3]을 ㉡에 제시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질문을 듣고 곰팡이나 식물에 눈이 있어 서로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곰팡이와 식물 뿌리는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아 상대를 자기 쪽으로 유인하여 만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곰팡이의 균사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식물 뿌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3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의 식물 뿌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의 답변에서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② 발표자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발표자의 답변에서 곰팡이가 식물 이외에 다른 생물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④ 발표자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는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발표자의 답변에서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⑤ 발표자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아 상대를 자기 쪽으로 유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발표자의 답변에서 곰팡이와 연결된 식물 뿌리가 그렇지 않은 식물 뿌리보다 빨리 성장하는지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 38. 대담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B]에서 진행자는 앞서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박물관의 공간 구성에 대해 밝힌 의견에 대하여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런 뒤, 이어서 논의할 사항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제시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 앞서 ‘전문가 1’은 이 지역이 ○○ 문화의 중심지라는 역사가 있고, 박물관에서는 ○○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A]에서 진행자는 ‘전문가 1’이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A]에서 ‘전문가 1’이 진행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진행자가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힌 부분은 없고, ‘전문가 1’에게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③ [B]에서 진행자는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할 뿐, 두 사람의 제안을 종합하고 있지 않다. 또한 [B]에서 진행자가 공간 구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⑤ [C]에 앞서 ‘전문가 2’는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행자는 [C]에서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를 재진술하며 그렇게 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으며 예상되는 효과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 39. 대담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㉔와 관련하여 (가)의 ‘전문가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로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와 관련하여 (가)의 ‘전문가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박물관이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② ㉖와 관련하여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㉔와 관련하여 (가)의 ‘전문가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 박물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증축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유산 보존이라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④ ㉔와 관련하여 (가)의 ‘전문가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 40. 건의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생회장’은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3문단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의 4문단에서는 증축될 박물관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의 ‘전문가 2’가 세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의 정의와 관련해 공동체의 참여를 언급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힌 부분은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전문가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이 ○○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전문가가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므로,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의 3문단에서는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우리 지역이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 1’의 의견과는 다른 내용이며,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의 2문단에서는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며, 청소년이 체험해 보는 교육 활동을 좋아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는 (나)의 ‘학생 1’이 세 번째 발화에서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부분은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전문가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이번 기회에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생 2’는 전문가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음을 언급하며,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2문단에서는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다)의 3문단에서 역사학 관련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함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41. 건의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㉞은 독자가 건의를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

도 있지만, 그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독자가 우려할 수 있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건의문의 독자인 박물관장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은 체험 공간 조성과 관련해 독자가 체험 중의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며, 또 다른 이점도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건의의 수용과 관련해 예상되는 우려일 뿐 필자의 건의 사항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에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은 체험 중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켰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에서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이점을 비교하지 않았고, 독자가 우려하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독자가 건의를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보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에서 독자의 이점과 관련해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42. 건의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과 관련하여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의 3문단에서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한다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③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역에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한 것이다. ④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진로 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



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⑤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 주셨으면 한다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는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43~45] 작문

43. 설득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해설 : (나)에서는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불량 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이러한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 식품은 ~ 식품을 말한다.’와 같이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불량 식품의 개념을 밝히면서 ㉠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예를 들어, 저렴한 균것질거리는 ~ 유해한 불량 식품이다.’와 같이 불량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불량 식품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면서 ㉠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불량 식품 판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4문단에서는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와 같이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제시하면서 ㉠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를, 4문단에서는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면서 ㉠을 구체화하고 있다.

44.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식품 유통 및 ~ 출시되고 있다.’는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 변화에 맞춰 ~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는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만,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 노력이 요구된다.’는 독자가 아닌 식품업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②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만,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로 홍보하는 식품의 신고 방법’은 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밝히고 있으나,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④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만,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 집중할 전망이다.’는 독자가 아닌 식품업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45.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ㄱ-2를 통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불량 식품 적발 건 중 이물 검출 유형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이를 활용하여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ㄱ-2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불량 식품 적발 건 중 이물 검출 유형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ㄱ-2는 (나)의 4문단에서 ‘불량 식품 적발 유형 중 이물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를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에서는 A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ㄴ은 (나)의 2문단에서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해한 불량 식품’이라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ㄷ에서는 불량 식품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ㄷ은 (나)의 1문단에서 ‘불량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ㄱ-1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에서 ‘위반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ㄷ은 ‘전담 관리원의 활동으로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ㄱ-1과 ㄷ은 (나)의 3문단에서 ‘이 제도는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② 42. ⑤ 43. ① 44. ③  
45. ④

[35~36] 언어

**[35~36]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과 파생을 포함한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접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가 구분됨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단어 형성 시에 구성 요소의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를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와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 ‘대낚’과 ‘고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복합어와 형태가 줄어들며 형성되는 단어

###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놀이방’은 직접 구성 요소가 ‘놀이’와 ‘방’이다. ‘놀이’는 ‘놀-’과 ‘-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단맛’은 직접 구성 요소가 ‘단’과 ‘맛’이다. ‘단’은 ‘달-’과 ‘-ㄴ’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용꿈’은 직접 구성 요소가 ‘용’과 ‘꿈’이며, 이 중에서 ‘꿈’은 ‘꾸-’와 ‘-ㅁ’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 아니다. ②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가 ‘망치’와 ‘-질’이며, ‘-질’은 접사이므로 ‘망치질’은 파생어이다. 그러나 ‘봄날’은 직접 구성 요소가 ‘봄’, ‘날’이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이며, ‘이’는 자립 형태소이다. 그러나 ‘짓- + -은’으로 분석되는 ‘지은’에는 자립 형태소가 없다. ⑤ 의미를 고려할 때 ‘꽃고무신’의 직접 구성 요소는 ‘꽃’과 ‘고무신’이다.

### 36. 단어의 이해

**정답해설** : ‘직접’과 ‘선거’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직선’은 ㉠에 해당한다. 또한, ‘직선’이 여러 선거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직선’은 ‘선거’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흰자’는 ‘흰자위’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흰자’와 ‘흰자위’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는다. ② ‘공격’과 ‘수비’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공수’는 ㉠에 해당한다. 또한, ‘공수’는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 각각과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④ ‘민간’의 앞부분과 ‘투자’의 뒷부분이 결합한 ‘민자’는 ㉠에 해당한다. 또한, ‘민자’가 여러 투자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민자’는 ‘투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⑤ ‘외국’의 앞부분과 ‘영화’의 뒷부분이 결합한 ‘외화’는 ㉢에 해당한다. 또한, ‘외화’가 영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외화’는 ‘영화’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버들잎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표’이 ‘ㅃ’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덧입어 → [던니버]’에서는 ‘덧’과 ‘입어’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둘 다 ㉔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재밌는 → 재미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엄매는 → 억매는 → [영매는]’에서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㉒ ‘불이익 → 불니익 → [블리익]’에서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견인력 → [겨닌력]’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㉓ ‘똑같이 → 똑같이 → [똑까치]’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에서는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㉔ ‘옴조려 → 옴조려 → 옴쪼려 → [옴쪼려]’에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겉늬어 → 겉늬어 → [건늘거]’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38.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정답해설** : ㉔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된다. 책을 ‘읽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읽혔다’에 ‘-시-’를 넣을 수 없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㉒, ㉓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각각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㉔ ㉕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가 된다. ‘읽는’ 주체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한다. ㉕ ㉖, ㉗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가 된다. 이 중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지만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만 해석된다. ㉘ ㉙, ㉚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가 되고, 둘 다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㉑에서는 체언 ‘바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바르래’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㉒에서는 체언 ‘나라ㅎ’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나라랏’이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또한, 체언 ‘中國’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中國애’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㉓에서는 체언 ‘生人’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生人이’가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子息이’와 ‘양지’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㉕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내’와 ‘네’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40~43] 매체

40. 매체의 소통 방식

정답해설 : 학생회장의 발언 내용 중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회장이 화면에 대해 따로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는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하여, 소식을 들을 수용자가 ‘□□고 학생들’임을 밝히고 있다. ② 진행자는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다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여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③ 학생회장은 실시간 대화 창에 글을 올린 학생들 중 ‘동주’와 ‘다예’라는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학습실 사용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며,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B]에서 다예는 학생회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학생회장의 발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라는 반응을 보이며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동주는 학습실의 자리를 맡느라 종례에 늦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습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학생회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에서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C]에서 현지는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학생회장의 발화를 듣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C]에서 연수는 학생회장이 말한 사용 원칙 중 제시된 자료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4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나)에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학생회의 결정에 대해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학생회 공식 카페를 통해 전달하도록 안내하며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장은 두 번째 발언 중,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실 사용자들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을 반영하여, 방송에서 캡처해 둔 표를 제시하면서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을 반영하여, 학생회장이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다예'의 말에는 호응하고 있지만, '연수'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반영하여, 내부 회의뿐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을 반영하여,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한 카페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학생회에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클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은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이 아니라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를 통해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가 많은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를 통해 '언제부터 ~ 신청할 수 있나요?'가 학습실 사용 신청의 시작 시점을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통해 '대의원회에서의 안건 통과'가 '사용 원칙에 따른 학습실 사용 신청'의 선행 조건임을 드러내고 있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대출 조회/연장’이나 ‘대출 예약’ 등과 같이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게시물에 대하여 ‘조회 수 53’과 같이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만, (가)에서는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수정’ 버튼을 통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추천 도서’와 ‘신간 도서’의 도서 이미지 옆에 ‘상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각각의 대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정보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은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사서는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이 요청한 기능은 이미 ㉠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학생이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휴관 안내 설명에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② ‘공지 사항’에서 ‘+ 더 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 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서, 사서는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③ ‘추천 도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⑤ ‘인기 도서’가 월별 통계인지, 연도별 통계인지 궁금하다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